



[뉴스]
新외감법 도입
갈길 먼 회계개혁
02



Economy

코스피	2096.00 (0.00)	코스닥	690.65 (0.00)
금리 (국고채 3년)	1.98 (+0.04)	환율 (원-달러)	1121.60 (-16.50)(2일)

불황 속 이자수의 눈덩이, 사상최대 배당 예고

‘부채공화국’의 또 다른 그늘 은행, 외국인 주주만 배불려

(지분율 70%)

평균 배당수익률 4.3% 전망
금융위기 이후 사상최대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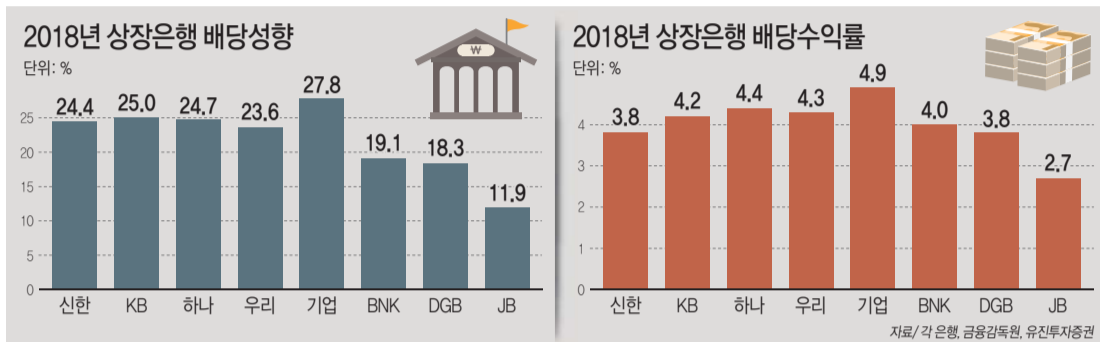
외국인지분 최대 70% 달해
그들만의 배당잔치 논란도

올해 1조7000억~2조원대의 순이익을 내고 있는 4대 시중은행 금융지주는 수 천 억원씩의 주주 배당을 실시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외국인의 ‘배당잔치’가 유력하다. 각 금융지주와 은행의 지분 구조를 보면 최대 70% 수준인 외국인주주가 최대 수혜 대상이어서다.

4일 4대 금융그룹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2018년 은행은 사상 최고의 배당 수익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유안타증권은 상장은행의 2018년 역대 최대실적과 완만한 배당 성향(순이익 중 배당 비율) 상황 가능성을 감안해 4% 수준의 배당 수익률을 예상했다. 다만 자본적 정성 차이로 인해 시중은행 배당 성향 및 배당수익률이 지방은행 대비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2018년 상장은행 평균 예상 배당성향은 21.8%였다.

시중은행 평균 배당성향 및 평균 배당수익률은 각각 25.1% 및



4.3%, 지방은행은 각각 16.4% 및 3.5%가 예상된다. 개별은행 가운데는 기업은행이 지난해에 이어 2018년에도 가장 높은 27.8%의 배당성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음은 KB금융 25.0%, 하나금융 24.7%, 신한금융 24.4%, 우리은행 23.6% 등으로 예상된다. 지방은행은 BNK가 19.1%, DGB와 JB가 각각 18.3%, 11.9%의 배당 성향을 보일 전망이다.

KB금융 김기환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컨퍼런스콜에서 배당 성향과 관련해 “일본 은행이 저배당 기조를 유지하다가 현재는 30%의 배당성향을 보이는데 좋은 벤치마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급격한 상황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중장기로 30% 수준까지 높여나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배당수익률 기준으로는 기업

은행이 4.9%로 가장 높을 전망이다. KB금융(4.2%), 하나금융(4.4%), 우리은행(4.3%) 등도 4%를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은행인 BNK의 배당수익률도 4.0%에 달할 전망이다. DGB와 JB는 각각 3.8%, 2.7%에 이를 전망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사상 최대의 배당이 예상되면서 논란도 커질 전망이다. 배당금 대부분이 외국인 차지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 탓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4대 금융그룹의 외국인지분은 최대 70%대에 달한다. 지난 2일 종가 기준으로 하나금융 주식의 외국인 지분은 70.82%로 가장 높다. 이어 신한금융 68.82%, KB금융 69.70%이었다. 우리은행은 27.63%이다.

지난해 6대 시중은행은 총 7조

6222억원의 순이익을 올려 그중 36.4%인 2조7756억원을 배당했다. 외국인 지분율에 따라 이중 67.2%인 1조8656억원이 외국인에게 배당됐다.

배당되는 수익의 상당수는 기계에서 나왔다. 상반기 영업이익 실적에서 시중은행들은 이자이익에 치중해 있었고, 19조7000억원을 이자 장사로 벌어들였다. 평균 80%(이자이익 비중)가 이자수익인 셈이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외환위기 이후 국내 시중은행은 거의 대부분 외국계 펀드의 지배에 놓이게 됐으며, 이들 외국자본은 금융이 갖는 사회적 책무나 공공성보다는 단기 이익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3면에 계속)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社告

메트로미디어 ‘제3회 뉴테크포럼’ 차원 다른 연결시대 5G가 열어 갈 세상

2019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5세대 이동통신(5G) 시대가 본격 개막합니다. 12월부터는 5G 방식의 전파도 쏘게 됩니다. 5G는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모든 기반이 되는 플랫폼이 변화합니다. 이전보다 월등하게 빨라진 속도와 엄청난 데이터의 송수신이 가능해져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질 것입니다.

5G는 일상생활 속으로도 들어옵니다. 사물인터넷(IoT)을 비롯해 초정밀 위치추위시스템, 자율자동차 등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산업별로는 스마트팩토리, 스마트팜, 네트워크로봇 등 5G가 미치지 않는 영역이 없을 정도입니다. 군사적으로도 5G는 다용도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지난 1~2회 뉴테크포럼을 통해 인공지능(AI)의 시대의 도래를 미리 살펴본 메트로미디어는 이제 5G의 세계를 독자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5G가 열어갈 세상은 어떤지, 이를 위한 기술은 어떤 게 있는지, 정책적으로 어떤 과제를 풀어야 하는지 등을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공유함으로써 5G 시대를 메트로미디어 독자들이 주도할 수 있도록 기여하겠습니다. 메트로미디어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주 제 : 5G, 차원 다른 연결의 시대 개막
- 일 시 : 2018년 11월 28일(수) 09:00~11:50
- 장 소 : 서울시 중구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 주 최 : 메트로미디어
- 후 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SW·ICT총연합회
- 참가비 : 현장등록 5만원 (사전등록시 무료)
- 참가신청 : 제3회 뉴테크포럼 사무국
전화 (02)721-9800, 이메일: forum@metroseoul.co.kr



SK하이닉스 ‘4D낸드’ 개발

세계 최초 ‘CTF’ 기반
칩 하나에 64GB 저장
연내 초도 양산 시작

SK하이닉스가 지난달 말 차세대 낸드플래시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4일 밝혔다.

‘CTF 기반 4D낸드플래시’가 이름이다. 칩 하나에 64GB를 저장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연내 초도 양산을 시작할 예정이다.

4D낸드플래시는 세계 최초로 CTF(Charge Trap Flash) 구조에 PUC(Peri Under Cell)를 결합해 만들었다. CTF는 셀 간섭을 최소화하는 기술로, 국내외 낸드플래시 업체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다. PUC는 페리회로를 셀영역 하부에 배치해 공간 효율을 극대화한다.

4D 낸드플래시 구조는 96단 512기가비트다. 72단 제품보다 칩 크기가 30% 이상 줄어들면서, 웨이퍼 당 비트 생산량도 1.5배 늘었다. 동시 처리 가능 데이터도 배 많은 64KB를 실현했다. 읽기와 쓰기 능력도 30% 가량 빠르다. 전력 효율도 150% 개선됐다.



SK하이닉스는 한차원 발전한 4D 낸드플래시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는 연내 4D낸드로 개발한 SSD(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를 출시할 예정이다. 차세대 스마트폰에 탑재될 UFS 3.0 제품에도 4D낸드로 구성키로 했다. 내년에는 1TB TLC와 QLC 출시로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김정태 SK하이닉스 NAND마케팅 담당 상무는 “향후 개발 플랫폼이 될 CTF 기반 96단 4D 제품은 업계 최고 수준의 원가경쟁력과 성능을 동시에 갖춘 SK하이닉스 낸드플래시 사업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연내 초도 양산을 시작하고, 향후 최근 준공한 M15에서도 본격 양산에 돌입해 고객 요구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SK하이닉스는 차세대 128단 4D낸드플래시도 개발 중이다. /김재욱 기자 juk@

중소 자금조달 방식 ‘아직도 대출 위주’

주식·회사채 발행 1000곳 중 3곳 뿐

IBK경제연구 ‘중소 금융 실태’
10곳 중 1곳 이상 은행도 거절

(비은행금융기관에서 대출 받은 이유)

은행에 비해 대출 절차가 까다롭지 않아서	은행이 대출을 거절해서	은행 대출로는 부족하여 추가대출을 받으려고	급전이 필요해서	기타
41.7%	24.1%	21.1%	21.0%	10.5%

지난해 주식이나 회사채로 자금을 조달한 중소기업은 1000곳 중 3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행요건을 맞출 수 없다보니 오히려 사채를 이용하는 곳이 더 많았다.

은행을 이용하기도 쉽지 않았다. 중소기업 10곳 중 한 곳이상은 은행으로부터 신규 대출을 거절당했으며, 대출을 받더라도 금리가 높았다.

4일 IBK경제연구소가 5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 464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2018 중소기업 금융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중 금융기관으로부터 신규로 조달한 자금의 원천별 비중은 금액 기준으로 은행이

65.2%로 절대 비중을 차지했고 ▲정책자금 16.6% ▲비은행금융기관 9.4% ▲사채 4.8%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주식·회사채를 통한 자금조달은 0.9%에 불과했다.

업체 수 기준으로 주식 혹은 회사채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 경험에 있는 곳은 0.3%로 더 낮았다. 주식·회사채를 통한 자금조달이 없는 이유로는 절반 가량인 49.8%가 ‘기업규모 등 발행요건 미충족’이 가장 많았다.

지난해 은행에서 신규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은 21.8%다. 시중은행(66.8%), 특수은행(22.1%), 지방은행(15.0%) 등의 순이었으며, 신규대출 자금 사용

처는 ‘구매대금 지급’이 53.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은행에서 신규대출을 거절당한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은 12.9%다. 거절 사유(복수응답)는 ‘대출한도 초과’와 ‘담보부족’이 각각 55.1%, 50.0%로 많았다.

정책자금은 중소기업의 7.6%(업체 수 기준)가 신규로 받은 적이 있었다. 정책자금을 받은 이유는 ‘낮은 금리’가 75.9%로 가장 높았으며, 정책자금 평균 금리는 2.85%로 집계됐다.

은행과 정책자금의 수혜를 입지 못한 중소기업들은 제2금융권과 사채로 발길을 돌려야 했다. 지난해 3.8%의 중소기업(업체

수 기준)이 비은행금융기관을 통해 신규 대출을 받았다. 비은행금융기관에서 대출 받은 이유는 ‘은행에 비해 대출절차가 까다롭지 않아서’가 41.7%(복수응답)로 가장 많았다. ‘은행이 대출을 거절해서’(24.1%), ‘은행 대출로는 부족해 추가 대출을 받으려고’(21.1%), ‘급전이 필요해서’(21.0%) 등도 이유로 꼽았다.

사채를 이용한 중소기업은 2.2%(업체 수 기준)였다. 평균 사채 금리는 무려 13.29%에 달했다. 사채를 이용한 이유로는 은행이나 제2금융권을 이용하기 힘들어서라는 답변이 50.3%로 가장 많았다. /양상미 기자 smahn@

시대 못따르는 회계처리, 특허·R&D 등 무형가치 반영을

新의감법 도입

〈下〉갈길 먼 회계개혁

무형자산 처리 명확한 기준 없어
일관성·다양성 반영 기준 논의를
아파트·사립대학 등 비영리 단체
'불투명 자금' 감사공영제 도입할 만

지난 11월 1일부터 외부감사법이 시행되면서 한국 회계 투명성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여전히 사회 곳곳에는 회계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주관적 회계처리로 인한 분쟁도 계속되고 있다.

향후 회계업계는 무형자산 처리 기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과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 비영리단체의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감사공영제 등 새로운 제도 도입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 시대에 뒤떨어진 '무형자산' 회계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는 14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관련 2차 회의가 열 예정이다.

〈무형자산 회계기준의 비밀관성〉

종류	내용	US	IFRS	
외부취득	기업이 제3자로부터 무형자산을 취득	자산화	자산화	
최초취득	내부창출	연구개발비, 고객명단, 광고선전비와 같이 기업의 가치창출을 위한 투자	비용화(예외: 소프트웨어)	부분적 자산화
	기업결합	기업의 결합과정에서 인식하는 무형자산	자산화	자산화
후속측정	재평가	무형자산 공정가치 변동에 대한 반영	허용안함	허용
	손상평가	무형자산의 자산성 상실	손실인식, 환입 불가	손실인식, 환입 허용

현재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사로 전환한 것이 기업가치를 부풀리기 위한 고의적 분식회계였다고 주장하면서 회사 측과 맞서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증선위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2차 회의에서도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따져봐야 할 내용이 많고,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다.

올해 삼성바이오로직스 뿐만 아니라 바이오주 전반에 무형자산 처리에 대한 회계 감리가 진행됐다. 하지만 무형자산 처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투자자

는 물론 바이오업계에서도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회계업계는 무형자산에 대한 회계기준 논의가 부족했다고 자성했다.

회계기준원에 따르면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최고 정보기술(IT) 기업들의 장부가치는 100조원 안팎이다. 하지만 이들의 시가총액 기준 기업가치는 1000조원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괴리가 발생하는 이유는 수익창출에 기여하는 무형의 가치가 회계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다.

회계업계는 '일관성' 있고 '다양성'을 반영한 무형자산 산정 기준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의형 회계기준위원장은 "원칙과 기준이 다른 무형자산 반영은 회계 신뢰성 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무형자산의 복잡성, 다양성 등을 반영하기 위한 여러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무형자산 회계처리에 대한 대안으로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MD & A) 공시가 거론되고 있다. 이는 경영자 시각에서 기업 재무제표 해석 정보와 재무제표에 대한 추가 정보, 기업 이익과 현금흐름의 질·변동성에 대한 자발적 공시 제도를 의미한다.

◆ 회계 사각지대를 없애자 '감사공영제'

최근 아파트, 기부금 단체, 사립대학·학교법인 등 비영리단체의 불투명한 자금 흐름에 대해 회계감사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사립 유치원에서 지원금을 유용한 혐의가 밝혀지면서 공공기관의 회계감사의 필요성은 더 높아지고 있다.

회계업계는 '감사공영제'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감사공영제는 아파트, 학교, 기부금단체, 종교단체 등 국가 재정이 투입되거나 국민 생활과 밀접한 비영리 부문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제3자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는 제도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아파트 재건축 단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장, 군수 등이 회계감사기관을 선정해 사업 시행과 관련된 회계감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감사공영제와 비슷한 형태로 볼 수 있다.

현재 비영리법인이 회계감사를 받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감사 대상인 비영리법인이 스스로 외부감사인으로 회계법인을 선임하는 것은 감사를 받아야 할 대상이 감사인을 선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된 감사가 이뤄지기 힘든 구조다.

감사공영제가 비영리법인의 감사비용 부담을 높인다는 것에 대해 반론이 나오기도 한다. 하지만 회계업계는 감사공영제 실시는 비용보다 효익이 훨씬 크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도진 중앙대 교수는 "한국공인회계사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기준으로 아파트 감사공영제가 시행될 경우 가구당 1만원을 아낄 수 있고, 감사보수는 3500원으로 나타났다"며 "비용보다 효익이 훨씬 큰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업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가을단풍 절정 4일 서울 남산 N타워에서 바라본 산자락이 단풍으로 물들어 있다. /연합뉴스

올 외식물가 2.7% 쯤충... 6년만에 최대폭

통계청, 자장면 등 39개품목 측정

최근 소비자물가가 2% 이하의 상승률을 보이며 저물가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서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외식물가는 상승 폭을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외식물가 상승 폭은 전체 물가 상승률의 두배 수준에 근접하면서 물가가 큰 폭으로 올랐던 2011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4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10월 외식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상승 폭인 2.4%보다 0.3%p 높은 것으로 2011년 1~10월(4.3%) 이후 6년 만에 가장 크다.

외식물가는 자장면·김치찌개 등 서민들이 자주 소비하는 음식 39개 품목의 물가를 측정했다.

외식물가 상승세는 최근 2%를 밑돌고 있는 전체 소비자물가지수와 비교하면 더욱 두드러진다.

올해 10월까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5%로 지난해 같은 기간 상승 폭(2.1%)보다 오히려 더 축소됐다. 전기요금 등 공공물가가 내려간 영향이다.

외식물가지수를 구성하는 대부분 음식이 올해 예년보다 더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냈다.

떡볶이는 올해 1~10월 5.1%나 올라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0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특히 떡볶이 가격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에 달했던 2011년 1~10월(4.7%)보다 상승 폭이 더 컸다.

갈비탕(5.9%), 자장면(4.4%), 볶음밥(4.0%) 등도 2011년 당시 물가 상승 폭에 근접하면서 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어올랐다.

외식물가에는 음식의 재료가 되는 채소류나 쌀 등 곡물의 가격 상승세가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올해 쌀 가격은 10월까지 1년 전보다 27.5%나 오르면서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8년 이후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올해 큰 폭으로 오른 최저임금이 일부 음식값에 반영됐다는 분석도 있다.

외식물가지수는 최저임금의 인상 영향이 가장 많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수로 주목을 받고 있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경총 "지배구조 개편 상법 개정안 반대"

의결권제한 개정안 현실화 땐 외국계 투기자본 방어 어려워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회에 계류 중인 '상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국회법 제사법위원회에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지배구조 개편이 골자다. ▲감사위원 분리 선임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경총측은 "대주주의 의결권 등을 제한하는 개정안이 현실화할 경우 외국계 투기자본의 공격에 대한 한국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며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감사위원 분리 선임이란 감사위원과 일반 이사를 처음부터 따로 나눠 선출하

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 감사위원 선출에 대주주의 의결권은 3%로 제한된다.

현재는 전체 이사들을 먼저 뽑은 뒤 이들 중 감사위원을 다시 선출한다. 이때 대주주의 의결권이 3%로 제한되는 형태다.

법무부는 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의 감사위원을 선출해 대주주의 전횡을 막기 위해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경총은 "감사위원 분리 선임까지 의무화할 경우 대주주의 감사위원 선임에 대한 의사결정권은 과도하게 제약되는 한편 펀드나 기관투자자가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특히 외국계 투기자본이 규합할 경우 감사위원 선임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지분 매집을 통해 주요 주주가 돼 자신들이 원하는 인사를 경영진에 참여시키거나 사측의 주요 의사결정에 반대하는 등 기업 경영을 어렵게 할 수 있다

고 경총측은 우려했다.

경총은 집중투표제에 대해서도 "특정 세력이 지지하는 이사 선임을 용이하게 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며 반대했다.

집중투표제는 이사 선출 때 후보별로 1주당 1표씩의 투표권을 주지 않고 1주당 뽑을 이사 수만큼 투표권을 부여해 특정 후보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또 경총은 다중대표소송제 역시 자회사에 대한 모회사 주주의 경영 개입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전자투표제는 주주사외극 가능성과 해킹·에러 위험 등의 취약성을 안고 있다며 반대했다. 대신 경총은 "상법 개정안 처리보다는 우선적으로 차등의결권 '포이즌 필' 같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경영권 방어수단의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유진 기자 ujin6326@

실직자, 상호금융 대출 상환 유예

금감원,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 시행
최대 3년, 채무변제 순서 선택권 부여

〈상호금융권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 주요내용〉

구분	연체발생 전		연체발생 후	
	사전경보체계	원금상환유예	채무변제순서 선택권	담보권실행전 상담
대상자	·연체우려자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차주(본인, 배우자)	·연체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차주	·연체대출금 보유 채무자(담보물권 제공자)
지원조건	·조합차제 선정	·채무관란사유 발생 ·증빙일정규모 이하의 대출	·별도의 신청서 작성	·조합차제신청(담보권 실행 예정차주)
지원내용	·연체부담 완화 방안을 SMS 등으로 안내	·잔여기간의 상환스케줄 조정기간연장(최대 3년)	·(기본) 비용→이자 →원금 ·(변경) 비용→원금 →이자	·경매절차 개시 이전에 1회 이상 차주와 상담 의무화

*기타 : 차주정보의 주기적 갱신, 전문상담인력 운영 등

주택가격 6억원 이하·1채 보유며, 신용대출은 1억원 이하, 전세대출은 전세보증금 4억원 이하 등이다.

연체가 이미 발생했다면 채무변제 순서선택권을 부여한다. 지금까지 '비용→이자→원금' 순으로 갚아나가야 했던 것

을 차주에게 유리하도록 이자보다 원금을 먼저 갚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연체된 주택담보대출은 담보물건을 경매로 실행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차주와 1회 이상 상담이 의무화 된다.

/안상미 기자 smahn1@

세계 6번째 비싼 서울 집값, 반토막 日 전철 밟나?

(소득대비 집값)

민스키 모멘트 시작되나 (버블붕괴 예고 경제학)

부동산 '버블 vs 꺼지는 불씨'

9·13 이후 주택 하락세 진입
日 부동산 버블 붕괴 비슷한 절차
일부선 '관망세 후 다시 제자리'

'버블이나, 정상 가격이나.'

9·13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두 달, 서울 주요 지역의 집값 상승세가 멈췄다. 업계에선 조만간 주택 가격 하락장이 올 것 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국의 주택 시장이 일본의 부동산 버블(거품) 붕괴 수순과 유사하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일각에선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따른 단기적 영향 일 뿐 서울을 중심으로 다시 상승세를 되 찾을 것이란 기대감이 여전하다.

◆꺼지는 거품?... 일본 전철 밟나

4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11월 첫째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03%로 전주(0.11%) 대비 상승 폭이 둔화했다. 지난달 3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로 대출 문턱이 높아져 자 거래량이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



정부의 전방위적인 부동산대책으로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주춤해졌다. 이에 따라 향후 집값 움직임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을 서울 일대 아파트. /연합뉴스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지난 7월 13일(-0.01%) 이후 4개월 만에 0.13% 떨어졌다.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8월 18일(-0.16%) 다음으로 큰 하락 폭이다.

강남 주요 지역도 상승세가 꺾였다. 고가 재건축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구는 0.05%, 강동구는 0.04%, 송파구는 0.01% 각각 하락했다. 강남구는 재건축 단지인 '개포동 주공고층7단지'의 매매가가 2500만~3000만원 떨어졌다. 대치동 '은마아파트'도 전주보다 2500만~5000만원 싸게 매매됐다.

고강도 대책으로 꺾히는 9·13 부동산

대책(수요 억제 정책) 이후 주택 가격 하락장에 진입하는 모양새다. 업계에선 우리나라가 일본의 부동산 버블 붕괴와 비슷한 수순을 밟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은행의 '국제경제리뷰-일본 주택 시장 동향과 제약 요인'을 보면 일본의 주택 시장 동향은 1986~1991년 중 두 배 가까이 상승(88.0%)했다. 그러다 버블 붕괴와 함께 하락세를 지속하다 최근 들어 안정을 회복했다. 2017년 전국 주택지가는 고점(1991년) 대비 54.1%, 시가지 주택지가는 52.9% 하락했다. 버블이 형성됐을 때와 비교하면 가격이 반 토막 난 셈이다.

국내 부동산 가격도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9월 말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26.8% 급등,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잠재적인 부동산 버블 설명 지표 중 통용되는 지표 중 하나인 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율(PTR)도 높다. 대외경제 정책연구원의 '글로벌 부동산 버블 위험 진단 및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의 PTR은 11.2%로 홍콩(19.4%), 베이징(17.1%), 상하이(16.4%), 시드니(12.9%), 밴쿠버(12.6%)에 이어 여섯 번째로 높다.

◆'거품 아냐'... 서울불패 기대감

그러나 일각에선 집값 상승세를 세계적인 추세로 보고, 다시 불씨가 살아날 것 이란 기대가 여전하다.

국제통화기금(IMF)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글로벌 실질 주택가격 지수'는 160.1로 자료가 확보된 2000년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전 세계 주택가격이 금융 위기 직전에 정점을 찍었던 2008년 1분기(159.0)를 추월한 수준이다.

서울 마포구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한국만 단순 거품이라고 보긴 힘들다"며 "부동산 대책 여파로 관망세에 접어들었지만 시간 지나면 다시 제자리를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주택 가격 상승세가 꺾인 가운데 일부 지역은 꾸준히 가격이 올랐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11월 첫째주 서울 강북 지역, 신도시를 위주로 집값 오름세가 이어졌다. 강북에선 서대문구(0.24%), 노원구(0.14%), 도봉구(0.12%), 마포구(0.08%) 등의 아파트 매매가가 올랐다. 신도시는 광교(0.66%), 판교(0.13%), 파주운정(0.09%), 평촌(0.08%) 등이 오름세를 보였다. 경기도에서도 안양(0.14%), 용인(0.14%), 수원(0.13%) 등이 상승했다.

9·13 대책 발표가 있었던 9월 서울 주택 매매도 활발했다. 유진투자증권 이상우 애널리스트의 '부동산 라이프' 월보에 따르면 9월 서울 주택 매매는 1만9125건으로 전년 동월(1만4684건) 대비 30.2% 증가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반포만 해도 아파트 가격이 4년 만에 10억원씩 올랐다. 거품이 아니면 상승 배경을 설명할 수 없다"면서도 "그러나 강남 불패, 서울 불패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지 않는 이상 수요가 지속돼 가격 하락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채신화 기자 csh9101@metroseoul.co.kr

한경연 "증권거래세 과도... 폐지 고려해야"

자본시장 활성화 저해 이유로 꼽아
투자자 세 부담 커져 시장 위축 주장

우리나라 증권거래세가 해외보다 높아 인하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산하 한국 경제연구원은 4일 '증권거래세의 국제적 동향과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내고 "해외 금융시장보다 높은 국내 증권거래세율이 자본시장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우리나라 증권거래세율(0.3%)은 주변 국가인 중국·홍콩·태국(0.1%), 대만(0.15%), 싱가포르(0.2%)보다 최대 세 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일본은 아예 증권거래세가 없으며, 스웨덴은 주변국보다 과도한 증권거래세 도입으로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서 자본의 국외유출이 발생하자 증권거래세를 폐지한 바 있다.

<증권거래세·주식양도소득세 국내외 현황>

국가	증권거래세	주식양도소득세
한국	○ (0.3%)	○
미국	×	○
일본	×	○
영국	△ (0.5%)	○
프랑스	○ (0.3%)	○
독일	×	○
룩셈부르크	×	○
중국	○ (0.1%)	×
대만	○ (0.15%)	○
홍콩	○ (0.1%)	×
태국	○ (0.1%)	×
싱가포르	○ (0.2%)	×

*영국은 증권 등록시 매수자에게 인지를 부과함. /자료=OECD Statistics

한경연은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모두 매기는 한국의 이중과세 문제도 지적했다.

임동연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양도소득 과세대상이 계속 확대되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모두 매기는 경우가 늘어나기 때문에 투자자의 세 부담이 커지고 증권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

했다. 또 우리나라처럼 증권거래와 양도소득에 대해 모두 과세하는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없고 대부분 국가가 하나의 세목만 과세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임 위원은 "현행 증권거래세는 투기 규제라는 당초 도입 목적보다 세수 목적의 비중이 커졌고 자본시장의 효율성 및 과세형평을 저해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며 "국제적 흐름에 부합하고 자본시장의 과세형평을 제고하도록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거나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증권거래세율을 현행 0.3%에서 양도소득세 확대 시기에 맞춰 0.2%, 0.1%로 점진적으로 인하하고 궁극적으로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동시에 양도소득세의 전면 확대와 이원적 소득세제(근로소득과 자본소득을 구분해 과세하고 자본소득에 대해서는 비교적 낮은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세제) 도입을 병행할 것을 제안했다.

/손영지 기자 sonumji301@

휘발유 1690원... "유류세·국제유가 하락에 상승폭 둔화"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이 18주 연속 상승곡선을 그렸으나 오름폭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오는 6일부터 한시적으로 휘발유와 경유, LPG 부탄에 부과되는 유류세를 15% 인하하기로 결정한 데다 국제유가도 최근 하락세를 보이면서 조만간 가격 상승 행진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서비스인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달 다섯째주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된 보통 휘발유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1당 평균 0.3원 오른 1690.0원을 기록했다.

지난달에만 무려 40원 이상 올랐다는

점을 감안, 주간 상승폭이 크게 둔화했지만 하락세로 돌아서진 못했다. 휘발유 가격은 올 6월 넷째주 이후 무려 18주 연속 상승했다.

자동차용 경유도 한주 만에 0.7원 오른 1495.3원에 판매되며 강보합세를 보였다. 하지만 2015년 1월 이후 처음으로 지난달 1000원을 넘어섰던 실내용 경유는 이번 주에도 3.6원이나 오른 110.9원을 기록하며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갔다.

상표별로는 알뜰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이 1당 평균 0.8원 오른 1666.1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가장 비싼 SK에너지는 0.7원 상승한 1705.8원에 판매됐다. 이어 G

S칼텍스가 1692.1원, 현대오일뱅크와 S-OIL이 163.5원으로 뒤를 이었다. 자가상표 주유소는 1669.9원으로 0.6원 내렸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휘발유 가격이 평균 0.5원 오른 1773.7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최저가 지역인 대구는 0.8원 상승한 1661.8원을 기록해 서울보다 111.9원 저렴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석유공사는 "국제유가는 주요 산유국 생산 증가와 미국의 일부 국가에 대한 이란산 석유 수입 허용 검토 등으로 하락했다"며 "국내 제품 가격도 국제유가 하락 및 유류세 인하 효과에 따라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김유진 기자

신규택지 정보 유출땐 최대 징역 5년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발의

신규택지 관련 정보를 누설할 경우 신분에 관계없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중랑을)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 등의 신규 택지를 통한 공공주택 사업 추진 시 지구지정까지 보안조치 의무와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게 골자다.

공공주택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의 지구지정 제안→ 관계부처·지자체 협의→ 지구지정 및 주민공람 순으로 진행된다. 주민공람 단계에서 행위제한 등 투기방지 대책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현재는 지구지정 전까지 정보누설 방지조치 의무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만 부여됐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해당 의무를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 지구지정 과정에서 협의 주체가 되는 모든 관계기관까지 확대한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뉴스1

또 현행법에는 정보 누설에 대한 별다른 처벌 조항이 없어 신규택지 관련 정보를 누설할 경우 공무원은 '형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한다. 다만 민간인들은 별다른 처벌 조항이 없어 보안에 대한 경각심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처벌 조항을 신설해 협의 과정 등에서 신규택지 관련 정보를 얻은 자가 관련 정보를 누설할 경우, 신분에 관계없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등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됐다.

박홍근 의원은 "신규택지 관련 자료가 사전에 유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만큼, 이번 법안 개정을 통해 신규 택지 관련 보안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채신화 기자

은행 배당 수익률 4%대 넘을 듯

>> 1년 '부채공화국의 또 다른...서 계속

이어 그는 "정부의 인허가, 법적 예금보장, 중앙은행의 여수신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시중은행은 태생부터 공적 혜택을 받고 있는 만큼 은행 본연의 공공성을 시급히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최근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은행권의 이익이 늘어나는 것을 보고 손쉬운 이자 장사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적 시각도 있다"면서 "물론 자금을 증액하고, 그 과정에서

예대마진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는 게 은행업의 본질이지만 은행 활동과 이윤 창출에 사회적 공감과 신뢰의 근간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 달라"고 밝혔다.

반면 주주배당은 주주 환원정책의 일환이자 경영활동의 과점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주 자본주의" 풍조에서 주주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 국부 유출로 몰아 간다면 누가 한국 시장에 투자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김민호 기자 kmh@

“금리 노마드族 오세요” 저축銀 최고 4.9%, OK?

(높은 이자 찾아 거래 은행 옮기는 가입자)

(OK저축銀 'OK VIP 정기적금')

연 3% 이상 예·적금 출시 잇따라
우대조건 충족시 제공 금리 쑥쑥
단기 적금, 특판상품 고려해 볼 만
중도 해지시에도 약정 금리 지급

〈저축은행 예·적금 상품〉

구분	저축은행	상품명	세전이자율(%)
예금상품	페퍼저축은행	회전정기예금	2.92
	머스트삼일저축은행	비대면정기예금	2.91
	키움에스저축은행	SB특통정기예금	2.90
적금상품	조흥저축은행	정기적금	3.10
	금화저축은행	비대면정기적금	3.00
	솔브레인저축은행	쏟쏟한정기적금	3.00
특판상품	OK저축은행	OK웃샷! 정기예금*	2.70
	삼정저축은행	정기예금*#	2.10

*6개월 만기 기준. #24개월 연 2.9%·12개월 연 2.8%. /자료=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공시 금융상품한눈에

#. 취업에 성공한 새내기 직장인 A(33)씨. 최근 급여계좌 은행과 연계해 놓았던 적금이 1년 만기가 되면서 어떤 상품에 가입해야 할지 고민이다. 적금으로 모은 돈은 500만원. 그러나 시중은행을 통해 저축한 500만원에 붙은 이자를 보고 실망한 A씨는 가입기간도 짧고 연 3%대의 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을 눈여겨 보고 있다.

불투명한 경기전망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소비보다 저축을 선택하는 가계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금리 인상에 맞춰 0.1%포인트에도 저축상품을 갈아타는 ‘금리 노마드族(族)’이 늘자 저

축은행이 속속 연 3%대의 고금리 예·적금 상품을 내놓고 있다.

4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1년만기 정기예금은 연 2.65%, 정기적금은 2.71%를 제공하고 있다. 같은 기간 시중의 KB국민은행(2.0%)이나 대구은행(1.70%)보다 0.70~1.00%포인트 가량 금리가 높은 셈이다.

금감원 금융상품비교공시에 따르면 4일 기준 가장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정기예금상품은 페퍼저축은행 회전정기예금 상품이다. 이 상품은 스마트폰 가입 전용 상품으로 연 2.92% 금리를 제공한다. 머스트삼일저축은행 비대면정기예금 상품이 연 2.91%, 고려저축은행의 SB특통정기예금(비대면) 정기예금이 연 2.90%금

리를 제공해 뒤를 이었다.

정기적금 상품의 경우 드림저축은행의 특통정기적금과 조흥저축은행의 정기적금이 각각 연 3.10% 금리를 제공해 가장 높았다. 이어 금화저축은행 (e)정기적금과 솔브레인저축은행의 쏟아 쏟아 정기적금이 각각 연 3.0%의 금리를 제공하며 뒤를 이었다.

만약 우대조건이 충족된다면 OK저축은행의 OK VIP 정기적금에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다. OK VIP 정기적금의 경우 방카슈랑스에 가입하면 최대 연 4.90%의 금리를 제공한다. 아주저축은행의 삼삼오오함께만든적금은 5인 이상이 동시 가입하면 연 4.50% 금리를 제공한다.

짧은 가입기간에도 약정금리를 보장해주는 상품을 원한다면 저축은행 특별판매(특판) 상품도 고려해 볼 만하다. 특판 상품의 경우 일반 상품보다 상대적으로 가입기간이 짧은데다 중도에 해지해도 약정한 금리를 지급해 주기 때문이다.

OK저축은행은 여자프로농구단 네이밍 후원 기업으로 ‘OK웃샷! 정기예금’ 특판 상품을 내놨다. 지난 29일부터 가입할 수 있는 이 상품의 예치기간은 6개월이다. 연 2.7%의 확정금리(세전)를 제공하며 총 1000억원 한도로 판매된다.

삼정저축은행도 수리지점 개점 10주년을 맞아 정기예금 특판 상품을 제공한다. 오는 1일부터 선착순으로 판매하며, 200억원 한도로 제공된다.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 할 예정이다. 특판 조건은 계약기간 24개월 연 2.9%, 12개월 연 2.8%, 6개월 연 2.1%이다.

저축은행관계자는 “저축은행 예금도 일반 은행과 마찬가지로 5000만원까지 원리금이 예금보호 대상이다”며 “요즘은 저축은행도 비대면으로 편하게 통장을 만들 수 있어 금리에 민감한 고객들은 0.1~2%포인트의 금리를 더 받기 위해 이동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나누리 기자 yu115@metroseoul.co.kr

IBK기업은행 신재생에너지 연료 시설에 PF 투자

롯데손보 등과 1370억 펀드 조성

IBK기업은행은 신재생에너지 연료인 ‘목재 펠릿’ 제조시설 건립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기업은행, 롯데손해보험 등 기관투자자는 총 1370억 규모의 ‘키움고성바이오 매스펀드’를 조성하고, 신영포르투가 경남 고성에 건립하는 목재 펠릿 제조시설에 투자하기로 했다.

기업은행은 펀드와 대출을 포함해 총

850억원 규모로 참여한다. 펀드 투자기간은 8년 6개월로, 운용은 키움투자자산운용이 맡는다.

목재를 압축 성형한 목재 펠릿은 석탄 등 다른 화력발전 연료에 비해 대기오염 물질 발생정도가 낮아 탈(脫)석탄 가속화에 기여할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연료다.

이번 투자를 통해 세워지는 공장에서는 국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만을 활용해 목재 펠릿을 생산할 예정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금감원 ‘1사 1교 금융교육’ 추가 참여 접수

금융감독원은 올해 말까지 ‘1사 1교 금융교육’ 추가 참여신청을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1사 1교 금융교육은 전국의 금융회사 점포가 인근 초·중·고교와 자매결연을 맺어 학생들에게 체험교육, 방과후교육 등 다양한 형태의 금융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9월 말 기준 누적 7272개교(전국 초·중·고교의 61.9%)가 4537개 금융회사

분·지점과 결연을 맺고 있다.

참여대상은 현재까지 1사 1교 금융교육 결연을 신청하지 않은 전국의 초·중·고교와 금융회사 본점 또는 지점이다.

학교는 금감원 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금융회사 지점은 해당 회사의 본점에 신청하고, 본점이 일괄 취합해 금감원에 신청할 수 있다.

/안상미 기자

“손님 불만제로 실천”... 우수 사례 시상

KEB하나은행

‘손님불편제거 아이디어 공모전’

KEB하나은행은 지난 2일 서울 을지로 신축 본점에서 소비자 중심의 경영문화 확립을 위한 ‘손님불편제거 아이디어 우수제안자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손님의 입장에서 바라 본 불편사항 및 불합리한 관행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소비자 중심의 경영문화를 확립코자 지난 8월 출범한 하나금융그룹의 ‘손님불편제거위원회’ 활동의 일환이다.

손님과 직원을 대상으로 지난 9월 14일 까지 진행된 아이디어 페스티벌을 통해 총 1400여 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서 손님불편제거위원회를 통해 489건의 개선과제를 도출했다. 이 중 127건은 이미 시행 완료했고, 278건은 개선 진행 중에 있다.

KEB하나은행은 손님불편제거위원회를 통해 손님과 직원이 낸 아이디어를 심사해 선정한 결과를 경영 전반에 즉시 반영했다. 가장 빈도수가 많았던 제안 내용을 주려 ▲인터넷뱅킹 간소화 ▲비대면 처리 확대 ▲알림 서비스 강화 ▲여성취



함양주 KEB하나은행장(왼쪽 세번째)이 ‘아이디어 페스티벌’을 통해 접수된 손님불편 아이디어 중 우수제안자로 선정된 손님들에게 감사장을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급절차 축소 등을 중점 개선 과제로 선정, 우선적으로 개선해 손님불편을 제거했다.

이날 개최된 ‘손님불편제거 아이디어 우수제안자 시상식’에서는 우수 아이디어를 제안한 손님 11명과 직원 7명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시상식에 참석한 수상자들은 “은행장이 직접 손님불편제거위원회를 주재해서 손님들의 의견을 일일이 챙긴다는 점에서 강한 의지와 진정성을 느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함양주 KEB하나은행장은 “손님들과

직원들의 소중한 의견 하나하나가 KEB하나은행을 발전시키는 커다란 원동력이 된다”며 “앞으로도 작은 부분이라도 불편을 느끼는 부분을 제안해주시면 경영 전반에 적극 반영 하겠다”고 밝혔다.

KEB하나은행은 앞으로도 손님불편제거위원회를 통해 손님의 입장에서 불편을 느끼는 제도, 관행 및 프로세스, 시스템 등을 사전에 적극 제거함으로써 ‘손님의 기쁨’을 최우선 가치로 두는 소비자 중심 경영문화를 확립하고 금융소비자 권익 증진에 앞장 설 계획이다.

/김민호 기자 kmh@

“보험, 갈아타기보단 계약 변경이 유리”

금감원 Q&A

보험 변경 체크포인트

Q: 얼마전 기준에 가입한 보험을 해지하고 보험설계사가 추천한 다른 보험으로 갈아탔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새로 가입한 보험의 보장내용이 기존 보험과 크게 다르지 않고, 오히려 기존 보험계약을 중도해지 하면서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보험을 갈아탈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A: 가능하다면 보험은 갈아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을 갈아타는 과정에

서 금전상 손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기 이전에 보험계약을 해지하면 돌려받는 돈(해지환급금)이 지금까지 낸 돈(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고, 기존 보험을 계약했던 때보다 나이가 많아졌기 때문에 보장범위가 동일한 보험으로 갈아탔더라도 더 비싼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재정상황이 여의치 않아 보험가입금액을 낮추거나 기존 보험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사고까지 보장받고 싶어지는 경우 등에는 보험을 갈아탈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보험을 갈아타기 보다 기존 보험계약의 계약 조건을 변경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계약

변경을 통해 보험 가입금액이나 보험종목을 변경할 수 있고, 특약을 없애거나 새로운 특약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보험회사별 또는 상품별로 보험종목 변경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보험회사 콜센터 등을 통해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불가피하게 보험을 갈아타야 한다면 ‘비교안내 확인서’를 충분히 활용하세요. 보험설계사 등이 새로운 보험상품을 권유할 땐, 비교안내 확인서를 통해 기존 보험과 신규 보험의 보험료, 보험기간, 보장내용과 같이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면서 안내해야 합니다. 이 비교 내용과 본인의 상황을 꼼꼼히 고려해 보험계약을 갈아타실 지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불이익을 방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재희 기자 ryusoul91@

제56차 초보자를 위한 부동산 경매교육

~~400,000원~~ → **60,000원 (85% 할인)**

- (평일반) 2018년 11월 14일~12월 6일
매주 수, 목요일 오후 7시30분~9시30분 / 총8강
- (주말반) 2018년 11월 17일~12월 8일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30분~오후 4시30분 / 총8강
- 현장교육 (별도응선) : ~~300,000~~ → 130,000원
11월 25일(일), 12월 2일(일), 12월4일(화)

www.leadersauction.com

※사전 수강 신청 필수 -홈페이지 참조

교육문의 02) 521-9111 (강남역 5번출구)

실리콘밸리에 첫 오픈이노베이션 센터 '엠큐브' 개소



자율차·스타트업 발굴 등 미래성장 거점으로

자율주행 등 미래차 신기술 투자
창의적 아이디어+인프라로 '원인'
2020년 딥러닝 카메라 개발 목표

현대모비스가 글로벌 스타트업 발굴과 함께 투자를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에 드라이브를 건다.

최근 현대차그룹의 맏형인 현대차에 이어 기아차, 현대위아 등 계열사들이 미래 먹거리 확보에 나선 가운데 현대모비스도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 대응에 나선 것.

최근 현대·기아차는 제품과 산업 경쟁력 강화, 미래 신기술 역량 확보를 위해 주요 부문에 대한 임원 인사를 단행했으며 현대위아는 친환경 자동차 부품과 스마트팩토리 솔루션 제조사로 도약하기 위해 전열을 재정비했다.

이에 현대모비스는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에 첫 오픈이노베이션 센터인 '엠큐브(M.Cube)'를 개소하고, 자율주행 등 미래차 신기술을 보유한 글로벌 스타트업 발굴과 투자를 본격화한다고 4일 밝혔다.

또 현재 운영중인 중국 선전의 연구본소에 투자 기능을 추가하여 '엠큐브'로 확



현대모비스 오픈이노베이션 현황

권역	중점 분야	비고
국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헤드쿼터 □ 자율주행·모빌리티 서비스 등 신사업 총괄 	오픈이노베이션팀 신설(18.01)
북미 (실리콘밸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주행·인포테인먼트 유망 스타트업 발굴 □ 혁신기술 트렌드 예측 □ 스타트업 네트워크 구축 	엠큐브 신설 (18.11)
중국(선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공지능 기반 특화기술 □ 현지 차종 커넥티비티 서비스 	연구본소-엠큐브 확대 운영(19. 상반기)
이스라엘	□ 보안·센서·SW플랫폼	
유럽	□ 모빌리티(핀란드·스웨덴·프랑스 등)	
아시아	□ 아시아 주요 국가 스타트업 네트워크 구축	

대 운영한다. 엠큐브는 개방형 혁신활동과 창의성(Creative), 스타트업 육성(Incubation)에 대한 현대모비스의 의지를 담고 있다.

현대모비스는 실리콘밸리 엠큐브를 ▲ 자율주행(센서·로직·소프트웨어 플랫폼) ▲ 커넥티비티(인포테인먼트·생체인식) ▲ 신사업 혁신부문(인공지능·차량보안) 등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투자하는 핵심 거점으로 활용해 미래차 기술을 강화할

다. 이를 위해 실리콘밸리 엠큐브 센터장으로 현지에서 스타트업 투자 등 20여 년 경력을 보유한 선 류(Sean Ryu) 박사를 영입하고, 조직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내년에 오픈할 중국 선전의 엠큐브는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에 특화된 거점으로 운영된다. 현대모비스는 중국 스타트업과 함께 현지 시장에 최적화된 자율주행·커넥티비티 요소기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선전은 한때 '중국 제조업의 상징'에서 현재는 인공지능 등 4차산업 혁명의 중심으로 변화를 거듭하고 있어 우수 스타트업을 발굴하기에 최적의 환경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대모비스는 엠큐브가 현대모비스와 스타트업 양측 모두에 윈윈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대모비스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스타트업은 현대모비스의 핵심부품

노하우와 인프라를 바탕으로 성장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수경 현대모비스 기획실장(전무)은 "스타트업에 단순 투자하는데 그치지 않고, 자율주행·커넥티비티 등 현대모비스의 연구개발 역량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스타트업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자동차에 최적화된 환경으로 조기에 개발될 수 있도록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모비스는 엠큐브와 국내외 연구소의 시너지도 기대하고 있다. 국내외 연구소에서 확보한 연구개발 역량과 스타트업에 투자해 확보한 요소기술을 융합하겠다는 전략이다. 실제로 현대모비스는 지난 8월 글로벌 최고 수준의 영상인식 기술을 보유한 스트라드비전에 투자하고, 2020년을 목표로 딥러닝 기반 카메라를 개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대모비스의 ADAS·자율주행 기술과 스트라드비전의 영상인식 기술을 융합해 단계 진화한 차세대 인공지능 카메라를 선보일 계획이다.

현대모비스는 현재 국내 기술연구소와 총 4곳(북미·중국·독일·인도)의 해외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기술연구소는 현대모비스의 전체 연구개발 로드맵을 수립하며, 현재 약 3000명의 연구인력이 근무하고 있다. /양성근 기자 ysw@metroseoul.co.kr

삼성전자, WBA '글로벌 브랜드' 선정

브랜드 가치·10만명 이상 투표 진행

삼성전자가 전세계 최고 가전 브랜드라는 평가를 받았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2018-2019 월드 브랜딩 어워드(WBA)'에서 소비자가전(TV) 부문 글로벌 수상자로 선정됐다.

평가 대상은 57개 국가 4500여개 브랜드였다. 브랜드 가치와 전문가 설문조사, 10만명 이상을 상대로 투표를 진행해서 최종 351개 브랜드를, 이 중에서 32개만을 '글로벌 브랜드'로 선별해냈다.

삼성전자 외에는 미국 아마존과 애플, 페이스북,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IT기업들이 글로벌 브랜드로 뽑혔다. 코카콜라와 질레트, 롤렉스 등도 어깨를 나



란히 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32개 중 16개나 있었다. 프랑스가 4개, 중국과 독일, 스위스가 각각 2개였다. 우리나라 기업은 삼성전자 1개 뿐이다. 소비자가전 부문에서도 삼성전자는 유일했다.

WBA는 영국 런던에 있는 글로벌 비영리 단체 '월드 브랜딩 포럼'이 발표한다. 글로벌과 지역, 개별국가 등 3개 항목으로 최고의 브랜드를 선정한다. 2014년부터 5년째 이어졌다. /김재용 기자 juk@

삼성전자, 中 겨냥 '초고가 폴더폰' 출시

中 이통사 차이나텔레콤과 합작
4.2인치 듀얼 디스플레이 탑재

삼성전자가 중국 시장을 겨냥한 초고가 폴더폰을 출시한다. 4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중국 이통사 차이나텔레콤과 함께 9일 중국에서 초고가 폴더폰 'W2019'를 공개하고 이달 말 제품을 출시한다.

삼성전자는 2008년부터 차이나텔레콤과 중국에서 200만~300만원대의 스마트폰을 내왔다. 초고가 제품을 원하는 극히 일부 수요에 맞춘 제품이다.

4.2인치 듀얼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W2019'는 퀄컴 스냅드래곤 845 칩셋을 장착하고 AI 기능을 갖춘 후면 듀얼 카메라



초고가 폴더폰 W2019. /삼성전자

를 포함할 예정이다.

삼성전자가 중국을 겨냥한 다양한 라인업의 제품으로 1%대의 점유율을 반등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삼성전자는 2분기 갤럭시A8스타와 중

국 전용 모델인 갤럭시S 라이트 럭셔리 등을 출시했고, 3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중국 업체에 맞서 중저가 라인업을 대폭 강화했다.

후면 트리플 카메라를 탑재한 갤럭시A7, 쿼드 카메라를 탑재한 갤럭시A9을 선보인 데 이어 중국 시장 전용으로 자사 첫 ODM(제조업자 개발생산) 제품인 갤럭시A6s를 이달 출시했다.

샤오미 위탁 생산 업체인 중국 '윙텍'이 개발부터 생산까지 맡은 제품으로 퀄컴 스냅드래곤 660 칩셋, 6인치 OLED 디스플레이, 6GB 램, 후면 듀얼카메라 등을 갖춘 기본 모델이 1799위안(약 29만5000원)으로 가격 경쟁력을 갖췄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SK그룹, 본사서 일회용품 사라진다

SK가 환경보호 캠페인 실천을 통해 사회적 가치 창출에 나선다.

SK는 서울 종로구 서린빌딩에 입주한 SK수펙스추구협의회와 SK이노베이션, SK㈜가 이달 들어 생활속 환경보호 캠페인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공유좌석제 공사 관계로 인근 빌딩에 임시 입주중인 SK E&S역시 캠페인에 동참할 예정이다.

우선 SK수펙스추구협의회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3대 원칙 아래 조대식 의장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들이 환경보호 캠페인에 참여하기로 했다. 3대 원칙은 ▲ 사내에서 개인 머그컵·텀블러 사용 ▲ 꼭 필요한 경우에는 유리병이나 캔·무색 페트병 음료를 우선 구매 ▲외부 테이크아웃 컵 반입금지 등이다. /김나인 기자 silkni@

협의회가 입주한 서린빌딩내 구내 카페에서는 머그컵과 텀블러를 대여하고 있다. 구내 식당에서는 이달 중순부터 기존 물품들을 친환경 용기로 대거 교체할 예정이다.

SK이노베이션은 '아.그.위.그.챌린지(I green We green Challenge)'를 한다. '나'의 작은 실천을 통해 '우리'가 속한 환경을 푸른 빛으로 만들자는 의미다. 아이스버킷 챌린지처럼 캠페인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이 인증샷을 올리고, 다음 순번을 지명하는 릴레이를 펼치고 있다.

서울 본사뿐 아니라 울산, 인천, 대전, 서산, 증평 등 국내 사업장으로 열기가 확산중이다. SK E&S는 텀블러를 일괄 구매해 구성원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제네시스 EQ900, 이름·얼굴 바꿔 'G90'으로 재탄생

현대차의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가 최상위 세단 EQ900의 이름과 얼굴을 바꾼 부분변경(페이스리프트) 모델을 내놓는다. 제네시스의 기술력이 총집약된 프리미엄 세단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제네시스는 EQ900 부분변경(페이스리프트)의 국내 차명을 해외와 같은 'G90'으로 통일하고 이달 말 공식 출시한다. EQ900은 제네시스가 출범한 지난 2015년 첫 브랜드 모델로 국내 시장에 선보인 모델이다.

제네시스는 기존 현대차의 '에쿠스'가 축적해온 위상과 유산을 존중한다는 의미의 'EQ'와 제네시스의 최상위 제품군을 의미하는 '9'를 결합해 국내 시장에 한해 EQ900이란 차명을 적용했다. 미국을 비롯해 캐나다, 중동, 러시아 등 해외에서는 제



제네시스 EQ900

네시스를 대표하는 플래그십이라는 정체성을 강조하기 위해 G90으로 판매했다.

이를 통해 국내에서도 준중형 고급승용차 G70, 대형 고급승용차 G80, 초대형 고급승용차 G90 등으로 이어지는 제네시

스 승용차 제품군의 일원화한 차명 체계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제네시스는 신차급으로 재탄생한 G90을 내세워 브랜드 전체의 판매 확대를 노린다. /양성근 기자

집에서도 실감형 극장 즐긴다... KT, VR 확장 가속화

KT '기가 라이브 TV' 12일 출시

올레tv 연동한 가상현실 상품 선배 라이브 온 360 등 전용 콘텐츠 준비 무게감 최소화해 활용성 더 높여

미래 거실 풍경이 현실화된다. KT가 '올레tv'를 연동한 VR(가상현실) 상품을 내놓으면서다. VR 보급화와 함께 국내 VR 시장 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KT는 오는 12일 '기가 라이브 TV'를 출시한다고 4일 밝혔다. 올레tv 콘텐츠를 VR에서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로, 기존 올레tv 콘텐츠를 VR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VR 전용 콘텐츠도 새로 준비했다. 프로농구와 영화 등을 실감나게 볼 수 있는 '라이브 온 360'과, 게임사 드래곤 플레이와 공동 개발한 '스페셜포스 VR' 온라인 버전 등이다. VR 콘텐츠를 모은 '월드 VR'과 유튜브 방송도 마련했다. 인디게임 등 콘텐츠를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KT는 VR 상품인 기가라이브tv를 출시하고 시장 선점을 노린다.

/KT

단말기 구매 가격은 47만원이다. 예약 구매시 50% 할인해준다. 이용요금은 내년 3월까지 일부 영화·게임을 제외하고 무료로 제공된다. 결합 상품 도입 여부는 내년 소비자 반응에 따라 결정할 계획이다.

◆'KT표 VR', 쓸만할까

일각에서는 VR 서비스가 선부르다는 우려도 내놓는다. VR가 초고해상도 영상

을 필요로 하는 만큼, 5G가 실용화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느린 전송속도로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KT는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자신했다. 국내 유선 인터넷이 이미 고화질 영상을 전송하기 충분한 속도이며, 콘텐츠도 대부분 UHD급으로 확보 중이라고 설명했다. 속도 저하로 영상이 끊기는 등 사고

를 방지하기 위해 트래픽에 따라 화질을 잠깐씩 떨어뜨리는 기술도 적용했다고 덧붙였다.

VR 콘텐츠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이미 KT는 기가라이브 TV 콘텐츠 확보를 위해 25억원을 투자한 상태다. 대기업뿐 아니라 드래곤플레이, 투토키, 오렌지베리 등 중소 업체들과도 손을 맞잡았다.

◆가볍고 단독으로도 쓸 수 있는 VR 단말기

기가라이브 TV는 중국 피코사가 만든 G2로 이용할 수 있다. 퀵캠 스냅드래곤 835 프로세서에 3K LCD 디스플레이로 영상을 출력하는 제품이다. 기기와 컨트롤러에는 9축 센서를 달았다. 고급형 VR 수준 스펙이다.

특히 KT는 기가라이브tv가 무게감을 최소화해 활용성을 높였다고 강조했다. 총 중량은 268g이지만, 배터리팩을 헤어밴드 뒤편에 삽입하면서 무게를 앞뒤로 양분한 것이다.

컴퓨터나 휴대폰을 함께 써야 하는 다른 VR과 달리 올레tv와 한 번 연동하면

기기를 쉽게 단독으로 쓸 수 있게 했다. 고용량 영상을 옮겨담는 수고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최대 이용 시간은 약 3시간이다. 리튬 폴리머 배터리 3500mAh를 사용했다. USB-C로 충전할 수 있다.

◆VR 시장 커지나

기가라이브tv는 국내 VR 콘텐츠 업계에 성장 발판을 마련하는 역할도 수행할 전망이다. KT는 기가라이브tv 콘텐츠 사용 데이터를 블록체인으로 관리하면서, 중소기업이나 인디개발자에도 합리적으로 수익을 배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관광과 교육 등 분야에도 진출할 예정이다. KT는 기가라이브tv를 가정뿐 아니라 호텔이나 교육 시설 등에 보급하는 등 B2B 사업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IPTV 시장 VR 도입이 빨라질 수도 있다. 현재 SKBLG유플러스는 VR 서비스 론칭 계획은 없다. 다만 각각 옥수수과 U플러스 비디오포털에서 VR영상을 서비스하고 있는 만큼, 기가라이브tv 반응에 따라 시장에 진출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작고 다부진 자동차계의 '과하마'

(果下馬)

자동차 시승기

르노삼성 '트위지'

지난해 출시한 르노삼성자동차의 초소형 4륜 전기차 트위지가 복잡한 도심 속 운송수단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100% 무공해 차량으로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는 귀여운 디자인은 트위지만의 매력이다.

공차중량 450kg의 트위지를 타고 집 근처 주택가 골목 사이를 주행했다. 중·대형 세단이 진입하기 힘든 좁은 길도 능숙하게 진입했고 소음도 없었다. 그 모습은 마치 크기가 작아 과일 하나 아래로 지날 수 있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토종말 '과하마'를 연상하게 했다.

복잡한 도심 속 새 운송수단 부상 소음 없이 좁은 길도 거뜰히 진입 일반 플러그로 차량 충전도 간단

트위지는 최고출력 12.6kW, 최대토크 5.8Nm으로 125cc 스쿠터의 가속성을 낸다. 최고속도는 시속 80km다.

시승을 진행하며 좁은 골목길, 관광지, 한적한 길가 등을 다니는데 최적화된 차량이라고 결론 내렸다. 공공업무, 순찰, 배달, 투어 운영 등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적합해 보였다. 크기도 이륜차와 비슷해 주차장 한 칸에 2~3대까지 주차할 수 있을 정도로 공간이 남았다.

르노삼성자동차에 따르면 현재 각 지자체들은 트위지가 좁은 골목 주행이 쉽고 주차 공간 절약 효과가 커 도심 교통문제를 해결할 근거리 이동수단으로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차량 내부를 살펴보면 시트 구성이 앞뒤로 되어 있다. 최대 2명까지 탑승 가능하지만 180cm가 넘는 성인 남자 2명이 타기에는 공간이 넓지 않았다.



초소형 전기자동차 '트위지'

보호용 캐빈 루프는 일종의 큰 헬멧 역할을 했으며 창문 액세서리도 장착돼 있어 비바람 걱정도 없었다.

계기판에는 배터리 잔량, 변속기 표시등, 속도, 시간, 순간 에너지 소비 및 재충전 상황을 표시하는 에코미터 등 기본적인 요소만 나타내는 LCD 디스플레이가 탑재됐다.

자동 변속기는 스티어링 휠 왼편에 버튼 식으로 위치한다. 주행(D), 중립(N), 후진(R)의 세 가지로 되어 있어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핸드 브레이크는 차량 왼편 안쪽에 짧은 봉 형태로 자리 잡았다.

차량 충전도 간단했다. 차 앞머리 덮개 밑에 숨겨진 충전 케이블을 일반 플러그에 꽂기만 하면 된다. 가정용 220V 소켓으로 별도의 충전기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 3.5시간에 완충되며, 주행 환경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1회 충전으로 50~80km(정부 공인 상온 복합 기준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 거리는 60km) 정도 이용할 수 있다.

트위지의 리튬이온 배터리 용량은 6.1kWh로 보통 전기차 배터리 용량인 28kWh보다 작다. 하지만 전기차가 보통 1kWh로 약 7km 정도를 달리는데 비해 트위지는 16km가량 주행할 수 있다.

트위지는 모터와 구동축이 후륜 주변에 위치한 후방 엔진, 후륜 구동시스템을 택했다. 여기에 네 바퀴가 개별적인 움직임이 가능한 서스펜션 구조가 더해졌다.

/정연우 기자

두산중, 700억 규모 연료전환사업 수주

200MW급 영동화력발전 2호기 바이오매스 연료 방식으로 전환

두산중공업은 한국남동발전이 발주한 약 700억 원 규모의 영동화력발전 2호기 연료전환사업을 수주했다고 4일 밝혔다.

두산중공업에 따르면 이 사업은 지난 1979년 준공된 200MW급 영동화력발전 2호기를 석탄연료 방식에서 바이오매스 연료 방식으로 전환하는 프로젝트다. 보일러 등 기존 설비를 교체해 오는 2020년 6월 내 전환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전환사업이 끝나면 영동화력발전소에 적용될 목질계 바이오매스는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기존 석탄연료 대비 65~75% 이상 줄일 수 있고 연간 135만 톤 가량의 이산화탄



영동화력발전소 1·2호기

소를 감축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두산중공업은 지난 2015년 125MW급 영동화력발전 1호기 연료전환사업을 수주해 2017년 6월 준공했다. 이번 2호기 전환사업이 완료되면 영동화력발전소는 국내 최대 설비용량인 325MW급 신재생발전소가 될 전망이다.

목진원 두산중공업 파워서비스BG장

은 "노후화된 석탄화력발전소 성능개선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영동화력 1, 2호기 및 보령화력 3호기 등 기존 발전소 연료전환과 성능개선공사를 거듭 수주해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며 "향후 국내외 발전소 성능개선공사에서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연우 기자 yw964@

LG유플러스, 내달 1일 5G 전파 쏜다

서울·수도권 셀 설계 완료 내년 3월 이후 서비스 시작

LG유플러스는 내달 1일 서울과 수도권, 일부 광역시를 중심으로 차세대 이동통신 5G 전파 발사를 시작하고 내년 3월 이후 스마트폰을 통한 상용화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LG유플러스는 전파 설계 프로그램 전문회사인 프랑스의 포스크와 손 잡고 최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및 광역시의 셀(cell) 설계 작업을 마무리했다.

지난해 10월부터 1년여동안의 준비를 통해서다. 셀 설계는 최상의 통화 품질을 제공하기 위해 최적의 5G 장비 위치와 안테나 방향 각을 선정하는 작업이다.

레이트래싱 기법은 전파가 전달되는 경로를 추적, 건물의 높이와 위치, 모양을 고려해 전파의 반사, 굴절, 회절을 계산해



LG유플러스 직원들이 안정적인 최고 품질의 5G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5G 셀 설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LG유플러스

예측한다.

아울러 LG유플러스는 국내 중·소통신 장비사 등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 내년 중 5G 오픈랩을 열 예정이다.

선형 서비스 개발을 통한 5G 영역과 생태계 확장을 위한 산·학·연 협력도 강화한다. 한양대학교와는 자율주행 관련 연구 과제를 발굴하고 공동 개발에 나설 예정이다.

/김민인 기자 silkni@

대우조선해양

4년 만에 대졸 채용 블라인드 방식 도입

대우조선해양이 조선업 불황에 따른 경영악화로 중단해온 대졸 신입사원 채용을 4년 만에 재개한다. 올해는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하는 것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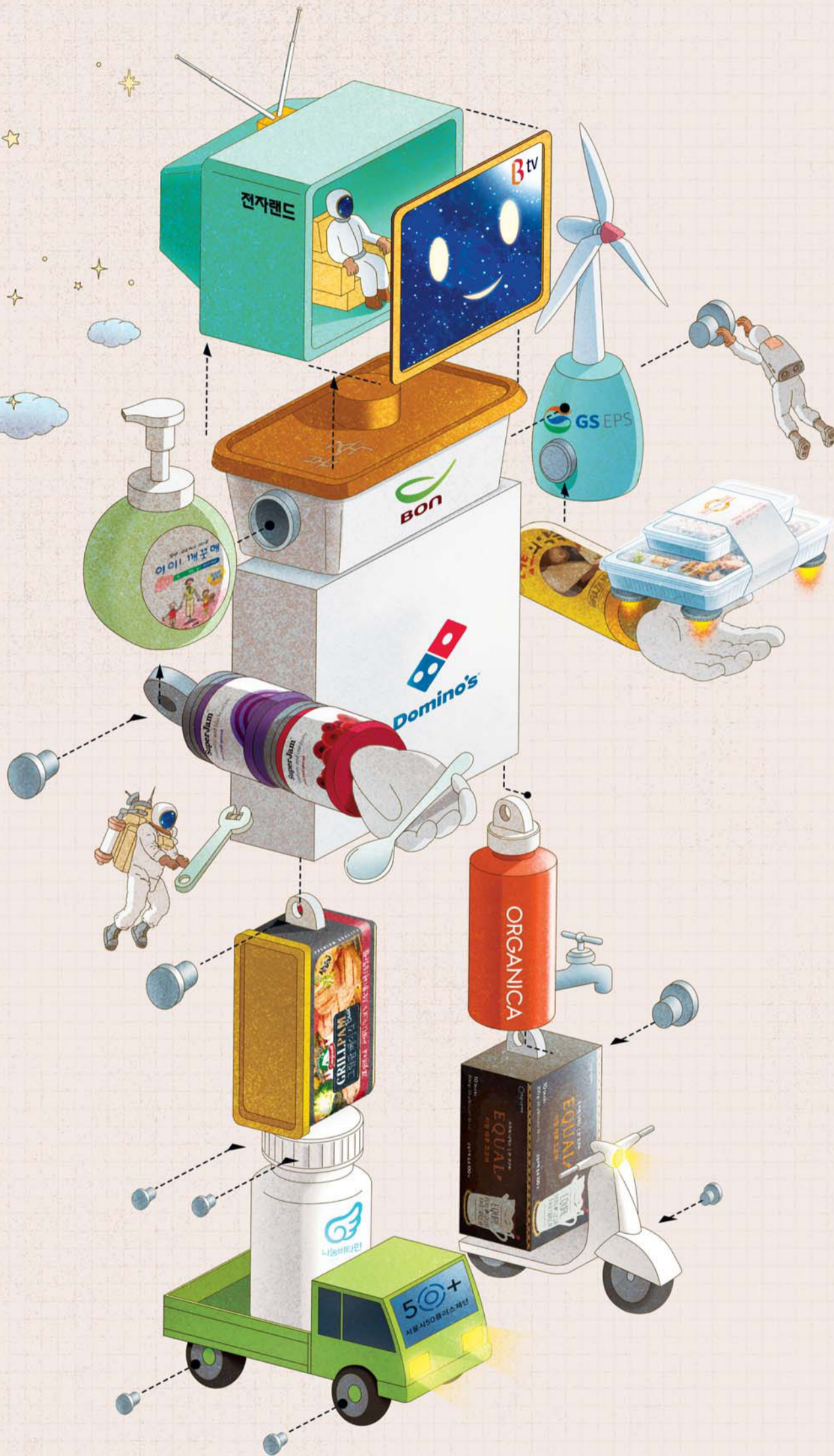
대우조선은 오는 5~16일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대졸 신입사원 채용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채용 직군은 설계, 생산관리, 재무·회계, 경영지원, 구매, 연구개발(R&D), 영업 등 전 분야다.

이번 대졸 공채에는 블라인드 채용 방식이 도입된다. 서류 심사 접수 과정에서 R&D 분야를 제외한 전 분야에 출신 학교명을 배제하도록 했다.

이번 채용 제고는 조선업황 개선과 함께 경영정상화 작업의 성과가 나타나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하는 것이 특징이다.

/양성문 기자 ysw@



아이들의 한끼를 위한

행복 합체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사회 곳곳의 아이들에게
어떻게 힘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키고 싶었던 것은
'아이들의 한끼'

43개의 기업이 마음을 합치고
서로의 능력을 모아
결식 우려 아동들에게
따뜻한 도시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당신의 관심까지 합쳐진다면
어떤 사회 문제도 척척 해결되겠죠?

더 많은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세상 곳곳으로 출동하는
행복얼라이언스가 되겠습니다



행복얼라이언스

행복얼라이언스는 43개 기업, 5만여 명의 서포터즈와 함께 소외 계층 아이들 지원 및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국내 최대 사회변화 네트워크입니다

행복얼라이언스와 함께할 기업과 개인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홈페이지: www.happyalliance.org 연락처: 02 - 333 - 3963



주민들 개발 반기는 '강남 판자촌', 토지보상금이 변수

신규택지 현장에 가다

개포 재건마을

누적 토지보상금액 4.8억 달해
강제 이주민들, 장기 저리임대
자립 위한 근린생활시설 요구

'강남의 판자촌'.

소리 없는 아우성 만크름이나 역설적인 곳이다. 강남은 서울 집값의 바로미터 역할을 할 정도로 주택 가격이 비싼 부자 동네로 통하지만 그곳은 달랐다. 강남구 개포동 1266번지 일대 재건마을 이야기다.

정부가 개포동 재건마을을 신규택지 공급지로 선정할 지 한 달 반이 지났다. 아직까진 고요한 분위기다. 토지보상금 등을 놓고 앞으로 험로가 예상된다.

지난 1일 서울 지하철 3호선 매봉역 4번 출구로 나가자 곳곳에 붙어 있는 플래카드가 양재천 가을 단풍축제를 안내했다. 10분 정도 걸다가 마주한 양재천은 금빛 단풍이 수놓아져 있었다. 그러나 양재천 다리를 건너자 분위기가 달라졌다. '또 다른 세계' 마냥 판자나 컨테이너 등으로 쌓아올린 판자촌이 모습을 드러냈다.



개포 재건마을 진입로(왼쪽)와 내부 모습. /채신화 기자

개포 재건마을은 1979년 도시 빈민, 거리부랑자, 전쟁고아 등을 강제 이주하며 형성된 무허가 판자촌이다. 지난 2011년 화재 사고 등으로 주민들이 흩어지며 현재는 약 60가구만 남아 있다.

재건마을의 주택 환경은 열악했다. 진입로가 좁아 차량이 들어갈 수 없었고, 제대로 길이 나 있지 않아 입·출구를 찾기 어려웠다. 작은 부지에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 주택끼리의 간격이 좁고, 벽이나 지붕엔 장관 등 건축용으로는 부실한 재료가 덧대 있었다. 집집마다 소화기를 비치해두긴 했으나 주택 사이에 액화천연가스(LPG)통이 위험하게 놓여있는 등 여전히 화재 사고의 위험이 곳곳에 서

있었다. 작은 골목에 사다리, 자전거 등이 질서 없이 놓여 있어 사람들이 지나가기도 불편해 보였다. 이날 마주친 한 노인은 "뭘(물건을) 놓을 데도 없어(살기) 불편하다"며 지팡이를 쥐고 포장되지 않은 좁은 길을 한참 걸어 나갔다.

정부는 이곳에 신규 택지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9월 공급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서울에선 송파구 옛 성동구청소 부지와 개포 재건마을에 공공택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개포 재건마을은 지하철 3호선 매봉역과 1km 내로 대중교통 접근성이 양호하고, 양재천 등의 환경요소를 활용해 친환경 단지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을 주민 등은 일대 개발을 긍정적으로 보는 분위기다. 그러나 토지보상금 등 서울시와 주민 협의가 어려운 문제가 남아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재건마을은 지난 2012년 서울시가 공영개발 계획을 발표하며 정비사업이 추진됐으나 주민 이주 대책에 대한 합의가 불발되며 연기돼 왔다. 그러자 강남구청이 2014년부터 이주민에게 토지보상금을 요구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에 따르면 개포 재건마을에 2014~2018년까지 누적된 토지보상금액은 4억8557만원에 달한다.

강제 이주민들은 토지보상금에 대해 억울함을 표하며 재건마을 토지 일부를

장기 저리로 임대하고, 경제적 자립을 위한 근린생활시설 건립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포동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재건마을 개발은 인근 지역에 호재"라면서도 "그러나 그동안에도 얘기만 많고 실제로 추진된 적 없어서 아직까지 개발 기대감이 높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로 일대 집값도 고요하다.

재건마을 오른쪽으로 있는 개포주공현대2차(1986년 준공)의 경우 8월 초 84.81㎡가 17억원(9층)에 매매된 이후 거래가 뜸 끊겼다. 현재는 같은 타입이 18억5000만원에 호가하고 있으나 같은 기간 강남 지역 집값 상승률에 비하면 덩달한 수준이다.

그 옆으로 도로 하나를 건너 있는 개포현대1차(1984년 준공)도 지난 9월 95.4㎡가 18억8000만원(13층)까지 팔렸다. 이후 한 달 반 정도 지났으나 가격은 더 오르지 않고 18억~19억원대에 호가하고 있다.

또 다른 부동산 중개업자는 "강남 지역에 신혼희망타운이 들어온다는 점에서 주민들이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니다"라며 "다만 개발이 본격화되고 젊은 세대가 유입되면 일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채신화 기자 csh9101@metrosoo.kr

'분양 성수기' 전국 1만1130가구 붓물

분양캘린더

11월 둘째주부터 본격적인 분양성수기에 진입한다. 서울 강남의 최대어인 '래미안 리더스원'을 비롯해 수도권·지방 등 전국에서 1만1130가구 이상 물량이 쏟아진다.

4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에는 전국에서 1만1130가구가 공급된다. 최대 관심 단지는 삼성물산이 서울 서초구에 공급하는 재건축 아파트 '래미안 리더스원'이다. 이 아파트는 정부의 주택 공급 규칙 개정을 앞두고 1주택자가 청약 당첨을 기대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단

지가기 때문이다.

이 밖에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 '탑석 센트럴자이', 하남시 신장동 '하남호반베르디움에듀파크', 인천 서구 원당동 '검단금호어울림센트럴', 경남 거제시 장평동 '거제장평꿈에그린' 등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건본주택은 전국 5개 사업장에서 문을 연다.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 '병점역아이파크캐슬', 부산 수영구 광안동 '광안에 일린의뜰', 광주 광산구 우산동 '광산쌍용에기플래티넘' 등이 방문객을 맞을 준비를 한다. /채신화 기자

코스피, 美 '위대한 합의'에도 '어닝쇼크'

주간펀드 동향

1.88% 하락한 2024.46 마감

한 주 간 글로벌 증시는 반등세를 보였지만 국내 증시는 여전히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4일 한국거래소(KRX)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지난 한 주(10월26~11월1일)간 금융당국의 증시안정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주 초반에는 3분기 어닝쇼크가 이어지며 심리적 지지선인 2000포인트를 하회했다. 주 초반 들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중 무역분쟁에 대한 '위대한 합의' 발언이 전해지며 낙폭을 줄인 끝에 전주 대비 1.88% 하락한 2024.46에 장을 마감했다. 해당 기간 개인은 4217억원 순매도세를 보였으나 기관이 순매수로 방어했다.

선진국 주식시장을 반영하는 모건스탠리캐피털지수(MSCI) 월드인덱스(World Index)는 전주 대비 1.73% 상승한 2040.93포인트를 기록했고, 신흥국 주식시장을 반영하는 MSCIEM 지수는 전주 대비 2.37% 상승한 971.44를 기록했다. /손영지 기자

해당기간 국내 주식형펀드는 2.41% 하락했다. 저점에서의 증시 반등이라는 인식에 따라 저가 매수세력에 힘입어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 유형에서 자금 유입이 있었지만, 액티브주식일반 유형을 중심으로 순자산 감소가 나타나면서 전주 대비 순자산은 2700억원 줄었다.

해외 주식형펀드는 0.95% 소폭 상승세를 기록했다. 지역별 분류에서는 브라질(4.92%), 북미(2.18%), 친디아(1.95%) 펀드가 양호한 수익률을 기록했고 중국(0.13%), 베트남(0.15%), 신흥유럽(0.23%) 펀드가 상대적으로 저조한 수익률을 보였다. 순자산은 2700억원 증가했다.

한 주간 가장 수익률이 좋았던 국내주식형 펀드는 액티브주식중소형 유형인 '브레인코스닥벤처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종류C'로 해당기간 0.31%의 수익률을 보이며 전주에 이어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과를 기록했다. 해외주식형에서는 중남미주식 유형으로 분류되는 '미래에셋브라질중대외국증권투자신탁 1(주식)종류A'(6.01%)가 수위를 차지했다. /손영지 기자

남북경협주 48개사 4일간 평균 18.9% ↑

株라쿨라의 종목 도화엔지니어링·희림

급락하던 국내증시 V자 반등세
코스피 5%, 코스닥 9.7% 급등

"지난주 화요일 이후 국내 증시가 저점을 찍고 급반등한 가운데 시장에 충격을 줄 만한 큰 변수들은 대부분 해소된 것으로 판단된다. 시장을 주도할 섹터에 집중해 계좌 손실을 만회해야 한다."

독립리서치 리서치알음 최성환 수석연구원은 4일 급격히 하락한 증시에서 남북경협주의 반등이 탄력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10월 들어 급락을 거듭하던 국내 증시는 지난 화요일 저점을 찍고 V자 반등을 보이고 있다. 최근 4거래일 동안 코스피는 5%, 코스닥은 9.7% 급등했다.

앞서 지난 9월 28일부터 10월 29일까지 코스피지수는 14.8%, 코스닥지수는 23.4% 하락했다. 해당기간 2000여개 종목 가운데 30% 이상 하락한 종목 수는 660개에 달했다.

이에 대해 최 연구원은 "최근 증권사반대매매로 반토막난 계좌가 부지기수"라면서도 "향후 미국 중간선거 이후 시장이

(10월 증시급락 후 섹터별 주가 반등률 Top10)

(단위: 조원, %)

섹터분류	시가총액	주가변동률		
		2018.01.02 ~2018.09.28	2018.09.28 ~2018.10.29	2018.10.29 ~2018.11.02
남북경협48개사	35.8	93.2	-32.7	18.9
IT가전	34.3	0.1	-22.9	15.5
반도체	352.8	-8.8	-24.4	12.6
기계	30.3	-3.3	-22.9	12.1
IT하드웨어	39.6	4.8	-24.5	11.9
화장품, 의류, 완구	69.9	-1.0	-26.2	11.9
게임, 소프트웨어	88.9	-4.1	-25.1	11.8
건설, 건축관련	45.4	14.2	-25.9	11.6
건강관리	155.1	14.0	-29.2	11.4
디스플레이	19.0	-18.4	-22.2	11.1

(자료=와이즈에프엔, 리서치 알음)

어떤 방향성을 보일 지 판단해 투자전략을 새로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시장에 큰 하락을 줄 변수는 대부분 해소됐다고 판단했다. 미·중 무역전쟁이 진정되는 분위기인데다 글로벌 경기지표가 하락하면서 금리인상 시기가 지연될 것이라 시각이 우세해 금리 이슈에 따른 부담이 완화됐기 때문이다. 또 연말 대주주 요건 등으로 출회 예정이었던 개인물량이 이번 하락장에서 1조5000억원 가량 소화되면서 우려감을 덜었다.

최 연구원은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면서 남북경협주를

주목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연내 한반도 종전선언과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예정된 가운데 미국 중간선거 이후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예상돼 남북경협에 대한 기대감은 장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실제 최근 4거래일 동안 리서치알음이 비중확대를 제안한 남북경협주 48개사의 평균 주가 상승률은 18.9%에 달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코스닥 상승률과 비교해 월등히 높은 상승률일 뿐 아니라 다른 업종들과 비교해도 큰 상승폭이다.

/손영지 기자 sonumji301@

'올해의 건설기술대상' 노명선·류병화씨

국토부, 오늘 시상식 개최

올해의 건설기술대상에 토목설계 분야에서는 노명선(㈜유신 전무, 건설사업관리 분야에서는 류병화(㈜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사장)가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5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 그랜드홀에서 '건설기술관리의 날' 행

사를 개최하고 이들에게 시상을 한다고 4일 밝혔다.

건설기술대상은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건설엔지니어링 업계 종사자의 공로를 치하하고, 건설기술의 미래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와 한국건설기술관리회가 공동주최하고 있다.

설계부문은 2018년 현재 준공 완료한 설계용역을 대상으로, 건설사업관리 부문은 준공되거나 공정률 50%를 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참여한 건설기술자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다.

토목설계 분야에서 대상을 받은 노명선 전무는 네팔바르디바스(Bardibas)·이나루와(Inaruwa) 간 전기철도(139km) 구간을 성공적으로 설계, 건설기술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채신화 기자

카드사, 실적 악화에 수수료·DSR 규제 ‘칩칩산중’

(충부채원리금상환비율)

5개 카드사 순이익 12% 가량 줄어
수수료 인하로 수익성 악화 ‘울상’
DSR 영향까지... 구조조정 가능성



정부의 잇따른 가맹점 수수료 인하 조치로 올해 3분기 카드업계의 실적이 크게 악화됐다. 특히 업계 1위 신한카드 순이익은 반토막이 났다. 설상가상으로 금융당국이 수수료 추가 인하 방침을 세운 데다 충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시범 도입되면서 4분기 실적 전망도 밝지 않아 보인다. 일각에서는 카드사가 각종 규제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인력 감축 등을 단행할 것이라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삼성·KB국민·우리·하나카드 등 5개 카드사의 올해 3분기 순이익은 총 439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2%(607억원) 가량 감소했다.

업계 1위 신한카드는 3955억원의 누적 순이익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7806억원과 비교해보면 49.3% 급감했다. 지난해 실적이 2758억원의 대손충당금 환입이 반영된 영향이다. 3분기 순이

익은 1136억원으로 전년 동기(1495억원) 대비 24.0% 감소했다.

삼성카드의 3분기 누적 순이익은 2750억원으로 9.9% 줄었다. 3분기 순이익(807억원)도 전년 동기 대비 12.1% 감소했다.

하나카드의 3분기 누적 순이익은 801억원으로 지난해 3분기(973억원) 대비 17.6%(172억원) 감소했다. 3분기 순이익은 28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4% 증가했다.

같은 기간 KB국민카드는 2455억원의 누적 순이익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2339억원) 대비 4.9%(116억원) 증가했다. 캠프 채권 매각 이익이 반영돼서다.

캠프 매각 이익 370억원을 제외하면 KB국민카드의 누적 당기순이익은 208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339억원) 대비 10.8% 감소했다.

우리카드는 전년 동기 대비 8.9% 늘어난 886억원의 3분기 누적 순이익을 기록했다. 일회성 요인 이익 57억원을 제외하고도 올해 순이익은 829억원으로 지난해 3분기(813억원) 대비 2% 늘었다.

정부의 연이은 가맹점 수수료 인하 조치가 가시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가맹점 수수료는 지난 10년간 9차례 인하됐다.

업계 관계자는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카드사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됐다”며 “정부가 추가로 수수료를 인하할 것으로 예

상되고 있는데 더이상 내릴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당국은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 논의 결과에 따라 가맹점 수수료를 1조원 가량 절감한다는 방침을 내놓으면서 카드업계는 울상이다. 당국은 올해 발표된 수수료 인하분 7000억원에 카드사가 마케팅 비용 등을 줄이면 3000억원까지 추가 인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내년에는 온라인 판매업자와 개인택시사업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등 추가적인 수수료 인하 조치가 예상된다.

여기에 은행권이 시범 운영하던 DSR 규제가 지난달 31일부터 신용카드, 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사에 시범적으로 적용됐다. DSR은 대출자가 해마다 갚아야 하는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70%가 넘으면 위험대출, 90% 이상이면 고위험대출로 분류된다. 채무자가 1년 동안 갚을 능력을 보고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인데, 대출 절차가 까다로워지는 만큼 카드사 이익도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수수료 인하에 DSR 도입

까지 각종 규제에 실적 악화가 불가피해진 카드사가 살아남기 위해 인력 구조조정 등에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6개 카드사로 구성된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카드사들은 인력 감축, 서비스 축소 등 노동자 및 고객들에게 고통을 강요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이르렀다”며 금융위원회와 청와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실제로 신한카드는 지난 1월 200명 규모의 희망퇴직을 단행했다. 국민카드도 올해 들어 분사 이후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시행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민·롯데·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카드 등 7개 카드사의 올해 6월 말 기준 전체 직원수는 1만1649명으로 전년 동기(1만1874명)보다 225명 줄었다. 2015년 6월 말 1만3115명, 2016년 6월 말 1만2106명에서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업계 관계자는 “이제는 한계다. 중소형카드사를 시작으로 카드업계 전체가 잠식 상태에 빠질 수 있다”며 “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활로를 열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희주 기자 hj89@metroseoul.co.kr

금감원, 소규모 영세조합 경영진 면담

광주·무안 등 5개 지역 15개 신탁 대상

금융감독원은 지방 도서지역 및 영업환경이 악화된 지역의 영세조합을 찾아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경영진 면담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면담은 광주(담양), 무안(목포), 해남(진도), 창원(진해), 거제(통영) 등 5개 지역 15개 신탁이 대상이다. 기간은 오는 5일부터 9일까지며, 이사장과 비상임이사 등 경영진 총 32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탁 등 상호금융조합은 영세한 자산규모 및 인력 등으로 다른 금융권역 대비 내부통제가 취약하다”며 “자산규모가 영세한 신탁의 경우 상임감사 선임 또는 감사실 설치 의무가 없어

잠재적인 금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설명했다. 면담은 신탁의 명령휴가제, 순환근무제, 일상감사 및 준법·윤리교육 실시 여부 등 전반적인 내부통제 운영현황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부통제 강화에 대한 경영진의 각별한 관심과 정기 및 수시감사 실시 등 비상임 감사의 역할 강화를 당부하고, 지역경제 둔화에 따라 해당지역 소규모 영세조합들의 영업환경 악화에 따른 애로 및 건의사항 등도 수렴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면담결과 상호금융조합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상호금융업무에 반영하며, 내년 상호금융조합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및 교육 대상조합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안상미 기자 smahnt@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고용부진... 제도적 보완 필요

한은 ‘우리나라 고용구조 특징과 과제’
청년 노동시장 효율성 제고 등 보완책

청년실업 증가, 고용 증가세 둔화 등 고용 확대를 제약하고 고용구조를 악화시킨 주된 요인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화된 영향인 것으로 분석됐다.

4일 한국은행 BOK경제연구에 실린 ‘우리나라 고용구조의 특징과 과제’ 보고서에서 장근호 한은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최근 고용증가세 둔화, 청년실업 증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등 고용의 여러 측면에서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15세 이상 인구(4393만명)의 60.8%(고용률), 경제활동인구(2775만명)의 96.3%가 취

업자(실업률 3.7%)였다. 취업자 가운데 정규직 임금근로자는 50.2%, 비정규직 임금근로자는 24.4%,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 등)는 25.4%였다.

경제가 성장하면서 경제활동 인구가 늘고 고용률이 높아지는 등 양적으로는 성장했지만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32.9%,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취업자 비중은 85.7%에 달하는 등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근로자 비중이 높았다.

또 청년(15-29세) 실업률은 2008년 7.1%에서 지난해 9.8%로 크게 상승하는 등 구조적 문제가 나타나고 있었다. 자영업자비중은 25.4%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5번째로 높았고 여성 고용률은 56.9%로 OECD 평균(60.1%)에 미치지 못했다.

장 부연구위원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청년실업 증가, 고용 증가세 둔화는 우리 경제가 성장하면서 오랜 기간 쌓여온 구조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중소기업 간 도급거래가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중소기업이 기술개발과 생산성 제고를 통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대출자 중심의 청년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과 고용 지원서비스 제도를 개선하고 출산휴가, 육아휴직 지원 내실화, 보육시설 확충 등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주 기자 hj89@

“中 유아용품 시장 공략, 인증·품질로 승부”

한국무역협회 보고서

출산제한 정책 완화 등에 힘입어 중국 유아용품 시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품질기준을 강화한 식품·의류·화장품 등의 수출이 유망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4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발표한 ‘태동하는 중국 유아용품 시장 현황과 전망’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유아용품 시장은 2조9000억 위안을 기록, 관련 제품 수입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분유 등 유아용 식품의 경우 2012년 수입액이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넘어선 이후 작년에는 40억 달러에 달했다.

중국 유아용품 시장 성장의 배경에는 출산제한 완화 정책이 자리 잡고 있으며 최근에는 출산제한 정책 폐지까지 논의되고 있다. 특히 2016년 ‘두 자녀 정책’ 시행 이후 출생인구가 급증하면서 출산제한 정책이 전면 폐지될 경우 출산율 제고는 물론 유아용품 수요와 관련 시장도 커질 전망이다.

보고서는 “우리 기업이 중국 유아용품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빠리허우(1980년대 출생자)와 주링허우(1990년대 출생자)의 소비성향에 주목해야 한다”며 “유아용품 시장의 주요 소비자로 부상한 이들은 풍요로운 가정에서 자란 만큼 가격보다는 품질, 소재 등을 우선시하는 까다로운 기준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프리미엄화 전략을 통해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으로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미국 유기농 제품 인증, 유럽 천일리지 인증 등 해외 공인 인증으로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보고서는 특히 중국 국가식품약품관리국(CFDA)은 최근 유아용 제품의 유해물질 함량 제한을 강화하고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온라인 소비에 익숙한 세대들인 만큼 온라인 마케팅과 온라인 유통채널 진출도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유진 기자 ujin6326@

中 소비시장 성장 발맞춰 韓 소비재 수출 확대해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확장 가속도
불균형적 중간재 중심 구조 완화

중국이 세계적인 소비 지출국으로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소비시장의 질적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도 소비재 수출을 늘리는 등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4일 해외경제포커스에 게재한 ‘중국 소비시장 변화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수향 한은 조사국 중국 경제팀 조사역은 “중국의 소

비시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빠르게 확대되면서 글로벌 2위 규모로 성장하고 있다”며 “미·중 간 무역분쟁 심화로 중국의 내수중심 성장전략이 강화되면서 앞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소비시장 규모는 지난해 4조7000억달러로 미국에 이어 2위다. 오는 2022년에는 미국의 44%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중국의 전체 소비(최종소비지출) 규모는 지난해 43조5000억위안으로 국내 총생산(GDP)의 52.6%에 달한다. 성장에 대한 기여율도 올해 3분기 기준 80% 수준까지 확대되면서 전체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중국 소비행태는 ▲개인화 ▲디지털화 ▲고급화 ▲자족화 등으로 구분된다.

중국은 1인 가구 비중이 빠르게 늘어나

면서 소비 활동이 활성화되고 소비행태가 편리성과 독립성으로 강조되는 ‘개인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 전자상거래 시장이 최근 5년간 연평균 30% 넘게 증가하며 온라인 유통시장이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주력 소비계층인 중산층도 확대하며 고급 제품 수요가 늘고 있다.

아울러 중국산 제품의 품질 개선 등으로 중국 소비자들의 약 80%는 자국산 제품에 대해 만족하면서 구매 비중을 늘려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조사역은 “중국의 부상이 우리에게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중간재 중심의 불균형적 구조를 소비재 수출 확대 등을 통해 완화해나갈 필요가 있다”며 “지역별, 세대별로 다양하고 분화되고 있는 중국의 소비시장 특성별로 맞춤형 전략을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희주 기자



“여호와증인 아니지만, 폭력 거부감에 총 대신 교도소”

인터뷰 박상욱 '非여호와' 양심적 병역거부자

수감번호 1315. 푸른색 관복(죄수복)을 입은 스물세 살 청년이 3평 남짓한 방을 두리번거렸다. 뽕기통(화장실) 옆을 가리키는 싸늘한 눈빛. ‘여기가 내 자리구나.’ 2017년 7월 6일 박상욱(24) 씨는 훈련소 대신 의정부 교도소에 들어갔다. 입소식이 열린 2016년 12월 26일, 비 내리는 골목에 서성이다 병무청에 “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라고 전화한 지 반년 만이었다.

병무청 직원도, 형사와 검사도 어리둥절했다. 여호와와 증인이 아닌 박씨는 어째서 계급장 대신 공소장을 선택한 걸까. 한국전쟁에 참전한 외할아버지와 특전사 출신 아버지를 둔 그는 2일 “폭력에 대한 두려움이 집중 거부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인터뷰 전날 대법원의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단에 반대한 일부 대법관 의견에 반론도 내놨다. 박씨는 “현역병에 대한 처우 개선과 합리적인 대체복무가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종교적 사유로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된 박상욱씨가 2일 서울 망우역 인근 카페에서 메트로와 인터뷰하고 있다.

폭력 내재된 사회 고민, 집중거부로...

-여호와와 증인이 아닌데, 양심적 병역거부를 어떻게 결심했나.

“외할아버지께서 한국전에 참전하셨고, 아버지는 14년간 특전사를 지내셨다. 그래서 남자라면 당연히 군대에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고등학생 때였다. 텔레비전에서 광주 이야기가 나오자, 언제나 자상하던 아버지가 ‘5·18은 폭동’이라고 말씀하셔서 깜짝 놀랐다. 어쩌면 박정희·전두환 정권 때 군 생활을 하신 영향이 있지 않나 추측했다. 초등·중학생 시절에는 내성적이고 말을 더듬어 동급생의 괴롭힘을 당했다. 부끄럽게도 나 역시 나보다 약한 친구를 괴롭혔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구분이 불명확한 한국사회의 폭력적 구조를 알아갔다.”

“20대 들어 인문학 공동체에서 활동하며 차츰 병역 거부에 대한 생각이 변해갔다. 2013년 프랑스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난민으로 인정 받은 이예다 씨 사례를 알게 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가치’라고 느끼게 됐다. 첫 영장은 2014년, 두 번째는 2016년 5월 나왔다. 당시 ‘전쟁없는 세상’에서 예비 병역거부자들의 모임이 있었다. 상상과 달리 다들 평범했다. 출소 이후 대학원에 다니거나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는 등 자기 삶을 잘 꾸려가고 있었다. 군 복

무를 마친 뒤 예비군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다. 여호와와 증인은 자신들만의 공간이 있어서 이 모임에 관여 안 한다.”

-병역을 거부하고 감옥에 가기까지의 과정이 궁금하다.

“입영일인 2016년 12월 26일, 병무청에 ‘병역을 거부한다’고 전화하니 담당자가 난감해하더라. 여호와와 증인인지 묻기에 아니라고 답했다. 사유서를 보내라고 해서 이메일로 전송했다. 이후 병무청이 경찰에 고소했다. 지난해 5~6월 검정에서 한 번씩 조사 받고 6월 28일 판결이 났다. 징역 1년 6개월인데 출역(노역)하고 3개월 감형됐다.”

-검찰이 뭐라던가.

“보통 이런 일은 서면으로 처리하거나 안 부르는데, 북부지검 검사가 ‘이야기를 하고 싶다’며 불렀다. 학교는 얼마나 다녔는지, 사회에 나가면 무얼 하고 살 계획인지 물었다. 직접 커피를 타 주면서 ‘그 안에서 잘 지내라’는 덕담도 건넸다. 자신도 기소하고 싶지 않지만 (현행법 때문에) 안타깝다고도 했다. 입대하라는 회유는 없었다. 2~3주 뒤에 공소장이 왔고 북부지법에서 선고를 받았다. 각오한 일이라 변호사는 선임하지 않았다.”

-부모님은 어떻게 받아들였나.

“병역거부 1년 전부터 어머니를 설득했다. 병무청 통화 후 아버지께 말씀드리니 불같이 화 내셨지만, 나중에는 나의

선택을 믿어주셨다. 면회도 한 달에 세 번 오셨다.”

-훈련소 대신 교도소로 향한 심경은.

“7월 6일 검찰에 자진출두했다. 호송차에 실려 교도소 정문을 통과하니 실감이 났다. 인장을 찍어 신분 확인을 마쳤다. 향문검사와 인적사항 조사가 끝나면 모

교도소서 노역하고 1년3개월 수감 학창시절 당한 폭력...트라우마로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한 나라처럼 현역환경 개선하고 대체복무 마련 ‘양심적 병역거부 운동’ 연대 지속

포와 칫솔을 받고 방에 들어간다. 아저씨 11명이 있었는데, 누군가의 눈짓을 따라 ‘뽕기통’ 옆 작은 공간에 앉았다. 현역 제대인 사람이라 나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았다. 회사는 물론 군대 경험도 없던 나는 식사 준비와 설거지 등 실재없이 바쁘고 경직된 8일을 보냈다. 이후 출역담당 교도관을 따라 인력이 부족한 방에 들어갔다. 여호와와 증인 신도들이 묵는 곳이었다. 일반 방에 비해 합리적인 공간이었다. 하지만 나 역시 그곳에서 소수자였

다. 매일 이어지는 종교집회도 있고, 그곳만의 서열이 있다. 5달 뒤 다른 방으로 옮겨 형기를 마쳤다.”

“현역병 처우 개선과 대체복무 조화로워야”

-이번 대법원 결정에 대한 대법관 4명의 반대의견 중에는 ‘세계대전을 반성한 유럽과 달리 세계 유일의 분단국이라는 엄중한 안보상황, 병역의무의 형평성에 관한 강력한 사회적 요청’ 등이 있다.

“입진왜란과 병자호란 등 근대 징병제 확립 이전 이야기도 나왔다. 우리의 가해역사가 없는 점은 모순이다. 베트남전과 이라크전 파병, 한국전쟁 당시의 내부 폭력, 광주 민주화 운동 등이 빠져있다. 특히 지금은 그 어느때보다 남북 평화에 큰 진전이 있다.”

-반대의견 중에는 이번 결정으로 병력 감소가 이어져 종교와 양심의 자유를 지켜줄 국가적 토대가 사라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앞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나라들도 논란이었다. 현역 가면 손해보고, 억지로 갈 수밖에 없는 곳이 군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독일과 대만 등은 현역복무 환경을 개선했다. 굳이 대체복무할 필요가 없으니 병력감소로 이어지지 않았다. 현재 알려진 정부안인 교정시설 합숙 36개월은 징벌적 성격이 강하다. 현역과 기간이 비슷해야 한다는 국제 기준을 한참 벗어났다. 대체복무 범위와 기간을 다양화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군 복무 유무,

김정숙 여사, 인도 출국... 3박4일 일정

첫 단독 외국방문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3박 4일 일정으로 인도를 방문하기 위해 4일 오전 공군2호기를 타고 출국했다.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은 지난 7월 문 대통령과 함께한 국빈방문에 이어 넉 달 만이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공식 초청으로 인도를 방문하는 김 여사는 현지시간 5일 뉴델리에서 모디 총리를 면담하고, 람 나트 코빈드 대통령의 부인 초청 오찬에 참석한다.

6일에는 아요디아에서 열리는 허황후 기념공원 착공식에 참석해 기념비에 헌화한 뒤 디올리 축제 개막식과 점등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또 7일 타지마할 방문도 김 여사의 이번 인도 일정에서 새로 추가됐다.

인도의 대표적인 이슬람 건축물인 타지마할은 인도 아그라 남쪽, 자무나 강가에 자리잡은 궁전 형식의 묘지로 무굴제국의 황제였던 샤 자한이 왕비 몹타즈 마할을 추모하기 위해 건축한 것이다. 1983

년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관련 브리핑에서 “모디 총리는 디올리 축제를 허황후 기념공원 착공식과 함께해 양국 협력과 역사를 기념하는 축제로 삼겠다”고 한국에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의 이번 방문은 정부의 신남방정책 핵심 협력 대상국인 인도와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김 여사는 지난 1일 인도 순방을 앞두고 랑가나탄 주한인도대사를 청와대에서 접견하고 환담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김 여사는 “모디 총리의 특별 초청으로 인도를 다시 방문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2000년을 함께 해온 한국과 인도의 관계가 양 정상께서 추진하고 계신 문재인 대통령의 신남방정책과 모디 총리의 신동방정책으로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

‘완벽 보존’ 대한제국 옛 제복세트 공개

대한제국 장교 후손 육사에 기증 배꽃 수놓여진 군모부터 벨트까지 완전체 제복... 사료적 가치 높아

육군은 4일 “대한제국 시절 신식군대의 육군 군복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육군에 따르면 대한제국 군복이 정·예복 상의, 하의, 코트 형태의 외투 등이 갖춰진 한벌로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앞서 지난 2일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은 지방의 치안과 변경 수비를 담당했던 근대식 군대인 진위대(영양, 전주, 강화, 인천 등에 설치) 부위(副尉·오늘날 중위)의 군복을 기증 받았다.

군복의 주인공은 대한제국 육군 진위대 부위와 강릉재무서장을 지낸 황석(黃漸)으로, 육군박물관은 그의 종손인 황일주 씨(66)로부터 군복과 고문서를 기증 받았다.

특히 기증받은 군복은 국가 지정 문화재급으로 사료적 가치가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이 2일부터 18일 까지 공개하는 대한제국 육군 진위대 황석 부위(중위) 군복. (위쪽 왼쪽부터 시계방향)대한제국 육군 군모, 코트, 예복, 황석 영정, 바지(공용), 정복

기증받은 군복은 대한제국의 상징인 배꽃이 수놓여진 군모, 외투, 예복, 상복(정복에 해당), 바지가 완전한 한 벌을 이루고 있었다. 또한 천으로 된 바지 벨트와 칼집이 장착된 가죽허리띠인 도대(刀帶)도 함께 보존돼 있었다.

이경미 한경대 의상학과 교수는 “1900년 7월에 개정된 대한제국 육군장졸

입대 후 편한 곳에 가는지 여부 등으로 힘의 차이가 반영된다. 이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영화 ‘내부자들’이 왜 흥행했나. 권력에 대한 국민 신뢰가 낮아서다. 애초에 지키고 싶은 나라, 손해 보지 않는 군대를 만들어야 한다. 최소한 군대 가면 대학 등록금은 벌어들여야 한다.”

-수감 전 ‘전쟁없는 세상’ 기고문에서 ‘총을 들 수 없는 겁쟁이로서의 내면’을 고백했다. 여호와와 증인은 종교를 이유로 한 병역거부를 인정받았지만, 폭력에 대한 두려움도 사유가 될 수 있을까.

“판결문에는 ‘우리도 처벌하고 싶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다(반대의견에 대한 김소영·이기택 대법관의 보충의견으로, 대체복무 입법이 마련된 상태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 빠르게는 19살에 영장이 나오는데 그동안 살아온 모습으로 어떻게 종교에 근거한 양심을 판단하느냐는 질타도 포함됐다. 종교적 이유를 인정하지 않지만, 대체복무의 필요성은 받아들여서 일종의 배려를 한 모습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소견서를 보면, 1000명에게 1000가지 이유가 있더라. 획일화된 틀을 세우기는 불가능하다.”

-군필 친구들과 논쟁을 많이 했을 것 같다.

“아무래도 친구니까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대신 내 친구들은 군 내에서 입은 상처를 이야기했다. GOP에서 어린 선임이 웃을 다 벗게 하고 벌 세운 일, 박격포가 미끄러져 발을 다친 경험 등. 이들에게 ‘양심’이라는 단어가 주는 박탈감이 크더라. 그래도 나의 선택을 공감하고 차분히 대화했다.”

-한달 전 출소하며 든 생각과 계획은.

“커다란 변화에 대한 기대는 감옥 안의 일상에서 지리멸렬했다. 크게 거듭나지는 않았다. 전역날을 맞은 또래의 기분은 모르지만, 나 역시 의무를 마치고 하나의 시기를 매듭지었다고 생각한다. 문학을 전공하다 자퇴했는데 학업을 이어갈 지 고민이다. 수감 당시의 느낌을 정리하든지, 양심적 병역거부 운동에 연대하는 일을 계속하고 싶다.”

/글·사진=이범종 기자 jcker@metroseoul.co.kr

/문형철 기자 captinn@

시공사: (주) **DAELIM**
아크로텔 천안두정
 1,135세대 오피스텔

계약과 동시에 월세 바로 지급!
 월 100만원 / 연 1200만원 10년 임대관리!

선시공 후분양
회사보유분

9.13 부동산 규제정책 반사이익 수혜상품!!

삼성 SDI, 삼성 디스플레이 **삼성 산업단지 5분!**

6천에 2채

계약즉시
 월세수익

임대료지급보증 보험증권 발행

100% 임대완료! 준공완료!

공실걱정 無 유지보수 無 중개수수료 無

- ✓ 1가구 2주택 미적용
-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 ✓ 임대사업자 대출규제 제외대상
- ✓ 양도세 증가 미적용

삼성 SDI, 디스플레이
 LG생활 + 17개 대학교
 ↓
 약 18만 풍부한 수요



시행사: (주)골든핏 씨앤디 | 시공사: 대림산업 | 신탁사: 아시아신탁 | 분양사: (주)엔터렘

문의: **1600-9460**

우리카운셀링: 1006-301-474637 | 예금주: 아시아신탁(주) | 청약금: 100만원

10년 임대보장 확정! (보험증권 발행)

시공사: **DAELIM** 아크로텔 천안두정
 1,135세대 오피스텔



시공사: (주) **DAELIM** 아크로텔오피스텔 **서울의 반값 매각 공고**

▶ 건축개요

사업명	천안 두정 대림이 지은 아크로텔 - 선임대 반값 매각		
사업위치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1464	신탁사	아시아신탁(주)
지역, 지구	일반상업지역, 중심미관지구, 제1종지구	시공사	대림산업(주)
대지면적	7,338.40㎡	연면적	67,484.95㎡
건축규모	지하4층 / 지상12층	공급호수	1,135세대

▶ 청약 및 계약 신청자격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인 분(국내거주 재외동포 및 외국인 포함) 또는 법인에 한해 가능합니다. 분양신청의 중복 호실에 있는 경우 입금 순서에 의해 결정됩니다. 거주지역 및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청약 및 계약 신청시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본인청약신청서 (배우자포함)	* 신분증,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통
본인계약신청서 (배우자포함)	* 신분증,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통

▶ 분양조건

전세대 임대완료			
보증금 500 / 월 50	보증금 1,000 / 월 46	보증금 1,500 / 월 42	보증금 6,500 / 월 25
* 10년 책임임대보장제 (보증보험증권발행)			

▶ 청약금 납입절차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청약금
우리은행	1006-301-474637	아시아신탁(주)	100만원
* 상기 입금계좌 접수순으로 1순위 층, 호수 선착순 마감합니다. (미계약시 전액환불)			

▶ 분양금 납입절차

계약금	담보대출	잔금
10%	70% (신한은행 상도역 지점)	10% ~ 15%
* 실투자금액 2천만원대		

▶ 청약 및 계약장소

청약, 계약	신청장소
층, 호수 선착순 지정계약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0, 서보빌딩 2층 대림이 지은 아크로텔 오피스텔 홍보관

※예약당당제이므로 담당자와 방문예약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신문을 지참하시면 특별혜택을 드립니다.
 ※천안 두정아크로텔은 대림산업이 시공, 준공완료한 임대주택으로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주)골든핏씨앤디의 임대 보유분 매각 경과는 시공사인 대림산업과는 관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혜택
- 1 1가구 2주택 미적용
 - 2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 3 임대사업자 대출규제 제외대상
 - 4 양도세 증가 배제

문의 **1600-9460**

작지만 국가경제·사회적 책임 힘쓰는 사람들

착한기업 일궈온 여성기업인

3대 걸쳐 장학금... 170명 고용

KK 박윤경 대표 등 여성경제인 포상
“여성기업인들의 성장, 함께 노력할 것”

1927년 창업해 무려 91년간 석유 등 액체연료도·소매업을 영위하며 지역경제에 이바지해 온 케이케이(KK).

3대째 걸쳐 경영을 하고 있는 박윤경 대표는 기업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171명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2972억원의 매출을 올린 케이케이는 30년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22회 여성경제인의 날 기념식’에서 금탑산업훈장을 받은 케이케이 박윤경 대표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부



홍중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이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22회 여성경제인의 날 기념식’에서 금탑산업훈장을 받은 케이케이 박윤경 대표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부

특히 장충동족발은 분사와 가맹점간 우호적 관계를 구축, 폐점률이 10% 이하일 정도로 모범적 경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신자 대표는 현재 아너소사이어티에 가입해 있고, 소외계층을 위한 식품기부, 장학금 지급 등 ‘착한 기업’도 만들기에 힘쓰고 있다.

이날 행사에선 또 일광 조영숙 대표, 한만두식품 남미경 대표, 영진산업 이미자 대표, 그린정보시스템 이숙희 대표가 대통령표창을 각각 수상했다.

행사를 주관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이와 별도로 ㈜경진 김현숙 회장을 ‘제2회 여성기업인 명예인 전당’ 현대대상자로 최종 결정했다.

여경협 한무경 회장은 “우리 여성기업인들이 도전과 혁신의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을 더욱 확대하고 여성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자긍심 높은 대표 소상공인

동네빵집 ‘우리쌀 찌빵’ 수출

슬지네제빵소 등 모범소상공인 포상
“소상공인도 존중받는 경제정책 이뤄야”

전북 부안 곰소염전 옆에 있는 슬지네제빵소 김갑철 대표가 철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슬지’는 김 대표의 둘째딸 이름이다. 2대째 내려오고 있는 가족기업인 슬지네제빵소는 우리밀, 우리 팥, 우리 쌀 등 100% 국산 농산물과 발효종, 발효액, 누룩 등으로 만든 특허받은 찌빵을 국내 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등 5개국에 수출하고 있다.

특히 김 대표는 바른 먹거리 운동을 펼치며 지역 농산물 판로 확대에도 앞장서고 있고, 장학금 기부 등 지역에서 사회적 책임에도 힘쓰고 있다.

김 대표는 “천만원의 빚으로 절박하게 시작했던 슬지네제빵소에게 큰 상을 준 것은 더 잘하라는 명령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주변 농가와 소상공인들과 상생하며 100% 우리 농산물 바른 먹거리, 건강한 먹거리를 국민들께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국상조협회동조합, 전국장례협동조합연합회 등을 설립, 소상공인 보호에 힘쓴 장례협동조합 송장우 회장은 석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송 회장은 소상공인 복리향상을 위해 일반 상호회사의 가격보다 26% 가량 싸지만 품격 높은 장례서비스를 제공해 온 공로다. 또 업계 발전을 위해 한국상조대상을 6년 동안 추진해오기도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2일 부산 벡스코에서 ‘2018 대한민국 소상공인 대회’를 열고 김갑철 대표, 송장우 회장 등 모범소상공인, 육성공로자 등 총 133명(단체 포함)에게 포상을 했다고 4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홍중학 장관이 지난 2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18 대한민국 소상공인 대회’에서 철탑산업훈장을 받은 슬지네제빵소 대표인 김갑철씨 부부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훈장을 받은 김 대표와 송 회장 외에 맥아당 나병일 대표와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오세희 회장은 산업포장을 각각 받았다.

맥아당은 ‘청원생명 쌀’을 원료로 빵을 제조·판매해 지역 농민들과 상생을 도모하고 제과제빵 업계의 발전에 기여했다. 나 대표는 KBS 드라마 ‘제빵왕 김탁구’에서 손 대역을 하며 직접 빵 만드는 장면으로 출연했고, 제빵자문을 통해 관련 업계 소상공인들의 자긍심을 높이기도 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대회사에서 “포용적 번영과 성장의 길에 소상공인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들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더 이상 ‘소상공인도 국민이다’는 절규가 반복되지 않도록 열심히 일하면 댓가를 거둘 수 있는 공정 경제 환경을 위해 ‘소상공인도 존중받는 경제 정책의 대전환’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이통3사 부진한 무선수익, IPTV가 메웠다

최근 5개 분기 영업익 1조 밀돌아
IPTV 수익, 전년 비 31.5% 상승

무선 사업의 악화로 이동통신 3사의 3·4분기 실적이 부진을 면치 못했다. 이동통신 3사의 분기 영업이익이 최근 5개 분기 연속 1조원을 밀돌아 향후 5세대(5G) 이동통신 투자 우려도 커지고 있다. 다만, 부진한 무선 사업의 빈틈을 인터넷TV(IPTV) 등 미디어 사업이 메우고 있다.

4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올 3·4분기 영업이익의 합계는 총 9017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동기 대비 8.3% 감소한 수치다.

유일하게 선방한 이동통신사는 LG유플러스다. 홈미디어 사업 성장세로 인해 이동통신 3사 중 유일하게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6.5% 늘었다. 특히 IPTV 수익은 역대 최고 분기 매출인 2539억원을 기록해 지난해 동기 대비 31.5% 상승했다.

반면, 시장 1, 2위 사업자인 SK텔레콤과 KT는 영업이익이 줄었다. SK텔레콤의 경우 3분기 영업이익이 304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5% 감소했다. KT도 영업이익이 3695억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2.1% 빠졌다.

이 같은 실적 부진은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 영향 때문이라는 것이 업계의 전반적인 견해다. 그간 이어진 선택약정 할



한 시민이 이동통신 판매점에서 단말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인율 상승, 취약계층 요금 감면 등의 영향과 선택약정 가입자 증가가 실적 부진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동통신사는 지난해 9월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으로 선택약정 요금할인율을 20%에서 25%로 높였다. 4월부터는 취약계층에 월 1만 1000원 요금을 감면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대표적인 수익성 지표인 이동통신 3사의 가입자당 평균매출(ARPU)은 3만 2137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3% 줄어들며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무선매출도 5조 5961억원을 기록해 지난해보다 5.8% 감소했다.

업계에서는 내년 실적에 대한 부담이 벌써부터 일고 있다. 특히 내년 5G 상용

화를 앞두고 투자가 힘들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내년 설비투자(CAPEX) 효율화를 위해 고심하고 있다. SK텔레콤 측은 최근 실적발표 컨퍼런스 콜을 통해 “대내외 경쟁환경 고려와 경영환경을 고려해 비용 효율화 방안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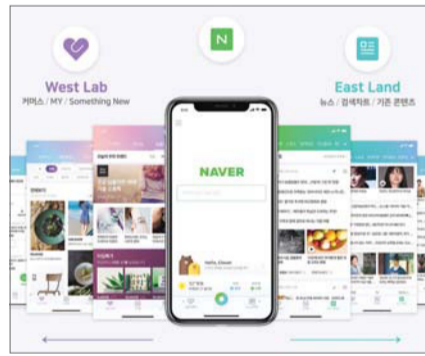
다만, 무선 사업의 부진을 만회할 새 수익원으로 미디어가 뜨고 있다. 3·4분기 이동통신 3사의 IPTV 매출은 총 9350억원으로 23.1% 증가했다. 특히 유일하게 이번 분기 실적 선방을 한 LG유플러스의 성장세가 돋보인다. 홈미디어 매출은 이에 힘입어 지난해 3분기보다 15% 증가한 5170억원을 기록했다. 홈미디어 사업의 성장으로 정부의 가계통신비 절감 요인을 상쇄했다는 풀이가 나온다. SK텔레콤 또한 IPTV 매출 322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3% 증가했고 KT도 IPTV 매출 3592억원을 기록해 같은 기간 15.3% 늘었다.

신사업 포트폴리오 정립 또한 가속화되고 있다. SK텔레콤은 물리보안업체 A DT캡스 인수를 마무리했고, 정보보안업체 SK인포섹을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고 커머스 플랫폼 11번가를 분사하는 등 ‘뉴 ICT’ 기업 도약을 위한 준비 과정을 밟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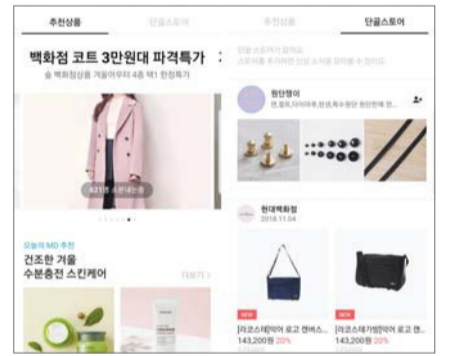
KT는 10기가 인터넷과 5G를 통해 핵심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LG유플러스는 미디어 사업 확대를 위해 케이블TV 인수합병을 추진하고 있다.

/김나인 기자 silkni@

NAVER kakao



베타 서비스 중인 네이버 모바일 첫 화면. /네이버



카카오톡 쇼핑하기 화면 캡처. /카카오

네이버·카카오, ‘커머스’ 사업 강화

네이버와 카카오가 커머스(상거래)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단순 노출되는 광고의 힘이 약해지고, 개인화 추천 등 고도화된 쇼핑 서비스의 등장으로 커머스 시장이 IT 중심으로 재편되는 상황에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지난달 공개한 모바일 첫 화면 개편안에서 커머스 사업 강화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첫 화면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뉴스, 검색카드 등 기존 콘텐츠를 담고 왼쪽에 커머스를 담았다.

이용자는 왼쪽으로 한 번만 넘기면 요즘 유행하는 상품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기존 모바일 앱에서는 오른쪽으로 3번 넘겨야 쇼핑 서비스가 나왔다. ‘ 요즘 유행’, ‘랭킹템’, ‘MY 페이지’, ‘MY 단골’ 등 4개의 탭으로 구성된다. 이르면 올 연말 정식 서비스로 출시될 예정이다.

새로운 아이콘인 인터랙티브 버튼 ‘그린닷’을 통해서도 커머스와의 연동을 수

월하게 했다. 노란 실크 원피스를 보다가 그린닷을 터치하면, 상품 추천 기술을 통해 노란색·실크소재·원피스라는 주제로 더욱 많은 상품을 보여준다.

카카오는 카카오톡에서 베타 서비스로 진행하던 ‘쇼핑하기’를 지난달 24일 정식 출시했다.

지난 1년 4개월간 진행된 시범서비스 기간에는 일부 업체만 입점이 가능했으나, 정식으로 서비스하게 되면서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판매자라면 누구나 입점 가능하다. 따로 회원 가입할 필요 없이 카카오톡 상에서 쉽게 쇼핑을 즐길 수 있다. 카카오톡 쇼핑하기는 크게 ‘추천상품’과 ‘단골스토어’ 탭으로 나뉜다.

단골스토어 탭에선 이용자가 원하는 스토어를 추가하면 신상 소식을 볼 수 있다. 카카오톡의 특성에 맞춰 제품을 친구에게 소문내면 할인해주고 판매자와 1:1 상담 기능 등을 제공한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담배는 싫어요!” 이색 금연 캠페인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남이섬 방문객을 대상으로 흡연 예방 및 금연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어린이 친화공원 남이섬과 함께하는 핑거밴드 페스티벌’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담배 없는 건강한 대한민국’을 주제로, 남이섬의 금연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는 다짐을 하는 ‘핑거밴드 금연서약’을 비롯해, ‘담배 괴물 잡기’, ‘핑거밴드 모험’ 등 담배의 유해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마련됐다. /연합뉴스

농식품부, 세계식량가격지수 소폭 하락

설탕·곡물값 ↑, 유제품·육류 ↓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세계식량가격지수는 163.5포인트로 전월의 164.9포인트보다 소폭 하락했다고 4일 밝혔다.

이로써 세계식량가격지수는 지난 5월부터 하락세가 이어졌다. 설탕·곡물 가격은 상승하고 유제품·육류·유지류 가격은 하락했다.

품목별로는 설탕이 전월보다 8.7% 오른 175.4포인트를 기록했다. 설탕은 주요 생산국인 인도와 인도네시아 지역 생산

이 기후 탓에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가격이 올랐다.

곡물은 1.4% 상승한 166.4포인트로, 미국 옥수수 가격이 수출 수요 증가에 따라 대폭 올랐다.

유제품은 4.8% 하락한 181.8포인트로 5개월 연속 내림세를 기록했으며, 뉴질랜드를 포함한 주요 수출국의 수출 물량이 증가한 것이 배경으로 풀이됐다.

육류는 2% 하락한 161.6포인트로, 소고기·돼지고기·양고기·가금육 등 전 품목 가격이 하락했다.

/세종=최신웅 기자

태국노동자 권익보호 상담·설계 실시

노사발전재단, 노동관계법령 등 소개

노사발전재단은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주한태국대사관 노무관실과 공동으로 4일 광주 평동드림센터에서 재단 취업교육을 수료하고 산업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호남지역 거주 태국 노동자를 대상으로 순회 교육 및 상담을 지원했다.

이번 교육을 통해 고용허가제도 및 체류 관련 신고절차 안내와 외국인노동자가 숙지해야 할 주요 노동관계법령 및 법률을 소개하고, 태국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이전 상담사례 공유 및 체류기간

만료 후 자발적 귀환을 위한 생애설계를 제공했다.

또한, 개별 고충상담을 통해 언어 문화적 차이로 발생하는 태국노동자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됐다.

이정식 재단 사무총장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동 인권 보호, 자발적 귀환 의식 함양을 위한 순회 교육과 한국생활의 고충 해소를 위한 상담 지원을 앞으로도 지속해 외국인노동자의 성공적인 국내 체류와 귀국 후 본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최신웅 기자

건설현장 600곳 겨울철 사고예방 감독

노동부, 부실현장 불시감독 실시

고용노동부는 겨울철 취약요인에 따른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600여 곳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겨울철 대비 산업안전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기본적인 안전보건시설은 물론 혹한으로 인한 건강장해(저체온증, 동상, 뇌·심혈관계 질환) 및 질식 등 겨울철 취약요인에 대한 예방조치를 중점 감독한다.

또 감독 전 사업장 자체 점검을 실시토록 해 자율개선을 이끌고, 개선이 부실하거나 사고위험이 높은 현장을 대상으로 불시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내실 있는 사업장 자체점검을 위해 현장소장을 대상으로 겨울철 취약요인에 대한 주요 점검사항 등을 사전 교육하고, 자체점검 시 활용할 수 있도록 겨울철 재해사례와 위험요인별 안전보건관리 대책 및 점검사항을 담은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누리집에 게시했다.

사업장 자체 점검결과, 안전관리가 불량한 건설현장 및 겨울철 위험현장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관서 근로감독관이 강도 높은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작업중지, 과태료부과 등 엄중 조치하고, 위반 사항은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최근 거푸집동바리 설치 불량으로 콘크리트 치는 작업 중 거푸집동바리가 붕괴되는 사고(부상 6명)가 발생함에 따라 거푸집동바리 설치 상태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박영만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최근 건설현장에서 안전조치 소홀로 인한 화재 및 붕괴 등 대형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현장 안전관리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겨울철 안전보건 예방수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사업장 자체점검을 통한 위험요인 발굴 및 개선활동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세종=최신웅 기자

일자리 예산 확충·지원에 취업자 늘어나는데...

저임금·비정규만 늘어 ‘고용 질’ ↓

민간 대형사업장 채용 7년만에 정규직 보다 비정규직 더 늘어 비정규직 33%... 6년만에 최대

정부가 일자리 예산을 대폭 확충하며 직·간접적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있지만 늘어나는 일자리는 비정규직, 특히 공공부문에서는 저임금 일자리 중심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정규직 채용에 앞장서던 민간 대형사업장에 7년 만에 처음으로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을 더 늘리면서 민간 일자리도 좋지 않은 신호를 보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고용의 양적 지표가 좋지 않다는 점과 영세자영업자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원인분석과 함께 장단기대책을 마련하는데 국회와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제부처 장관들도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8일 주재한 경제현안간담회에서 고용의 질 개선에도 일자리의 양적인 측면의 어려움은 계속될 우려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정부는 상용직 근로자가 늘어난 반면, 임시·일용직은 줄어든다고 있는 점과 고용보험을 통한 사회안전망에 들어온 취업자가 늘었다는 점을 고용의 질 개선의

근거로 들고 있다.

실제로 올해 들어 9월까지 상용직 근로자는 월평균 11만5000명 늘어난 반면, 임시직은 4만4000명, 일용직은 2만6000명 감소했다.

9월 고용보험에 가입한 취업자는 40만 3000명 늘어 2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이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정부의 노력에도 고용의 질 악화를 의미하는 지표도 잇따르고 있다.

당장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민간과 공공부문에서 모두 1년 전보다 늘어났고, 공공부문에서는 단순노무종사자와 임시일용직 근로자가 급증하면서 한 달에 200만원 미만을 받고 일하는 저임금 취업자 수가 크게 늘었다.

4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는 661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3만6000명 늘었다. 비정규직 비중은 33.0%로 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164만4000원으로 정규직 월평균 임금 300만9000원보다 약 136만5000원 적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월급 차이가 작년의 128만2000원 보다 벌어졌다.

비정규직의 고용보험 가입률도 43.6%로 작년보다 0.5%p 떨어져 3년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비정규직의 증가세는 민간부문에만 한정되지 않았다.

올해 8월 기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33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3000명 늘었다.

올해 상반기 공공부문에서 한 달에 200만원 미만을 받고 일하는 취업자 수는 최근 5년 새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단순노무 종사자와 임시일용직 근로자가 급증하면서 공공부문의 저임금 취업자 수는 38만7000명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4만5000명 늘었다.

경제전문가들은 질 좋은 일자리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와 정부의 시각이 괴리된 것 같으며 기업들은 고용 비용이 증가해 정규직 채용을 꺼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경제연구실장은 “정부가 저임금 일자리로라도 실업자 구제를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질 좋은 일자리에 대한 국민 눈높이와 정부의 시각 간에 괴리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세종=최신웅 기자 grandtrust@metroseoul.co.kr

수산물가공식품 7종 기업에 기술이전 완료

해수부, 어육소시지·굴 통조림 등 7개 기업서 상품화 거쳐 연내 출시

해양수산부는 수산물식품산업 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국내의 소비 경향을 반영한 고부가가치 수산물가공식품 7종을 개발해 대일씨에프 등 7개 기업에 기술이전을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해수부는 새로운 식품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수산물 가공 중소기업과 기술력을 갖춘 대학 등 연구기관의 협업을 지원해 고부가가치 수산물가공식품 개발과 사업화를 통한 수산물식품산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경상대학교 수산물식품산업화 기술지원센터는 올해 연구개발사업 지원을 통

해 국내의 소비자의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수산물가공 기술을 개발했다.

주요 기술로는 ▲미주, 유럽 등 먼 거리 수출을 위한 ‘어육소시지 저장성 향상 및 탄력 개선 기술’ ▲최근 해외 젊은 층에서 유행하고 있는 매운맛과 영양을 가미한 ‘매운맛 구운 굴 통조림 제조기술’ ▲비린내가 나지 않는 ‘가정간편식 품장 어볶음 기술’ 등이 있다.

기술이전을 받은 대일씨에프, (주)희창물산, (주)에바다수산 등 7개 기업은 이 기술들을 바탕으로 상품화를 거쳐 올해 안에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특히, 어육소시지는 미국과 유럽 등 세계적으로 수요가 높아지고 있어 장기간 운송에도 특유의 탄력과 신선도를 유지

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했는데, 이번 기술이전으로 수출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문어김’은 지난 8월 ‘베트남 호치민 식품박람회’에 참가해 현지 바이어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현재 베트남 유통업체와 수출을 준비 중이다. 이외에도 건조명란을 활용한 명란 김, 천연색소를 활용한 만든 연어 어묵, 가정간편식 피조개볶음 등이 있다.

지정훈 해수부 수출가공진흥과장은 “이제 우리 수산물식품산업은 고부가가치 상품을 중심으로 질적 성장을 해 나가야 하는 때”라며 “앞으로도 수산물가공식품산업과 수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관련 연구개발 등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최신웅 기자

주식형 펀드 ‘증시 침체기’ 부동산 펀드는 수익 ‘안정’

최근 증시 침체로 주식형 펀드의 수익률은 부진하지만 부동산에 투자하는 펀드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설정액 10억원 이상 펀드수익률을 집계한 결과 지난 1일 기준 해외 부동산 펀드 32개의 연초 이후 평균 수익률은 5.01%였다. 같은 기간 국내 부동산펀드 16개의 수익률도 평균 1.89%로 집계됐다.

이 기간 국내외 해외 주식형펀드의 평균 수익률은 각각 -20.23%, -12.84%였다. 해외 부동산펀드를 상품별로 보면 미국 부동산에 투자하는 ‘미래에셋메스미국부동산투자신탁 11’이 27.01%의 수익



글로벌 증시가 추축하면서 주식형펀드 수익률이 부진한 반면, 부동산펀드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익률을 기록 중이다.

률로 가장 좋은 성과를 냈다. 유형별로는 일본리츠재간접 펀드의 수익률이 7.43%로 높았다. 그러나 글로벌리츠재간접 펀드(-1.26%)와 아태리츠재간접 펀드(-3.63%)는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문남중 대신증권 연구원은 “전 세계 경

기 둔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상대적으로 안전한 미국과 일본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리츠재간접 펀드를 제외한 기타 해외 부동산펀드의 평균 수익률은 5.66%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컨디션 조절 관건’... 실제 수능 시간표처럼 생활해야

수능 열흘 앞으로

새로운 문제보다 복습 중심으로
EBS 지문 암기 대신 꼼꼼히 분석
양보다 질... 생활리듬·건강 유의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11월 15일)이 10일 앞으로 다가왔다. 일주일여 짧은 시간이 남은 만큼 새로운 내용보다는 기존에 공부한 내용의 복습과 과목별 등급을 높일 수 있는 전략적인 학습법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시험 당일 실제 수능 시험 시간표에 맞춘 학습 전략을 통해 당일의 컨디션을 조절하는 것도 중요하다.

◆컨디션 조절 위해 ‘매일 수능일처럼’

남은 10일 동안 실전 수능일과 동일한 스케줄로 생활하며 자신의 컨디션을 최상으로 만들어야 한다. 불안한 마음에 무리하게 밤을 새며 공부하면 그 다음날 생활 리듬이 깨지고 본래 리듬을 회복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 가능하면 수능 시험 순서에 맞춰 영역별로 학습하고 쉬는 시간도 수능 당일 시간표에 맞춰 생활해 보는 것이 좋다.

특히 밤을 새워 공부하는 것은 금물이다. 적절한 수면 시간을 유지해야 한다.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11일 앞둔 4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소원성취 기도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밤에 잘 집중하지만 낮에 집중하지 못하는 패턴이 몸에 익숙해진 경우 실제 수능 시험 당일에도 시험이 치러지는 낮 시간에 최고의 집중력을 발휘하기 힘들다.

커넥츠스카이에듀의 유성룡 진학연구소장은 “이 시기만큼은 실제 수능시험 시간과 일치된 학습 패턴으로 보내야 한다”며 “모르는 것은 미련을 버리고, 아는 것을 확실하게 머릿속에 담아서 시험장에 들어간다는 자세로 공부에 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6·9월 모의고사, EBS 교재 최종 정리

욕심을 부려 새로운 문제를 보기보다는 기존에 나왔던 문제 풀이를 하면서 문제가 요구하는 핵심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6월과 9월 모의평가는 올해 수능의 출제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료이므로 두 번의 모의평가에서 모두 출제된 주제나 유형을 특별히 신경써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다. 새로운 도표, 그래프, 제시문 등이 포함된 신유형 문제들도 마지막으로 점검해야

한다.

수능시험의 EBS 교재 연계 출제율은 70%로 매우 높으므로 EBS 교재를 다시 한 번 훑어보는 것이 좋다. 특히 국어와 영어 영역의 경우 실제 수능과 연계되는 교재의 지문은 다시 한 번 확인해 최종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단 EBS 교재 지문 자체를 암기하기보다는 지문과 제재를 꼼꼼히 분석하는 학습이 필요하다.

◆‘정리노트’ 점검

그 동안 가장 많이 봤던 각 과목의 교재나 정리노트를 가볍게 훑어보며 혼동되는 부분을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것이 좋다. 여러 번 반복해서 보았던 내용은 금방 눈에 들어오고, 머릿속에 쉽게 재정리가 되기 때문이다. 이 때, 올해 출제 경향에 비춰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내용들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마무리 학습에 도움이 된다.

수시모집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는 대학에 지원한 학생의 경우 해당 대학에서 요구하는 등급을 반드시 받아야 수시모집에 합격할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이 지원한 대학의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파악해 해당 과목의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과목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 또 올해 모의 평가 성적을 살펴보면, 점수 상승 가능성이 높은 영역을 찾아 단기간 학습효

과를 볼 수 있는 과목을 골라 주말 등을 활용해 집중 공략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긍정적인 마인드 컨트롤

수능 시험일이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수험생 누구나 불안감을 갖는다. 하지만 아직 치르지도 않은 수능 결과를 예상하며 미리 겁먹을 필요는 없다. 긍정적인 생각은 자신감과 심리적 여유를 불러오고, 수능에 대한 스트레스와 실수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평가팀장은 “시간이 촉박하다는 생각에 마음은 급해지고 공부는 손에 잡히지 않는 학생이 많지만 이런 불안함, 초조함은 남은 열흘의 시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런 매일수능 긍정적인 생각으로 자신만의 마인드 컨트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올해 수능은 15일 치러지고, 전날인 14일 예비 소집을 하므로 자신의 수능시험장 위치와 집에서 소요되는 시간 등을 파악해 시험 당일 시험장을 잘 못 가거나 지각하는 등의 만일의 불상사를 방지해야 한다. 또 스마트폰이나 전자시계 등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도 확인해 시험장에 가져가지 않도록 미리 시험장 반입 가능 물품을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무용예술학과 실기 앞두고...

상명대학교(총장 백웅기)는 지난 3일 서울캠퍼스 율해관에서 2019학년도 수시모집 무용예술학과(현대무용, 발레) 실기고사를 실시했다. 실기고사에 응시한 수험생이 고사장 입실 전 연습에 열중하고 있다. /상명대학교

“집 밖은 위험해”... 2030 ‘홈족’ 증가

잡코리아-알바몬 1625명 설문

성인 10명 중 6명 “나는 홈족”
홈족 생활이유 “휴식·소비 절약”

성인남녀 10명 중 6명 꼴로 영화 감상이나 운동 등 여가활동을 집에서 즐기는 이른바 ‘홈족’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스스로를 홈족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특히 20~30대 젊은 층에서 높았다.

4일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성인남녀 162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스스로를 홈족이라 생각하시나요’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58.6%가 그렇다고 답했다.

연령대별로 홈족 비율은 △20대(68.5%)와 △30대(62.0%)가 각각 60% 이상으로 과반수를 훌쩍 넘어 반면, △40대 이상 그룹의 경우 29.6%만이 스스로를 홈족이라 답해 큰 차이를 보였다. 잡코리아 관계자는 “SNS를 통해 홈 트레이닝, 홈뷰티 등을 익숙하게 접해온 20~30세대에게 홈족 문화는 비교적 익숙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홈족에 대한 인식 역시 연령대 별로 달랐다. △20대와 △30대는 ‘홈족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답변이 각각 82.4%, 79.7%로 압도적으로 높았던 반면, △40대 이상 성인남녀의 경우 ‘홈족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답변이 50.7%의 응답

률로 가장 많아 인식 차이를 보였다.

홈족 생활을 하는 이유(복수응답) 1위로는 ‘집에서 쉬는 게 진정한 휴식 같아서’(61.1%)가 꼽혔다. 이어 ‘밖에 나가면 돈을 써야 해서(지출을 줄이려고)(49.4%)’와 ‘굳이 나가지 않아도 집에서 할 게 많아서(47.3%)’도 나란히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홈족들이 주로 하는 활동(복수응답)으로는 ‘영화/드라마 정주행(44.8%)’, ‘TV시청(41.9%)’, ‘휴식(29.3%)’, ‘커피 만들기/마시기(홈 카페)(25.7%)’, ‘인터넷 쇼핑(22.0%)’, ‘독서(19.5%)’ 등으로 다양했다.

한편 설문 참여자 중 75.4%는 향후 홈족이 늘 것으로 예측했다. /한용수 기자

조희연 “6·10만세운동, 국가기념일로...”

(서울시교육감)

학생독립운동기념일 기념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의 학생들이 주도한 대표적인 항일 독립운동인 6·10만세운동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지 못한 데 대해 유감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89주년 학생독립운동 기념일(학생의 날) 기념사’에서 “1929년 11월 3일 광주에서 일어난 항일 학생운동을 기념하는 학생의 날은 ‘3·1운동’, ‘6·10만세운동’과 더불어 3대 독립운동으로 평가받아 왔다”며 “그런데 안타깝고 놀랍게도 서울의 학생들이 주도한 대표적인 항일 독립운동인 6·10만세운동은 아직도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어 “학생들이 주도한 독립운동은 더 적극적으로 기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학생들이 이 사회의 동등한 시민으로 대우받고 활동하며,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고 조직할 권리의 주체라는 것을 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서울시교육청

확인하는 날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런 의미에서 6·10만세운동도 학생의 날처럼 그 위상이 재정립될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학생의 날을 현재에 맞게 기념하는 방식은 바로 학생자치를 확장하는 것이라면서, 서울시교육청의 이러한 노력의 사례로 예산 편성 과정에 학생들이 참여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학생참여예산제’와 사회 문제를 주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사회현안 논쟁수업’을 꼽았다. /한용수 기자

교육부 학부모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 확대

프로그램·온라인교육 자료 등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해 교육부가 학부모 대상 예방교육을 확대한다. 학교폭력을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모와 자녀의 안정적인 관계 형성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학부모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 확대를 위해 민간 기관인 HD행복연구소, 여성가족부와 협업하는 학부모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 방안에 따라, 교육부는 우선 HD행복연구소 감정코칭강사 140여명과 여성가족부의 부모교육 전문강사 130여명에게 학부모용 ‘어울림 프로그램’ 연수를 실시, 학부모 교육에 활용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어울림 프로그램은 ‘공감’, ‘의사소통’, ‘감정조절’, ‘자기존중감’, ‘학교폭력

인식·대처’, ‘갈등해결’ 등 학교폭력 예방역량 강화를 위한 24종의 학부모용 프로그램으로, 초등학교 저학년,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등 4개 학교급별로 개발됐다.

교육부는 어울림 프로그램과 전문강사 명단을 단위 학교 등에 안내하고 교육부 ‘도란도란 학교폭력예방’ 누리집(www.edunet.net/nedu/doran)과 여성가족부 ‘좋은 부모 행복한 아이’ 누리집(mogep.go.kr)에 탑재하고, 여성가족부 산하 건강가정 지원센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등 총 261개소에서 학부모 교육을 할 때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또 올해 12월 개발되는 ‘공감을 통한 관계개선’ 등 총 5차시로 구성된 학부모 온라인 교육자료도 누리집에 올려 학부모들이 언제, 어디서나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한용수 기자

건국대 수능 후 17일 논술 실시 논술특강·가이드북 공개

건국대학교는 수험생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2019학년도 수시모집 KU논술우수자전형 논술고사를 수능시험일(11월 15일) 이후인 17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인문계 시험은 오전 10시부터, 자연계는 오후 3시부터 100분간 진행된다.

KU논술우수자전형은 논술고사 60%와 학생부(교과) 40%를 일괄 합산해 465명을 선발한다. 수능최저학력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건국대는 모의논술 출제의도, 문제해설, 예시답안 등이 담긴 ‘KU논술가이드북’을 발간해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유튜브와 네이버TV 등을 통해 모의 논술고사를 해설하는 논술특강 동영상도 공개했다.

/한용수 기자

www.pdna.co.kr

눈부신 어린 피부 “비밀은 DNA”



- 연어케어의 원료성분 Sodium DNA 함유
- 아데노신 함유

바다 송어의 DNA*에너지 - 피디엔에이 크림

- 피부의 새로운 에너지, 바다 송어 추출 *sodium DNA 함유**
 메마른 피부는 안티에이징 적신호. 연어과 어류인 바다 송어에서 추출한 sodium DNA 1000ppm, 아데노신 등 7가지 피부보호 성분이 유수분밸런스에 도움을 주고 피부 자생력을 강화하여,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로 가꿔줍니다.
 * sodium DNA, 아데노신, 병풀/어성초/치아씨/백년초열매 추출물, 올리브 오일 등
- 겨울에도 눈부신 봄 피부. 경험해보세요, 피디엔에이 크림.**
 찬바람이 불어도 부드럽고 생기있게 빛나는 매끄러운 피부. 물광피부와 동안 관리 효과를 동시에 경험해 보세요. 피디엔에이 크림은 풍부한 영양감. 짙 찬 수분감으로 주름개선을 도와 피부에 새로운 시간을 선사합니다.

[주요 언론에 소개된 피디엔에이 크림]



▶ KOTRA BUYERS GUIDE Pioneer 소개 (2018.8)
 "Skin regenerating cosmetics"
 국내 주요 일간지에 동안크림으로 보도, 소개된 피디엔에이 크림.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www.pdna.co.kr에서 확인하세요.





양심적 병역거부



김민 소장의
당당평평

대법원은 지난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모(34) 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열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원심 재판부인 창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관 13명 중 9명이 무죄에 손을 들어줬다. 이에 여론이 들끓고 있다. 앞으로 개인의 성향이나 종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이들이 향후 어떤 방법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할지, 현역병들과의 형평성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 등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뉴스에 등장하는 이슈 중 하나로 가볍게 간과할 일이 아니라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세상은 어느 누구도 결코 혼자서 살아갈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게 세상이다. 그러면서 크고 작은 공동체와 조직이 형성된다. 그러다 보니 공공의 안정성과 유지를 위해 법과 제도가 생긴 것이다. 사람의 생각과 판단은 제각각 다르기에 개인보다는 공공의 안정화와 공동체의 건전한 유지를 위해 그 구성원들에게 의무와 책임이 주어지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후천에 분단 중인 국가이다. 북한의 행태는 절대 긴장감을 늦출 수 없게 만든다. 우리나라의 4대 의

무 중 하나가 국방의 의무인 것도 바로 그 이유이다. 세상에 군대 가고 싶어서 가는 청년이 얼마나 되겠나. 종된 삶된 국가가 제시하는 의무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종교와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과연 합당하고 객관적이며 형평성에 맞는 것인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법안이 이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에는 확정될 예정이었는데 아직 대안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법원이 그런 판결을 내렸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전에 군복무를 마친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은 양심적 판단이 없고 종교와 신념이 없어서 군복무를 마친 것인가. 지금 대한민국은 대체 어디로 향하고 있는 것인지 답답한 마음을 어떻게 형용할 수가 없다.

여론에 의해 언론재판이 행해지는 것이 정상이고, 명백히 삼권분립이 갖추어진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청원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방식으로 사법권까지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에게 일러바치면 해결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과거 조선 태종 때 신문고의 부활인가. 당시의 신문고도 민의상달(民意上達)의 대표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신문고를 올려 상소하는 데에는 제한이 있어서 이서(吏胥)·복레(僕隸)가 그의 상관이나 주인을 고발한다거나, 품관(品官)·향리(鄕吏)·백성 등이 관찰사나 수령을 고발하는 경우, 또는 타인을 매수·사주(使喚)하여 고발하게 하

는 자는 벌을 주었으며, 오직 종사(宗社)에 관계된 억울한 사정이나 목숨에 관계되는 범죄·누명 및 자기에게 관계된 억울함을 고발하는 자에 한해 상소 내용을 접수 해결하여 주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한조건에도 불구하고, 신문고에 의한 사건해결의 신속성을 얻기 위하여 사소한 사건에도 신문고를 이용하는 무질서한 현상을 초래하였는데, 이는 조선 초기에 관리들의 권력 남용으로 인한 일반 백성들의 고통을 단적으로 표시하는 것이었다.

작금의 대한민국에 더 큰 국가적·제도적 혼란과 잡음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법과 원칙이 견고하기를 바란다. 정권과 여당의 인기몰이와 선심성 행태가 국가의 기간을 흔들지 않기를 바란다. 법과 제도는 구체적이고 명확하다. 그런데 구체적이고 명확하지 않는 것들이 그 구체성과 명확성을 위협해서야 그것을 어떻게 국가라 할 수 있으며 민주주의라 할 수 있겠는가. 국가는 특정 진영과 특정 정당의 것이 아니다. 우리 국민의 것이며 그 안에 역사와 고유성이 보존되어야 하며 정체성이 명확해야만 한다. 대내외적으로 안 그래도 복잡한 대한민국을 더 구태여 더 혼란스럽게 하는 정당이나 집단이나 개인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반역이다. 지켜온 것은 앞으로도 지켜지는 나라, 국민에게 한 가지도 명확하지 못하면서 이런저런 아무말대잔치를 하지 않는 정부, 기본이 지켜지는 대한민국이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태일리폴리정치연구소장



한화생명, 장기기증 유가족·이식인 캠프 개최

한화생명은 지난 3일부터 이틀간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와 한화리조트 설악 소라노에서 '생명의 물결 1박 2일 캠프'를 개최했다. 이번 캠프는 장기기증 유가족과 장기이식을 받은 이식인 90명이 모여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캠프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화생명



현대상선, 쪽방촌 찾아 연탄나눔 봉사

현대상선이 소외계층 동절기 난방연료 지원을 위한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현대상선은 지난 2일 서대문구 홍제2동 쪽방촌 일대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2200장의 연탄을 전달하고 고장 난 연탄보일러를 세트로 교체하는 등 소외계층의 겨울나기를 지원했다. /현대상선



대한항공, 캐나다 노선 취항 30주년 기념행사

대한항공이 지난 2일 캐나다 밴쿠버 공항과 토론토 공항에서 각각 서울~캐나다 노선 개설 30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고 4일 밝혔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밴쿠버, 토론토 공항에서는 30년 동안 대한항공을 이용해준 승객들에게 감사하는 의미로 각 공항에서 30번째로 탑승하는 승객에게 인천 왕복 일반석 항공권을 경품으로 증정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대한항공 밴쿠버 임영돈 지점장(오른쪽 네번째), 김창우 공항지점장(왼쪽 첫번째)과 객실승무원, 밴쿠버 공항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대한항공

한국지엠, 저소득층 위해 릴레이 연탄나눔 봉사

인천 연탄은행 등에 2.2만장 기증
이달 4회 저소득 가정에 배달 예정

한국지엠이 지역 저소득층의 겨울철 난방 지원을 지원하는 사랑의 손길을 나누고 있다.

한국지엠은 사회복지법인 한국지엠마음재단과 함께 2만2000장의 연탄을 인천 연탄은행과 사단법인 보령선한이웃에 기증했다고 4일 밝혔다.

한국지엠의 임직원으로 구성된 한국지엠 사회봉사단은 11월 한달간 4회에 걸쳐 이 연탄을 인천과 보령의 저소득 가정에 배달할 예정이다.

지난 3일 인천 부평에서 처음으로 진행된 연탄 배달 자원봉사에는 카허 카젠 한국지엠 사장과 부평지역 임직원 및 가족,



한국지엠 카허 카젠(Kaher Kazem) 사장이 임직원과 함께 구슬땀을 흘리며, 연탄 배달 봉사에 참여하고 있다. /한국지엠

시민 봉사자 등 100여명이 참여했다.

에게 가구당 200장씩 연탄을 배달했다.

이날 봉사자들은 저소득 가정 50세대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기아차, 'THE K9' 멤버십 고객 뮤지컬공연 초청

THE K9 뮤지컬 인비테이션 이벤트

기아자동차가 오는 27일 서울 한남동 블루스퀘어 인터파크홀에서 열리는 뮤지컬 '엘리자벳' 공연에 THE K9 멤버십 고객을 초청한다.

4일 기아차에 따르면 이번 'THE K9 뮤지컬 인비테이션' 이벤트는 THE K9 고객들이 품격 있는 문화 활동을 통해 보다 프리미엄한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마련한 행사다. 기아차는 총 600쌍(1200명)의 고객을 초청할 예정이다.

뮤지컬 '엘리자벳'은 오스트리아 황후



엘리자벳의 삶을 그리는 작품이다. 실존 인물과 판타지적 요소의 환상적인 결합을 통해 관객의 예상을 뛰어넘는 전개를

이어가는 것이 특징이다. 1992년 비엔나 초연 이후 12개 국가에서 공연되며 누적 관객수 1100만을 돌파한 세계적인 흥행 대작 뮤지컬이다.

이번 공연에는 옥주현(엘리자벳), 박형식(죽음), 강홍석(루케니), 손준호(요제프 황제) 등 국내 최고 수준의 뮤지컬 배우들이 출연해 명연기를 펼친다.

한편 THE K9 멤버십 고객 외에 응모 기간 중 '살롱 드 K9'을 방문한 THE K9 관심고객 20쌍(40명)에게도 추첨을 통해 THE K9 멤버십 초청행사를 경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양성운 기자

국제펜한국본부 '세계한글작가대회' 개최

문체부 등 후원 6~9일 경주 일대서
세계한글문학-민족혼의 요람 주제

국제펜한국본부(손해일 이사장)는 제4회 세계한글작가대회를 6~9일 문화체육관광부, 경상북도, 경주시의 후원으로 경주해백컨벤션센터, 경주예술의전당과 경주시 일대에서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제4회 세계한글작가대회는 신달자 조직위원장(시인), 김홍신 집행위원장(소설가), 신경림 조직위원(시인), 이종걸 조직위원(국회의원), 권재일 조직위원(한글학회 회장), 김종규 조직위원(삼성출판박물

관 관장), 한국문학 주요 5단체 단체장과 사무총장 등을 총 망라한 51인으로 집행부로 구성됐다.

이번 대회는 '세계한글문학-민족혼의 요람(3·1운동 100주년 기념)'을 대주제로 ▲한글문학을 바라보는 세계의 시각 ▲세계한글문학의 민족정체성 ▲한민족문학의 어제, 오늘, 내일 ▲한글문학, 세계화의 길 등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이번 대회는 10개국 51명이 발표와 토론자로 참여하고, 국내외 문인과 경주시민과 학생 등 5000여명이 참가한다.

/연합뉴스

인사

◆원자력안전위원회 ◇과장급 전보 △고리원전 지역사무소장 김은환 △운영지원과장 김상현 △원자력심사과장 임시우

◆한국사사전략연구소 △한국사사전략연구소 소장 겸 이코노호텔링 발행인 고윤희

부음

▲손인씨 별세, 남효철(주)에드일렉코 회장, 남기자·남정자·남숙희·남호숙씨(모친상), 박춘권 전 더케이서울호텔 본부장, 김재욱 한양대학교 명예교수, 김명수 전 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 박진

수(주)큐시스 대표(빙모상), 남기찬(주)에드일렉코 본부장(조모상), 박범준 파이낸셜뉴스 차장(외조모상) = 4일 오전 4시 20분, 서울 한양대학교 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6일 오전 8시, 02-2290-9442

▲정옥조씨 별세, 최병규(서울예술단 지도위원)씨 장모상 = 2일 오후 10시 51분, 분당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7호실, 발인 5일 오전 10시, 031-787-1500

▲박점순씨 별세, 이성기(전 고용노동부차관)씨 모친상 = 2일 오후 10시,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1호, 발인 5일 오전 6시, 장지 경남 의령군 용덕면 선영, 02-2227-7500

쇼핑 시즌이 왔다... 해외직구족 '손가락이 바빠졌다'

11월 광군제·23일 블랙프라이데이
가전제품 구매 기회... 판매량 폭증
제품 AS·호환여부 등 꼼꼼히 따져야

'광군제' '블랙프라이데이' '사이버 먼데이' 등 11월 최대 쇼핑 시즌 구간을 앞두고, 해외직구족들의 관심이 뜨겁다.

4일 통계청이 발표한 온라인쇼핑 동향을 보면 올해 3분기 직구 액수는 1년 전보다 35.9% 증가한 6956억원을 기록했다. 증가율과 액수 모두 2014년 통계 작성을 시작 이후 가장 크다. 국가별 직구 액수를 보면 미국이 367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유럽연합(EU) 1400억원, 중국 1228억원, 일본 461억원 순이다.

◆가전제품은 해외직구가 저렴

온라인 이커머스 채널 위메프는 올해 10월 해외직구 상품 거래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1배 증가했다고 밝히며 직구 채널에 집중하고 있다.

위메프 해외직구는 관부가세를 모두 상품 가격에 포함시켜 명시된 가격 외에 고객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없앴다.

배송비 부담을 줄인 것도 특징이다. 위메프는 상당수 해외직구 상품을 무료로

2018 연말 세일 캘린더

- 11월 11일 전 세계인의 온라인 쇼핑 축제 "광군제/싱글즈 데이/베터헌스데이"
- 11월 23일 연중 최대의 쇼핑축제 "블랙프라이데이"
- 11월 26일 미국 추수감사절 다음주 월요일 "사이버 먼데이"
- 12월 26일 호주/캐나다/영국 쇼핑축제 "박스데이"

배송하고 있다. 위메프 해외직구 상품 가격에 포함된 국제 배송비 역시 개인이 직접 해외직구 시 부담하는 금액보다 상품에 따라 30% 이상 저렴하다.

적극적으로 해외 판매자들과 API(Application Program Interface)를 연동해 판매 상품을 늘린 것도 이용자의 호응을 받았다. 현재 위메프 해외직구 상품 수는 지난 7월 대비 7배 증가했다. 위메프는

연말까지 상품 수 확대 속도를 늦추지 않을 계획이다.

위메프에서 많은 소비자의 선택을 받은 상품은 ▲LG·삼성전자 UHD TV ▲애플 에어팟 ▲다이슨 무선 청소기 ▲샤오미 포코폰 등이다. 특히 애플 아이폰XS는 지난 9월 1차 판매국 출시와 동시에 판매를 시작해 관심을 모았다.

이에 힘입어 10월 디지털 가전 거래액은 7월 대비 8.9배 급증했다. 7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의 영향이다. 해외직구 성공경험이 쌓이면서 OLED TV 등 가격대가 높은 제품을 소비자도 크게 늘고 있다.

실제로 4일 한국소비자원이 주요 해외직구 생활가전 5개 품목 13개 제품의 국내·외 판매가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7개 제품은 해외직구가, 6개 제품은 국내 구매가 저렴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대상은 주요 해외직구 생활가전 5개 품목(전기레인지, 커피머신, 블렌더(스탠드믹서), 진공청소기, 공기청정기) 13개 제품이다.

◆본격적인 11월 쇼핑축제... 언제 될 사야 하지?

11월, 전 세계 가장 큰 쇼핑 축제를 맞

아 해외직구족들의 소비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11월 11일 중국 최대 온라인 쇼핑 축제 '광군제'를 시작으로 23일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26일 '사이버 먼데이'가 이어진다. 12월 26일에는 연말 재고 소진을 위한 가격적 할인이 적용되는 '박스데이'가 진행된다.

지난해 광군제 기간 일일 판매액은 약 28조원에 달했다. 올해 광군제 구간에는 유럽, 미국, 한국 등 여러 국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세일이 진행돼 지난해보다 더 많은 구매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광군제 기간 가장 많은 매출을 기록한 상위 5개 쇼핑몰은 ▲매치스 패션닷컴 ▲이베이 ▲마이테레사 ▲알리익스프레스 ▲옥시다. 광군제 세일이 중국뿐 아니라 미국과 유럽 지역까지 확산됐다.

광군제는 11월 말 진행되는 블랙프라이데이에 앞서 겨울 의류를 장만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다. 블랙프라이데이 세일 기간에 풀절되어 구하기 힘든 인기 사이즈의 패딩과 스웨터 재고를 합리적 가격으로 구매 가능하다.

해외직구 대중화에 불을 지핀 블랙프라이데이는 11월 넷째 주 금요일에 진행

된다.

블랙프라이데이 기간에는 명품을 포함해 전 품목 세일이 진행되고 특히 대형 유통 브랜드가 강세다. 지난해 블랙프라이데이 매출 상위 쇼핑몰은 폴로 랄프로렌이 압도적 1위를 차지했고 이베이, 다이슨, 마이테레사, 파페치가 뒤를 이었다. 품목에서는 가전 제품이 큰 인기를 얻었다. 올해 블랙프라이데이에 주목할만한 쇼핑몰은 이베이, 다이슨, 폴로 랄프로렌 등 미국 가전 및 패션 온라인 쇼핑몰이 있다. 첫 구매 고객에게 한국 직배송을 제공하는 매치스패션닷컴, 루이자비아로마 등 명품 패션 쇼핑몰도 추천한다.

미국 추수감사절 연휴(11월 21일부터 24일) 이후 첫 번째 월요일(26일)에 진행되는 사이버 먼데이에는 미국 온라인 쇼핑몰이 대대적인 할인 행사에 돌입해 베드베스앤비몽드, 조스뉴발란스, 클럽모나코 등 미국 온라인 브랜드 쇼핑몰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다만, 해외 직구한 제품일 경우 국내 AS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생활가전 직구에 나설 때는 가격은 물론, 국내 전기 사양과의 호환여부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원신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롯데아울렛 '골든워크' 맞아 차은우 팬사인회 열여 롯데아울렛은 4일, 아울렛 상설 할인가에서 최대 20% 추가 할인을 제공하는 '골든워크' 행사를 진행했다. 이러한 골든워크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앞서 3일 프리미엄 아울렛 파주점에서는 브랜드 '폴햄'의 공식 모델인 차은우의 팬사인회가 열렸다. 남성 아이돌 그룹 '아스트로'의 멤버인 차은우는 대중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롯데쇼핑

'핑크리본 캠페인' 주제로 열린 포토피크닉

2018 롯데월드타워 포토피크닉
11개팀 참여·123작품 시상

롯데월드타워는 지난 3일 '2018 롯데월드타워 포토피크닉 시상식'을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포토피크닉에는 대상인 '롯데월드타워상'을 받은 팀을 포함해 총 11개 팀이 참석했고, 총 123작품을 시상했다.

행사는 지난 10월 13일 롯데월드타워 월드컵 잔디광장에 마련된 핑크리본 캠페인 테마존에서 열렸다. 올해는 가족, 연인, 친구 등 1900팀 약 5700명이 참가해 도심 속에서 가을 나들이를 즐겼다. 1등 상으로는 대형 비눗방울에 비친 어린이가 환하게 웃고 있는 순간을 찍은 강태수씨의 '비눗방울속의 미소'가 선정됐다.

시민들에게 유망암 예방 및 조기검진 등 행동실천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핑크리본 캠페인'을 주제로 열린 2018 롯데



지난 3일 월드컵 잔디광장에서 2018 롯데월드타워 포토피크닉 시상식이 열렸다. /롯데월드타워

월드타워 포토피크닉은 총상금은 약 1000만원 규모이고, 대상 상금은 롯데월드타워 123층을 상징하는 123만원이다. 촬영 기술이나 화려함보다는 롯데월드타워를 배경으로 가을을 만끽하는 가족의 모습이 담긴 작품들이 선정됐다.

2등상인 '후지인스타크스 LOVE상'은 김경민씨의 '롯데월드타워와 핑크모녀'와 이정숙씨의 '환호'가 뽑혔다. 모든 수상작들은 롯데월드몰 공식 웹사이트의 '2018 롯데월드타워 포토피크닉 수상작 갤러리'에 전시된다.

한편 2018 포토피크닉에 참가한 1900팀의 참가비 전액은 유망암 근절을 위한 지원금으로 사단법인 대한암협회에 전액 기부된다. /박인용 기자 parku7854@

신세계면세점, 中 최대 광고제 'ROI' 입상

20여개 국 3439개 작품 참여

신세계면세점이 중국 최대 규모의 광고제 중 하나인 'ROI광고제(ROI Festival)'에서 입상하며, 중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브랜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올해로 11회를 맞이한 ROI(Return On Investment) 광고제는 중국 내 열리는 가장 국제적인 광고 행사로, 캠페인의 투자 대비 효과(ROI) 및 크리에이티브 우수성 등을 주요 평가 기준으로 삼는다. 약 20여개 국에서 선보인 총 3439개 작품 중 입상한 국내 브랜드는 신세계면세점과 삼성전자가 유일하다.

신세계면세점은 위챗(웨이신) 내 공식 계정을 통해, 명동점을 가상 공간으로 구현해, 쇼핑 아이템 찾기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브랜드의 매력을 친근한 캐릭터와 게임 방식으로 풀어낸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신세계면세점 광고제출품작. /신세계면세점

특히 중국 내 80~90년대 생에게 익숙한 빠링호우와 지우링호우 캐릭터를 게임에 활용해 약 2만 3000여 명이 참여하는 등 중국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을 끌어들였다. 평가를 받았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이번 광고제 수상은 글로벌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이뤄낸 쾌거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향후에도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 및 콘텐츠를 확대해 나가며 독창적인 브랜드 가치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백화점은 벌써 '크리스마스' 시즌 맞이

백화점들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벌써부터 크리스마스 조형물을 설치, 화려한 조명 점등을 통해 연말 분위기를 돋우고 있다.

갤러리아명품관은 매년 새로운 콘셉트의 크리스마스 디스플레이를 선보이며 크리스마스 시즌에 꼭 방문해야 할 명소로 자리잡았다.

올해는 이스트 외관을 거대한 선물 박스로 탈바꿈하며 '2018 크리스마스' 시작을 알린다. 갤러리아는 올해 크리스마스 테마를 '더 크리스마스 아틀리에'로 잡고, 명품 브랜드 샤넬과 협업해 조형물을 설치했다.

갤러리아명품관 외관은 샤넬을 상징하는 화이트 도트가 새겨진 레드 컬러 리본이 감싸 안고 있으며, 건물 위로는 대형 선물상자의 뚜껑이 열리며 샤넬을 상징

하는 기프트 박스들이 하늘에서 쏟아져듯 연출되어 황홀한 광경을 선사한다.

그리고 갤러리아명품관 이스트 광장에는 샤넬의 대표적인 향수 '샤넬 N° 5 레드 에디션'을 모티브로 한 9m크기의 대형 향수병 오브제가 새하얀 트리 6개로 이뤄진 숲에서 선명한 레드 빛을 내며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갤러리아명품관 내부 역시 크리스마스 시즌에 맞는 디스플레이로 고객을 맞이한다. 갤러리아백화점의 쇼핑백을 디자인한 세계적인 일러스트레이터 '주디스 반 덴 후크(Judith Van den Hoek)'와의 협업으로 '크리스마스 패션 아틀리에(Christmas Fashion Atelier)'라는 콘셉트로 내부 디스플레이를 연출했다.

매장 곳곳에는 '주디스 반 덴 후크'가



크리스마스 트리. /한화갤러리아

그린 크리스마스 파티용 드로잉과 쿠튀르 의상, 그리고 리본과 오너먼트 등이 디스플레이되어 고객이 마치 거대한 패션 작업장(아틀리에)를 방문한 느낌을 전달한다. /신원선 기자

상위 제약사 실적 부진 이유 분석해봤더니...

R&D 등 미래투자로 수익 악화

유한양행·GC녹십자·종근당 등 R&D 비용 증가로 영업이익 하락 4·4분기 실적 전망도 ‘먹구름’ 실적보단 임상결과에 주목해야

상위 제약사들의 3·4분기 크게 부진한 실적을 공개했다. 외형은 대체로 성장했지만, 수익성은 전년 대비 크게 하락했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경쟁 속에 연구개발(R&D) 비용의 증가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미래 가치를 위해 현재 수익성을 희생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4월 제약업계에 따르면 국내 상위 제약사들의 3·4분기 수익성은 전년 대비 크게 낮아졌다.

업계 1위인 유한양행은 3·4분기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전년 동기 거의 반토막이 났다. 유한양행은 지난 7~9월 3756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하며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판매고를 올렸다. 다만, 영업이익이 44억원으로 전년 대비 77% 급감했고, 순이익은 38억원에 그치며 1년 만에 75% 줄어 들었다. 추석연휴에 따른 영업일수 제한으로 외형성장 부진한데다 연구개발비와 판매관리비용이 증가하며

수익성은 더욱 낮아졌다는 평가다. 지난 3·4분기 유한양행의 R&D 비용은 전년 대비 23% 늘어났다.

같은 기간, GC녹십자도 부진했다. GC녹십자는 지난 3·4분기 전년 대비 소폭(1.1%) 감소한 3523억원의 매출을 기록했지만 영업이익(280억원)과 순이익(158억원)은 모두 전년 대비 33%, 44% 감소했다. 수익성이 높은 품목인 대상포진 백신 조스타바스의 경쟁 심화와 자궁경부암 백신 가다실의 공급 지연 영향으로 내수부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7%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R&D 비용은 315억원으로 전년 대비 12% 가량 늘어나며 수익성을 끌어내렸다.

종근당은 지난 3·4분기 2349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전년대비 7%의 외형성장을 나타냈다. 반면, 영업이익은 210억원, 당기순이익은 135억원에 그치며 전년 대비 11%, 18% 가량 각각 줄어 들었다.

한미약품은 연결회계 기준으로 3·4분기 전년대비 3.4% 늘어난 매출액 2353억원을 기록했다. 다만,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215억원으로 전년대비 23% 가량 줄었고, 순이익은 94억원으로 59% 감소했다. 회사측은 “지난해 3·4분기 발생한 일회성 수익 요인(임상 진행에 따라 파트

너사가 일시적으로 지급한 마일스톤)으로, 이번 분기 영업이익 및 순이익은 전년에 비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3·4분기 연구개발(R&D)에는 409억원을 투자했다. 매출액의 17.4%를 차지하는 규모다.

동아에스티(ST) 역시 지난 3·4분기 영업이익이 82억원으로 전년 대비 48% 줄어 들었다. 당기순이익 역시 전년 대비 45% 줄어든 61억원으로 부진했다. 같은 기간, 전년 대비 7.1% 늘어난 191억원을 R&D 비용으로 지출하며 수익성이 줄어 들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국내 상위 제약사들의 4·4분기 실적 전망도 밝지 않다. 외형 증가가 크지 않은 가운데 R&D와 인건비 등 투자비용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하나금융투자 선임정 연구원은 “한미약품, 유한양행, 종근당, 녹십자 등 상위사의 경우 4·4분기 실적도 크게 기대할 것이 없다”며 “다만, R&D 비용 증가는 미래 가치에 투자한다는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볼 수 없으며, 단순히 실적보다는 내년부터 나타날 임상결과 발표나 승인 결과 등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동아제약 ‘국토대장정’

대학생 국토대장정, 평양땅 밟을까

동아제약 남북 민화협 연대서 논의

남과 북의 대학생들이 손을 맞잡고 남북 국토를 종단하는 날이 머지않아 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동아제약은 3일부터 1박 2일간 금강산에서 열리는 남북 민화협 연대 및 상봉대회에서 민간 교류의 하나로 대학생 국토대장정이 논의 주제로 포함되었다고 밝혔다.

남측 민화협(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에 따르면 이번 공동 행사는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 공동 선언 이행을 위한 것으로 노동, 농민, 청년, 학생, 여성, 종교, 문화 등 다양한 부문에서 협의가 진행된다. 또한 10년 만에 열리는 공동 행사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대표 단체 관계자들을 포함해 약 300명의 방북단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민간 차원의 사회·문화 교류를 넓히는 내용의 협약이 체결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대학생 국토대장정 논의는 청년 부문에서 남북 대학생 교류 증진의 하나

로 그동안 남한 영토만 걸어왔던 대학생 국토대장정을 남북 대학생이 함께 한반도를 걷는 진정한 의미의 국토대장정을 만들어보자는 취지다. 이를 위해 동아제약 최호진 대표도 북측과 협의하기 위해 방북단에 포함됐다.

동아제약 최호진 대표는 “대학생 국토대장정을 20년이 넘게 해오면서 언젠가는 한반도 전체를 걷는 진정한 한반도 대장정을 꿈꾸어 왔고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희망에 누구보다 감회가 새롭다”며, “국토대장정은 우리는 하나라는 구호와 함께 상생의 가치를 배우는 활동으로 남북의 청년들이 함께 걸으며 서로를 이해하고 알아가는 과정이 화합과 통일의 또 하나의 마중물이 될 것을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올해로 21주년을 맞이한 동아제약 대학생 국토대장정은 26만 6662명이 지원했으며, 3001명이 참가했다. 참가대원들이 그동안 걸었던 누적 거리는 1만 2031km에 달하며 서울과 부산(약 400km)을 15회 이상 왕복할 수 있는 거리다.

/이세경 기자

임상3상 끝난 의약품들, 생산실적은 ‘0’

3년간 총 23개 의약품 시판허가 ‘허가 전 수요·공급계획 정비’

제약회사가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임상 3상을 조건으로 급하게 개발 의약품의 시판허가를 받아놓고 정작 제품 생산은 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나타났다.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에 제출한 ‘최근 3년간

(2015~2017년) 3상 임상 조건부 허가 의약품 및 생산현황’ 자료를 보면, 이 기간 총 23개 의약품이 3상 조건부 시판허가를 받았다.

3상 조건부 허가제도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이거나 현존 치료법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항암제, 희귀의약품 등) 환자에게 신속한 치료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시판 후 3상 확증 임상시험 자료 제출을 조건으로 식약처가 시판허가를 해주는 제도다.

연도별로는 2015년 12개 품목, 2016년 8개 품목, 2017년 3개 품목이 3상 조건부 시판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렇게 위급을 다루는 환자를 위해 급하게 허가받은 3상 조건부 허가 의약품 23개 중에서 절반에 가까운 11개(47.8%)는 생산실적이 전혀 없는 것

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코텔릭정(20mg, 트랜스라나과립(125mg, 250mg, 1000mg), 로스미르, 리아백스주, 입랜스캡슐(75mg, 125mg), 자이카디아캡슐(150mg) 등이었다.

특히 자이텔릭정(100mg, 150mg)은 생산실적이 전무한 데다 제품화를 지진 취소해버린 것으로 나타났다.

장정숙 의원은 “환자 치료 때문에 신속 허가로 일종의 특혜를 주는 것인데, 제약회사가 허가받고도 치료제를 공급하지 않는다면 ‘조건부 허가제’의 의미는 퇴색된다”며 “식약처는 허가 전 수요조사, 시판 후 공급계획, 사후 조건충족 여부 등을 사전에 철저하게 조사하고, 생산하지 않는 제품은 과감히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세경 기자



홈쇼핑 김장철 맞아 11일까지 ‘김장大戰’

홈쇼핑은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오는 11일까지 절임배추 사전예약 판매를 포함한 ‘김장대전’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매일 300개 한정 특가로 판매하는 팟골 해남 산지직송 절임배추(20kg)는 90일 이상 재배한 속 노란 배추만을 엄선한 제품으로 20kg 판매가 기준 3만6900원에 판매한다. 홈쇼핑 애플을 이용하면 누구나 10%할인, 10%적립을 통해 보다 저렴한 약 2만9000원대에 구입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행사 기간 중 도드람 한돈 보쌈세트(최종혜택가 3만1500원, 2kg)와 해남 골고구마(최종혜택가 3만3000원, 10kg), 고춧가루(최종혜택가 7만6000원, 3kg), 천일염(최종혜택가 1만



3000원, 20kg), 강순의 포기김치(최종혜택가 3만1000원, 6kg), 김장 매트(1만원), 김치냉장고(53만2000원, 153리터) 등도 대폭 할인 판매한다

절임배추 예약은 모바일 홈쇼핑이나 홈쇼핑 애플의 기획전을 통해 예약할 수 있고, 고객이 직접 배송일을 지정할 수도 있다.

/김승호 기자

이화의료원-이화여대 의과대

이화 메디테크 포럼 성료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과 이화여대 의과대학이 31일 이대목동병원 2층 대회의실에서 이화 메디 테크 포럼(Ewha Medi-Tech Forum)을 개최했다.

2회째를 맞이한 이번 포럼은 이화여대 의과대학과 공과대학뿐만 아니라 국가 연구기관과 정부 출연 연구소, 첨단의료 기술 관련 개발 기업 등 국내 다양한 연구자와 전문가들이 모여 강연과 열띤 토론의 장이 됐다.

문병인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의료 현장에 필요한 기술 개발을 통해 의료산업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 밝혔다.

/이세경 기자

유진로봇-KT

기가지니로 제어하는 ‘로봇청소기’ 선택

유진로봇은 KT와 손잡고 자사의 로봇청소기 브랜드 아이클레보에 KT의 인공지능(AI) 인터페이스 기가지니를 탑재한 ‘아이클레보 기가지니 에디션’(사진)을 선보인다고 4일 밝혔다.

‘아이클레보 기가지니 에디션’은 청소 시작과 종료, 충전 뿐만 아니라 주행 상태, 배터리 잔량 확인, 모터 강도 및 청소 패턴의 변경, 문턱 모드, 카펫 모드 설정 등 경쟁 제품군 중 가장 많은 8가지 음성 명령을 지원한다.

아이클레보 기가지니 에디션의 기가지니 인터페이스를 통해 사용자는 집 안에서 간단한 음성명령만으로 별도의 리모콘 조작 없이 청소를 지시할 수 있다.

청소 시작과 중지, 충전 등 기본적인 음성명령뿐 아니라 세분화된 명령도 인식이 가능하

다. 가령 ‘지니아, 로봇청소기 시작’과 같은 짧은 음성명령도 가능하며 ‘로봇청소기 카펫 모드 설정해줘’ 혹은 ‘로봇청소기 약으로 설정해줘’ 등의 세분화된 명령어로 청소 강도 조절이나 옵션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 제품은 또 유진로봇의 프리미엄 로봇청소기 신제품 ‘아이클레보 O5’의 B LDC 모터와 넓은 흡입구를 통한 초강력 파워 흡입력 뿐만 아니라 ‘기가지니 홈 IoT’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실시간 지도 그리기와 청소 명령 및 청소 상태 확인, 청소 예약 등 핵심 기능도 갖추고 있다.

‘아이클레보 기가지니 에디션’은 KT샵과 G마켓, 옥션 등 오픈마켓에서 구매할 수 있다. 가격은 56만9000원이다.

/김승호 기자 bada@



김승철 이대여성암병원 교수

대한부인종양학회 회장 취임

김승철 이대여성암병원 교수(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사진)가 지난 10월 26일 서울아산병원에서 개최된 대한부인종양학회 추계 학술대회에서 대한부인종양학회 신임 회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2년.



김 신임 회장은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이대여성암병원장, 이대목동병원장,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장,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 등을 역임하며 뛰어난 경영능력을 인정받았다.

/이세경 기자

사회공헌 아이디어 현실로... 삼성 투모로우 스토리

금융, 더이상 '북극성' 아니다

핸즈프리 통신장비·안구질환 진단기 대상

삼성전자는 2일 서울 우면동 삼성전자 서울 R&D캡스에서 '삼성 투모로우 스토리'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투모로우 스토리는 먼저 삼성전자가 사회현안 해결책을 찾는 공모전인 '삼성 투모로우 솔루션' 시상식을 진행했다.

1613개팀에서 12개 팀이 최종 선정됐다. '메이데이'팀이 만든 재난구조 현장용 핸드프리 통신장비가 아이디어 부문 대상, '프로젝트 봄'이 만든 실명 예방 안구질환 진단기가 임팩트 부문 대상을 받았다.

이어서 '삼성전자 주니어 소프트웨어 창작대회' 시상으로 이어졌다. 2403개팀 중 23개팀이 수상 영예를 안았다. 패키지 여행 가이드 앱'을 개발한 정동윤 학생이 대상에 선정됐다.



삼성전자는 삼성 투모로우 스토리를 열고 투모로우 솔루션 및 주니어 소프트웨어 창작대회 시상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이번 시상식 이후에도 '삼성 투모로우 솔루션' 수상작들이 사회에 적용될 수 있도록 기술적·인적 지원을 할 예정"이라며 "'삼성전자 주니어 소프트웨어 창작대회'

에서 수상한 학생들에게는 지속적인 소프트웨어 우수 인재로 커갈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삼성드림클래스 단편영화 '별리섬' 3000만뷰 돌파

삼성전자 교육사회공헌 이야기 담아

삼성전자의 교육사회공헌 프로그램인 '삼성드림클래스'를 소재로 제작된 단편영화 '별리섬(My Dream Class)'이 지난달 25일 공개된 지 9일 만에 주요 SNS 채널 합계 3000만 조회수를 돌파했다.

또한 별리섬은 유튜브 채널 기준으로 8일 만에 2000만 조회수를 돌파했다. 삼성전자가 앞서 제작한 단편영화 '두개의 빛: 릴루미노'가 개봉 3주 만에 2000만 조회수를 기록한 것



학생 강사 출신이자 현재 삼성전자에서 근무 중인 강민구씨는 "별리섬에서 드림클래스 대

과 비교하면 빠른 속

도다. 특히 드림클래스의 주축인 중학생과 대학생 강사의 연령층인 10대~20대 시청자 비율이 40% 이상으로 가장 높았다.

삼성드림클래스대 학생 강사 출신이자 현재 삼성전자에서 근무 중인 강민구씨는 "별리섬에서 드림클래스 대

학생 강사로 나오는 기탁(변요한 분)이 느낀 감정은 나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항상 우리 주위의 소외된 아이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는 드림클래스에 고맙다"라고 시청 소감을 전했다.

이번 영화를 제작한 배종 감독은 "실화를 기반으로 한 영화인데다, 영화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진정성을 높게 봐준 것 같다"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한국농아인협회의 요청으로 시각장애인이거나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배리어프리 버전도 제작할 예정이며, 삼성드림클래스에 참여하고 있는 185개 중학교에도 영화를 배포할 예정이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오늘의 운세

11월 5일 (음 9월 28일)

http://www.saju4000.com



48년생 경거망동하지 말고 주의하는 것도. 60년생 목이 마른 자가 우물을 파는 법이니 노력이 필요하다. 72년생 괴로운 시련처럼 보이나 뜻밖의 좋은 일이 있겠다. 84년생 지나간 인연이 찾아오니 마음이 혼란.



49년생 동트기 직전이 가장 어두운 법이니 조금 더 기다리자. 61년생 나를 위해 웃고 나를 위해 살자. 73년생 인생사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니 착하게 살자. 85년생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칠 수 있다.



50년생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으니 항상 노력. 62년생 고기는 씹어야 맛있고 말은 해야 맛있다. 74년생 내가 믿어야 남을 설득시킬 수 있다. 86년생 구정물에 발을 담그면 더러워지지 마련이다.



51년생 가만히 양손을 주머니에 넣고서는 성공할 수 없다. 63년생 두드리면 열릴 문이니 힘껏 두드려라. 75년생 상대의 작은 실수가 나에게 엄청난 기회로 온다. 87년생 가끔은 내용보다 포장이 중요할 때도 있다.



52년생 강을 건넌어도 배는 소중히 간직. 64년생 새로운 인맥으로 유리한 정보를 얻게 되니 이득이 많은 날. 76년생 모래 위에 쓴 명세는 바람 불면 날아가 버린다. 88년생 한번은 참으면 열음이 편하다.



53년생 망설이다가 주어진 기회를 놓칠 수 있으니 과감한 결단이 필요. 65년생 유래, 상패, 통쾌한 하루. 77년생 고집을 세우면 부모도 외면하는 법. 89년생 고목에 아름다운 꽃이 피었으니 행운이 온다.



54년생 원숭이띠, 용띠와의 거래가 순조롭게 이루어진다. 66년생 재물로 인한 갈등이 생겨도 나에게 유리할 날. 78년생 변화가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앞만 보고 전진. 90년생 자존감을 나를 지켜주는 힘.



55년생 구실수를 조심하고 특히 친구와의 대화를 주의. 67년생 망해버린 나라의 옥새를 끌어안고 있는 형국. 79년생 우물이 옆에 있어도 두레박이 없어서 답답하다. 91년생 좋은 것이 좋은 것을 부른다.



56년생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68년생 자식이 아무리 예뻐도 가르칠 건 가르쳐라. 80년생 행복한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 92년생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고 지출을 하게 된다.



57년생 마음은 청춘이나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 69년생 아침부터 손뼉에 땀 난대 기분이 매우 순조로운 하루. 81년생 올바른 처신이 구실수를 예방한다. 93년생 비상상을 활용하여 위기를 모면하여야 한다.



58년생 상대의 마음을 여는 열쇠는 내 손안에 있다. 70년생 결혼은 둘이 했으나 인생은 결국 혼자 가는 길. 82년생 내일은 또 내일의 태양이 뜬다. 94년생 꿈은 도망가지 않으니 언제나 최선을 다하자.



59년생 나의 흥을 함부로 말하지 마라. 71년생 위대한 것을 위해 좋은 것을 포기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83년생 게으른 예술가가 만든 명작은 없다. 95년생 상쾌한 바람이 불어오니 내 마음도 상쾌.



기자 수첩

유재희 (파이낸스&마켓부)

오래전 나침반이 없던 시절, 뱃사람들은 낮에는 해와 바람에, 밤에는 달과 북극성(北極星)에 뱃머리를 의지했다. 칠혹 같은 어둠 속 그들을 이끌어 주었기 때문이다.

서민들에게 금융은 뱃사람들의 북극성과 같다. 삶의 조력자이며 생계의 연료인 셈이다. 하지만 문재인정부의 모토인 포용적 금융이 어찌어찌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은 중금리대출, 중소기업 대출, 동산담보 대출을 촉진하겠다고 큰 소리를 치더니 가계대출 부채를 잡겠다는 명목으로 서민들의 돈을만 죄고 있다.

경제의 혈관 역할을 하는 금융권을 살리기 위해 막대한 국민 혈세를 쏟아 부었음에도 은행들은 수익성 제고에만 집중하고 있다. 당국의 가계부채의 대책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금융권을 전반위적으로 압박해 대출창구에 냉기만 부채질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말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관리지표로 도입하고, 카드·캐피탈사와 저축은행에도 DSR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득이 적고 대출은 많은 차주의 신규

대출을 제한한다. 그동안 소득에 비해 원리금 상환액이 많아도 담보 등이 충분하다면 대출 문턱이 그리 높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 시중은행들은 전체 신규대출 취급액 가운데 DSR 70% 초과 대출의 비중을 15%, DSR 90% 초과 대출의 경우 1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현재 시중은행의 DSR 70% 초과 대출의 비중은 19.6%에 달한다. DSR 70%를 초과하는 대출자는 은행본부의 대출 심사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중채무자 비율이 높은 영세 자영업자들과 서민들의 자본 마련에 대한 우려는 지극한 현실로 돌아오고 있다. 경기가 저성장의 늪에 빠진 상황에서 가계대출 규제까지 강화되자 서민들의 삶은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 한 은행권 관계자는 "소득증빙이 어려운 사회초년생이나 소득신고액이 낮은 자영업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도 상당할 것"이라면서 "대출금리 상승에 차주의 이자부담이 불어날 경우 상환능력이 낮은 취약계층부터 무너져 사채 등 비제도권 금융으로 쫓겨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금융시장이 성장하면서 금융에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해답은 국민 모두가 상생(相生)하는 포용적 금융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포부를 밝힌 최중구 금융위원장의 위대한 역설은 얼마나 지켜지고 있을까. /ryusoul91@metroseoul.co.kr



김상회의四季

멈춰야 미래가 보인다

현대인들에게 배달음식은 편리함의 상징이다. 시간 들여 요리를 하지 않고 간단히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건 상당히 매력적이다. 새벽마다 현관 앞에 아침점거리와 반찬 재료를 배달해주는 업종도 인기가 좋다. 장을 보지 않고 문 앞에서 곧바로 요리재료를 얻을 수 있으니 얼마나 편한가. 이는 현대인들이 무척 바쁘다는 방증이다. 직장일과 집안일을 함께 해야 하고 아이가 있으면 육아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 바쁜 일상에 쫓기다 보니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편리함을 찾는다. 그러나 이렇게 바쁘고 힘겨울수록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역설적으로 바쁘지 않은 시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숨 돌리고 몸과 마음을 쉬 수 있는 시간과 공간. 자기의 방이나 카페 도서관 자동차 등 어디라도 좋다. 자기의 마음이 정원이라고 생각하면서 꽃과 나무를 가꾸듯 마음에 흠뻑 물을 주고 싱싱하게 키워 보는 것이다. 마음에 휴식을 주고 힘을 기르는 방법으로 명상과 성찰을 권한다. 조용히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은 바쁜 현대인에게 오아시스와도 같다. 또한 자기 인생의 현재와 미래를 구상하는 시간이 되기도 한다. 명상과 성찰은 인생을 구상하는데 최고의 동반자이다. 인생 구상에 뺄놓을 수 없는 건 자기에게 현재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미래에는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분석해보는 것이다. 현재와 미래에 벌어지는 일을 제대로 알려면 자기의 시주를 알아야 한다. 역학은 인간의 삶에서 나타나는 일들을 순차적으로 알려준다. 시시각각 변하는 것이 삶이며 그에 대한 충분한 대비만이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어 준다는 걸 알려주는 학문이다. 매일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은 자기의 삶이 어디쯤 서고 어디로 가야하는지 내다봐야 할 것이다. 너무 바쁘게 사는 사람은 쉽게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다. 꾸준히 미래로 가는 길을 닦는 방법은 분주한 발걸음이 아니다. 가끔 멈춰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4							6
	8	7	9	6	4	2	5
	1		4		8		2
			7		3		
	3		5		6		8
	7	2	3	8	1	9	6
9							3

	1		3				7
		7				9	
2		6	5		7	3	4
		1	6		3	2	
				3	2		9
1		5	8		2	4	7
		8				1	
	3			1			9

스도쿠 정답								
2	8	6	5	9	4	7	1	3
4	1	5	2	7	8	9	6	3
7	9	6	1	8	3	2	5	4
6	8	1	9	2	5	7	4	3
5	7	9	4	1	6	3	8	2
3	2	4	8	6	7	5	1	9
1	5	2	7	9	6	1	8	3
9	6	3	2	4	8	1	5	7
8	4	7	5	1	9	6	2	3
8	6	9	5	1	2	7	4	3
5	2	1	7	9	8	3	6	4
4	7	2	6	8	5	9	1	3
1	9	5	6	2	4	7	8	3
6	8	2	4	5	1	6	3	9
7	1	4	8	5	9	6	2	3
9	5	6	1	2	7	4	8	3
2	3	8	9	4	6	7	1	5

문제 제공= 보누스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이창규
인쇄인	중앙일보(주) 김교준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4072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0176호

새로 나온 책

우리가 겪는 위기는 언어의 위기다

‘맨스플레인’(Man과 Explain의 합성어, 어쭙잡게 가르치려 드는 남성들의 행위를 일컫는 말)이란 단어로 전 세계적 반향을 일으킨 페미니스트 리베카 솔닛의 신작. 그는 “무언가를 정확한 이름으로 부르는 행위는 숨겨져 있던 잔혹함이나 부패를 세상에 드러낸다”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솔닛은 명명이 해방의 첫 단계라고 강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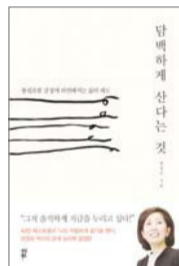
이것은 이름들의 전쟁이다
리베카 솔닛 지음/김명남 옮김/창비

미투 운동의 ‘나도(too)’라는 동어가 보여주듯, 들불처럼 번진 고발은 우리 사회의 젠더 위계를 수면 위로 끌어냈다. 그동안 남자를 고발하고 나선 여자들은 미치광이나 양심을 품은 거짓말쟁이 취급을 받아왔다. 모든 성폭행 보도의 이면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를 둘러싼 전쟁이 숨겨져 있다. 모든 전쟁은 언어의 싸움이다. 솔닛은 언어를 정확하게 쓰는 것이 의미 분열에 대항하는 방법이라고 말한다. 피해자가 복수를 당할 만한 잘못된 행동을 했다는 뉘앙스가 담긴 ‘리벤지 포르노’라는 말은 ‘디지털 성범죄’로, ‘묻지마 살인’은 ‘여성혐오 범죄’로, ‘몰래카메라 영상’은 ‘불법 촬영물’로 올바르게 바뀌

불러야 한다는 것이다. 다양한 주제와 시기를 오가는 책의 글들은 하나의 메시지로 수렴한다. 우리가 겪는 위기는 언어의 위기이며, 이를 극복할 무기 역시 언어라는 것이다. 언어를 정확하고 조심스럽게 사용하는 것은 의미 분열에 대항하는 방법이자 공동체를 격려하고 대화를 이끌어내는 방법이다. 어떤 병에 걸렸는지 진단해야 치료를 시작할 수 있듯, 우리가 직면한 문제의 정체를 알아야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게 된다. 344쪽, 1만5000원 /김현정 기자 hik1@

담백하게 산다는 것

양창순 지음/다산북스



‘나는 까칠하게 살기로 했다’로 40만 독자의 마음을 사로잡은 양창순 박사의 마음 처방전. 그는 우리 마음을 괴롭히는 실체는 외부의 것이 아닌, 내 마음속에 존재하는 불필요한 감정들이라고 이야기한다. 저자는 삶이 괴로운 사람들에게 ‘담백함’이라는 처방을 내린다. 갖은 재료를 우려낸 담백한 국물처럼, ‘거리 두기’로 담백한 인간관계를 맺어보자. 240쪽, 1만5000원.

힘내라 돼지

심상대 지음/나무옆의자



교도소에서는 죄수들을 ‘사장님’이라고 부른다. 책은 교도소 사장님들에게 보내는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다. 책은 1979년생 돼지띠 동갑내기 중년남자 3명이 교도소에서 만나 벌어지는 좌충우돌 감방 생활기를 담았다. 세 주인공은 수감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출소할 수 있을까. “이번 생은 망했다”고 한탄하는 중년 남성들을 위한 수용소 코미디. 308쪽, 1만3000원

민트의 세계

듀나 지음/창비



20년 넘게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오로지 글로만 대중과 소통해 온 작가 듀나의 신작 SF 미스터리 소설. ‘배터리’만 있으면 누구나 초능력을 쓸 수 있는 2049년 대한민국. 시민들은 배터리의 잠재력을 통제하려는 거대 기업 LK의 탄압에 시달린다. 초능력 소녀 민트는 친구들을 모아 초능력 엘리트 팩 ‘민트 갱’을 결성한다. 형사 출신의 인력관리국 직원 한상우는 민트의 과거를 따라가며 돌이킬 수 없는 진실에 닿게 된다. 336쪽, 1만3800원



시와 사진이 있는 아침

금뿔의 다리

여린 가지로 하늘 향해 피우는 저 꽃들의 향연처럼 힘들어도 다시 한번 푸르게 돌아오라라고 /고흥근 작

39,900원짜리 구스다운 비법은?

소재 先구매 등 원가경쟁력이 핵심

인터뷰 윤세은 위비스 MD부장

비수기 생산으로 가격 경쟁력 ↑ 판매율 2배 경증... 목표매출 달성 색상·디자인 차별화로 타깃 확대



위비스 패션브랜드 지센의 경량 구스다운.

겨울철이면 흔히 볼 수 있는 경량 구스다운 제품. 두께는 얇지만 탁월한 보온성을 제공해 남녀노소, 연령불문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문제는 어떤 제품을 고르느냐다. 경량 구스다운 제품을 구매할 때 고려해야 할 조건은 충전재(솜털·깃털)의 함유량과 활동성, 보온성 등이다. 여기에 가격 역시 빠질 수 없는 조건이다.

위비스의 패션브랜드 지센은 이 모든 조건을 채운 제품으로 올 겨울, 조용한 돌풍을 몰고 있다.

위비스의 윤세은 MD팀 부장은 본지와 인터뷰에서 “경량 구스다운 제품의 판매율이 지난해 27%에서 45%로 높아졌다. 전년 대비 생산 금액을 2배 가까이 늘린 것과 대비해 월등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판매 호조의 비결은 바로 ‘가성비’다. 타사 대비, 1만 원 가량 저렴한 가격에 품질은 높였다. 윤세은 부장은 “원자재 선구매와 비수기 생산을 통한 원가 경쟁력 확보를 통해 좋은 품질 대비 저렴한 원가로 생산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소재 R&D실을 신설하면서 소재 선구매와 통합구매 시스템을 가동했습니다. 이를 통해 원자재 비수기 생산이 가능해져, 가격이나 품질 면에서 타사 대비 우수한 제품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생

산처도 비수기 선 생산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현재, 지센의 온라인몰에서 판매 되고 있는 ‘여성 라운드넥 경량 구스다운 패커블 베스트’의 가격은 3만9900원이다. 5만 원대를 웃도는 타사 제품들과 비교해 저렴하다. 충전재는 솜털 80%, 깃털 20%로 이상적인 함유 비율을 유지했다.

타사 제품들과 비교해 다양한 색상(8종), 스타일을 구성해 소비자들의 선택 폭을 넓힌 것도 판매 전략 중 하나다. 윤 부장은 “경량 아이템이 남녀노소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매김한 상황에서 가격 경쟁력 만으로는 고객에게 어필하기 힘들다는 판단 때문에 색상과 디자인을 다양화했다”고 말했다.

“색상은 캐주얼이 아닌 여성라인 색상을 사용해 차별화를 뒀습니다. 또 기본 베스트부터 롱기장의 심리스 경량까지, 경량으로 제한할 수 있는 최대한의 스타일로 구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경량 구스



윤세은 위비스의 MD

다운 제품은 지센이 최종 목적지라는 인식을 심고자 했습니다.”

지센의 이 같은 노력은 ‘다운에이징’(Down-aging) 전략과도 맞물린다. 가성비를 앞세운 전략은 기존 타깃층인 중장년층을 넘어, 2040세대 소비자들의 관심을 끄는 데도 유효하게 작용했다.

윤 부장은 “가격과 품질을 높인 에이저리스(Ageless, 나이 경계가 없는) 제품군을 강화하고 있다”며 “경량 다운과 바람막이 같은 카테고리 킬러(Killer) 제품들은 3040대 고객들에게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서 고객 연령층을 낮추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부장에 따르면 지센은 경량 다운 제품의 판매 호조에 힘 입어 10월부터 목표 매출을 100% 가까이 달성하고 있다. 이를 시작으로 지센의 경쟁력을 더욱 높이는 것이 목표다.

“올해는 론칭 이후 기록적인 매출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센은 파워 아이템을 통해 기존 가두상권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다운에이징’ 전략을 통해 연속성이 가능한 브랜드로 변화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계절의 영향을 받지 않는 제품들로 기본 매출을 확보해 다양한 유통망으로의 선별적 진출도 용이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김민서 기자 min0812@metroseoul.co.kr

“올 겨울 커피 준비하셨나요?”

‘커피의 계절’ 가을을 맞아 식품업계가 분주하다. 카페 프랜차이즈들이 시즌신메뉴를 내놓고 마케팅을 강화하는 가운데, 인스턴트 커피 제품을 판매하는 식품업계에서는 ‘커피믹스’에 주목하고 있다. 최근 원두커피의 대중화로 커피믹스 시장이 위축되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도 그 수요층이 균건하기 때문이다. 지난 2007년 네스카페는 국내 소비자들이 커피의 맛과 원두의 품질에 대한 지식 수준이 높아지는 것에 주목해, 단지 간편하고 저렴한 커피로만 인식되던 커피믹스에 고급화를 꾀한 ‘네스카페 수프리모’를 선보였다. ‘네스카페 수프리모’는 인스턴트 커피 브랜드로는 최초로 커피 원두 원산지를 마케팅 포인트로 내세운 프리미엄 커피믹스다. ‘네스카페 수프리모’는 고급 원두로 알려진 아라비카 원두 중에서도 에티오피아 해발

식품업계 ‘믹스커피 대전’ 시즌메뉴 강화·패키지 출시

1600m 고산지대에서 자란 프리미엄 원두를 사용했다. 진하고 풍부한 맛의 ‘커피믹스’뿐만 아니라 블랙커피의 깔끔한 맛과 향이 돋보이는 ‘아메리카노’, 약간의 설탕이 함유된 ‘스위트 아메리카노’, 카페인 걱정 없이 즐길 수 있는 ‘디카페인’ 총 4가지로 구성돼 소비자의 기호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지난해 ‘건강 커피’라는 차별화된 콘셉트의 프리미엄 커피 ‘노블’을 선보이며 인스턴트 커피업계에서 뛰어난 일동후디스는 본격적인 커피 성수기를 맞아 첫 기획팩을 내놨다. 노블커피는 항산화 성분 폴리페놀의 함량이 높은 프리미엄 건강 커피로, 그린커피빈 추출물을 블렌딩해 일반 커피 대비 폴리페놀의 함량이 약 2~3배 높으며 제품에 따라 120mg에서 160mg이 담겨있다. 커피믹스와

라떼의 경우에는 식물성 경화유지를 빼고 신선한 1A 등급 우유와 코코넛 오일을 사용해 건강함은 물론, 깊고 부드러운 맛까지 살린 것이 특징이다. 대상도 최근 가성비를 내세운 온라인 전용 브랜드 ‘집으로ON’을 통해 ‘마이 오피스 커피’를 출시하면서 본격적으로 커피믹스 시장에 진출했다. 마이오피스커피는 동결건조 커피를 사용해 원두 고유의 맛과 향을 살렸으며, 텁텁하지 않으면서 깔끔한 뒷맛이 특징이다. 동서식품이 1989년 선보인 커피믹스 ‘맥심 모카골드’는 출시 이후 지금까지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시장 점유율 1위를 굳건히 지켜오고 있다. 동서식품은 콜롬비아, 온두라스, 페루 등의 최상급 아라비카 원두를 엄선해 오랜 기간 소비자 조사를 통해 도출한 최적의 비율로 블렌딩해 언제 어디서나 누가 타도 맛있는 커피를 만들어냈다.

/박인용 기자 parkiu78@



대한민국 5대 금융그룹



51년 길고 곧은 역사



전국 및 해외로 뻗은 영업망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무, 레드우드 처럼
대한민국 금융생태계에 가장 높은 나무가 되겠습니다!

레드우드는 100m 이상 자라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무입니다. 한 거목에는 61개의 가지와 200개 이상의 2차 몸통이 있고 임관 토양 220kg에 달하며, 임의 총 무게는 1.5톤이 넘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성장이 빠른 생명체로 화창한 날씨 속에 묘목이 매년 1.8m씩 자랍니다. 그 높은 키를 지탱하기 위해 숲을 이룬 결의 다른 레드우드들과 뿌리를 공유하며 300년간 100m 이상의 거목으로 자라납니다. 레드우드의 규모는 수목의 모든 기록을 갱신할 정도입니다. 오늘날 레드우드 중에는 수령 2,000년을 넘긴 나무도 있습니다. 나뭇결이 아름답고 색채가 고르며 도장이나 착색 효과가 좋아 무늬목, 목재 제품, 문이나 창틀, 벽판의 제작 등에 쓰고 부식에 강해 옥외용 가구 목재로도 쓰이는 등 인간에게 헌신하는 나무입니다.

“가을철 야외활동시 진드기 조심하세요”

목포시, 감염병 예방 당부

목포시가 가을을 맞아 야외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진드기로 인한 감염병 예방을 당부했다.

가을철 주로 발생하는 진드기 매개질환에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SFTS)와 쯤쯤가무시증 등이 있으며 벌초, 등산, 추수시 털진드기 유충에 물려 가장 많이 감염된다.

이 밖에도 논, 개울 등에서 피부상처를 통해 감염되는 렙토스피라증, 감염된 설치류의 타액, 소변, 분변이 건조돼 비말 형태로 감염되는 신증후군출혈열 등이 가을철 주의해야 할 감염병이다.

진드기 매개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야외활동시 풀밭 위에 앉거나 눕지 않기 ▲풀밭 작업 시 긴팔, 긴소락 착용하기 ▲작업 및 야외활동 시 기피제 사용하기 ▲야외활동 후 옷은 털고 반드시 세탁하기 ▲샤워나 목욕하기 ▲몸에 진드기가 붙어있는지 꼼꼼히 확인하기 등을 준수해야 한다.

시는 가을철 발열성질환 환자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기피제·포스터·리플렛 등을 배부하고 있



다. 신증후군출혈열의 경우에는 농업종사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연중 무료로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가을철 발열성질환은 조기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야외 활동 후 주요 증상인 발열, 오한, 두통, 발진 등이 나타날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신속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 목포=김원유 기자 wonyoo9700@



지난 2일 광주 선명학교에서 열린 '상상 패럴림픽 5th'.

KT&G 전남 운영사무국 '상상 패럴림픽 5th'

장애인 인식 개선·관계 증진 의미

KT&G 상상유니브 전남 운영사무국(본부장 이승우)은 지난 11월 2일 광주 선명학교에서 '상상 패럴림픽 5th'를 개최하였다.

올해로 5회를 맞이하고 있는 상상 패럴림픽은 장애인올림픽에서 착안한 행사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와 장애인의 관계를 증진시키는 데에 의미를 두고 있다.

이번 행사는 KT&G 상상유니브 대학생 봉사단인 '상상 발룬티어(volunteer)'가 주축이 되고 광주·전남 대학생 봉사자 100여명과 장애인 100여명이 참여하여 선명학교 친구들과 대학생 자원봉사자와

1:1 매칭으로 진행하고 조선대학교 태권도 시범단 초청공연, 전남대 미술학과 캐리커처 등으로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되어 즐거운 축제의 장이 진행되었다.

이번 상상 패럴림픽을 참여한 상상발룬티어 임종현 학생은 “작년에는 자원봉사로 지원해 참여했지만 올해는 직접 상상 패럴림픽을 기획하고 운영하며 장애인 인식에 있어 조금 더 가까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고 함께 즐기고 추억하며 나눌 수 있는 이번 봉사에 참여할 수 있어 더욱 더 뜻깊은 시간이었다”라고 전했다.

KT&G는 연간 매출액의 2.5%(약 728억원)를 사회에 환원하며 '함께하는 기업'이라는 경영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전남=봉채영 기자

오늘의 날씨 (Today's Weather) section for November 5th. Includes a map of Korea with weather icons for various cities (Seoul, Gwangju, etc.) and a list of weather-related statistics like UV index, pollen count, and wind speed.

2만여 대리·택배기사 쉼터 조성

경기도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 일한 이동노동자 휴식·근무여건 개선 힘써

경기도가 2만1600여명에 달하는 도내 대리기사 등 이동노동자들을 위한 쉼터 조성을 추진한다.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약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의 일환이다.

이재명 지사는 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기 시간이 길고 마땅한 휴식공간이 없는 대리기사, 퀵서비스 기사, 택배·배달업 종사자 등 이동노동자들의 휴식 여건 보장과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지원사업'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사업은 근무 특성상 대기시간이 길고 마땅한 휴식공간이 없는 대리기사나 퀵



서비스기사, 택배·배달업 종사자 등 이동노동자들의 휴식여건과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목적이다.

현재 도내에는 약 2만1600명의 이동노동자가 등록돼 있지만 이들을 위한 쉼터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동노동자 쉼터에는 휴대전화 충전기, 컴퓨터, 냉난방기, 안마의자, 혈압측정기, 발 마사지기 등 편의시설이 지원된다. 또 이동노동자들을 위한 건강·금융·법

률·가계·복지 등의 기초상담 서비스와 직업·전직·건강 등의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경기도 마을노무사,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도의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사업 등과 연계해 노동법률 상담 제공과 법률지원 등에 나선다.

경기도는 올해 9월부터 시·군별 수요조사에 이어 시군 및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등 관련단체와 간담회를 통해 공간 형태 및 운영방식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추후 추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도가 사업총괄과 기본계획 수립을, 시·군이 쉼터 공간 확보와 운영을 각각 맡게 되며 사업비의 50%를 도에서 분담한다. 경기도는 공공기관 활용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시군을 우선 고려해 올해 연말 최종 지원 대상 시군을 선정해 내년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광주銀, 쉽고 편한 모바일웹뱅킹 리뉴얼

고객 편의 맞춤 금융서비스 확대
옴니채널 창구디지털서비스 적용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지난 7월 '모바일웹(web)뱅킹' 출시에 이어 최근 모바일웹(web)뱅킹 서비스를 리뉴얼하고 창구 디지털서비스(BDT; Branch Digital Transformation)를 오픈했다고 밝혔다.

모바일웹(Web)뱅킹은 기존 스마트뱅킹과 달리 어플(APP)을 설치하지 않고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광주은행'을 검색하여 손쉽게 접속할 수 있으며, 온라인 계좌신규(원화, 외화), 정기에·적금, 여성 전용적금, 신용대출, 신용카드, 체크카드, 퇴직연금 IRP, 중도금대출 신청 등 각종 서비스를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이번 리뉴얼을 통해 은행권 처음으로 공용DB와 워크플로우 설계방식을



도입하여 개발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였으며, 각 상품 및 서비스 가입 중 진행을 중단한 경우 '이어가기' 기능, 계좌 동시개설, 전자방식서류제출서비스, 모바일약정서비스, 위치정보기반 영업점 찾기, 상담예약(VIP방문예약) 등 고객편의에 초점을 둔 금융 서비스 제공을 대폭 확대하였다.

더불어 옴니채널(온라인, 오프라인,

모바일 등 다양한 경로로 연결) 방식 설계로 창구디지털서비스를 적용함으로써 영업점 직원은 '전자명함'에 상품과 서비스를 첨부하여 고객에게 SMS-URL을 발송하고, 고객은 URL 접속으로 간편하게 상품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광주은행은 올 연말까지 모바일뱅킹의 상품과 서비스를 추가로 확대하고, 새로운 주택담보대출 시스템 오픈, 인터넷·스마트폰뱅킹 고도화 등 고객 중심의 디지털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광주은행 백의성 디지털전략부장은 “모든 상품·서비스 가입을 비롯한 은행 업무를 디지털화하여 고객이 쉽고 편하게 금융 서비스를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혁신적인 디지털뱅크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광주=봉채영 기자 bcy2020@

마을기업 (유)삼향골, 목포愛손두부 개업... 일자리 창출 등 기대

목포시 마을기업 (유)삼향골이 '목포愛손두부'를 개업했다. (유)삼향골은 지난 1일 김종식 목포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업식을 갖고 영업 개시를 알렸다.

'목포愛손두부'는 국산콩과 해양심층수, 청미래로 만든 무방부제 손두부를 제조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질 좋은 제품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014년도 전남형 예비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데 이어 2015년도에는 행정안전부형 마을기업으로 인증받은 (유)삼향골은 주말농장 운영, 전통 반찬사업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공동체 문화 조성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왔다.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



지난 1일 삼향골 마을기업 개업 기념식.

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기업이다.

김종식 목포시장은 “마을기업은 시장

경제의 미흡한 부분을 채우는 역할을 한다. (유)삼향골이 더욱 번창해 지역경제의 버팀목이 되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남 목포=김원유 기자

티웨이항공, 국제 정기노선 신규 취항식

티웨이항공이 2일 무안국제공항에서 국제 정기노선 신규 취항식을 갖고 첫 국제 정기노선 운항에 들어갔다.

이날 취항식은 박병호 전남도 행정부지사, 장영식 무안군 부군수, 티웨이항공

정비본부장, 한국공항공사 무안지사장, 전남도 및 무안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꽃다발 증정, 기념촬영 등으로 진행됐다.

이번 취항으로 티웨이항공은 무안-기

타큐슈노선(오후 8시 20분에 출발, 오후 9시 30분 도착)을 매일 운항한다.

또한, 다음달 22일부터는 무안-오이타(주4회), 무안-사가(주2회) 등의 노선도 정기 취항이 확정되어 티웨이항공의 무안국제공항 노선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 무안=양수영 기자 ysn6313@



돈화문민요박물관 조감도.

/서울시

돈화문민요박물관 민요 자료 공개구입

서울시, 기록·문헌 등 16일까지 접수

서울시는 내년 10월 개관 예정인 '돈화문민요박물관(가칭)'의 전시·아카이브에 활용하기 위한 자료 공개구입 접수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돈화문민요박물관에서 찾는 자료는 잊혀져가는 민요의 역사와 변천 과정을 보여주는 각종 기록, 문헌, 사진 등이다.

시는 ▲민요 현장 조사 자료(가장 실황 자료, 현장 조사 결과물, 민요 채집·연구 관련 문건) ▲민요 수록자료(해방 전 출간도서, 잡지, 엽서 및 민요 주제의 시나리오·포스터 등) ▲생활문화 자료(고지도, 풍속화, 놀이문화, 장례 의식, 세시의례 관련 자료) ▲국악로 관련자료(이왕직아악부, 조선성악연구회, 일제 강점기 극장 관련 자료) ▲국악 음반, 음원(SP, LP) 등을 구입할 계획이다.

민요 관련 자료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 문화재 매매업자 및 법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문화재 매매업자는 반드시 등록된 상호명으로 매도신청을 해야 한다. 도굴품·도난품 등의 불법 자료, 소유나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자료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신청 접수 기간은 11월 5일부터 16일까지이다. 서울시청 박물관과(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 청사 1동 12층)로 직접 방문하거나 담당자 전자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자료매도신청서, 자료목록 등 접수와 관련된 서식은 서울시 홈페이지 또는 서울역사박물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현장 접수는 오전 9시부터 11시 30분까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할 수 있다.

시는 1차 서류 심사 후 평가대상으로 선정된 자료에 대해 개별 통지한다. 이후 2차 실물 접수를 진행해 자료평가위원회의 심의평가를 거쳐 구입 자료를 선정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문화시설 추진단 박물관과로 문의하면 된다.

정진우 서울시 문화시설추진단장은 "우리나라의 첫 민요 전문박물관이 2019년 10월 창덕궁 앞 돈화문로에 문을 연다"며 "돈화문민요박물관이 누구나 우리 민요의 맛과 멋을 느끼는 열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자료 공개구입에 서울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 우수소상공인 박주선씨 등 16명 시상

'지역사회공헌 인증점포' 현판 수여

서울시는 5일 소상공인의 날을 기념해 '지역사회공헌 우수소상공인' 시상식을 열고, 총 16명을 시상한다고 4일 밝혔다.

38년 동안 생명의 전화 상담사로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박주선 씨, 저소득 소아암 환자에게 산삼을 기부해오고 있는 박형중 씨, 장애인 취업교육에 앞장선 김남홍 씨 등이 시상대에 오른다.

불우이웃에게 물품을 기부해 온 박철순 씨, 독거노인을 위한 무료급식을 제공하는 오천호 씨 등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지속적인 나눔을 베풀어 온 소상공인들도 상을 받는다.

시는 지난 7월 16일~8월 17일 홈페이지

지 공고를 통해 후보자들을 추천받았다. 공헌 활동 내용, 활동 적극성,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표창 대상자를 최종 선정했다.

시는 수상자에게 서울시장 표창장과 함께 '지역사회공헌 인증 점포' 현판을 수여한다. 이를 통해 시는 소상공인들의 공헌활동이 확산되도록 홍보·전파할 계획이다.

이성은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이번 시상식은 지역사회의 근간이자 골목상권을 지키는 소상공인의 사회공헌 활동을 널리 알리는 기회"라며 "선행과 나눔으로 지역사회에 헌신하고 있는 숨은 사장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경기도, 5년간 '공동체 전문가' 656명 채용

시·군 인건비 50%씩 분담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내년 37명을 시작으로 2023년까지 5년 동안 '공동체 전문가' 656명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공동체 전문가는 주민 10명 이상이 참여하는 공동체를 대상으로 회계교육 등 컨설팅에 나서게 되며 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하게 된다. 시·군 여건에 따라 기간제 근무자로 일할 수도 있다.

채용 대상은 공동체 활동 경험이 풍부

한 현장활동가이며 도와 시·군이 인건비를 50%씩 분담한다. 도는 '공동체 활동 전문가 육성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현장 사례 중심의 교육 커리큘럼을 마련하는 등 인력양성에도 나서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앞장서 온 활동가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공동체 활동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공동체 전문가를 채용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공동체 활동 분야의 인력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오래된 나무·폐유리병 등 재활용 원전하나줄이기 정보센터 재개관

서울시, 정책·포토 등 4개존 구성

서울시는 5일 원전하나줄이기 정보센터를 새로 단장해 재개관한다고 4일 밝혔다.

원전하나줄이기 정보센터는 사업에 대한 정보 제공과 시민 참여 공간 조성을 위해 2013년 개관했다. 시는 내방객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10월 말 노후 시설, 정보제공 시스템 개선 등 재정비 작업에 들어갔다.

원전하나줄이기 정보센터는 오래된 나무, 폐유리병, 폐교 마룻바닥 자재 등을 재활용해 지어졌다. 방문이나 교육 참여를 통해 매년 2만명의 시민이 이용하고 있다.

시는 다양한 참여형 전시물을 설치해 재미와 흥미를 더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원전하나줄이기 History 존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존 ▲참여존 ▲포토존 등 총 4개의 존을 구성했다.

'원전하나줄이기 History 존'에는 시선 이동에 따라 정보가 바뀌는 렌티큘러(Lenticular)를 적용했다. 이곳에서는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의 추진 배경과 성과를 확인할 수 있다.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존'은 디지털 콘



박원순 서울시장.

/손진영 기자

텐트로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주요 정책별 사업내용, 행사 소식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참여존'에서는 증강현실(AR)을 활용해 시민, 마을, 단체별 참여 가능한 정책(E-Start) 정보를 알아볼 수 있고, 몇 가지 설문을 통해 내게 필요한 정보를 찾아볼 수도 있다.

'포토존'은 정보센터 앞 공간에 꾸러졌다. 방문객들은 원전하나줄이기 상징

인 동글이와 아트트릭이 설치된 포토존에서 추억을 남길 수 있다.

이와 함께 센터는 서울에너지 전광판을 통해 에너지 자립마을의 현황과 주요 성과, 지역별(북서부, 북동부, 남서부, 남동부) 투어 코스 정보를 제공한다.

원전하나줄이기 정보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5시까지,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관한다. 상시이용시설은 예약 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에너지 절약, 생산관련 교육프로그램은 무료 사전 예약을 하면 참여할 수 있다.

방문후기 이벤트, 열쇠고리 체험 프로그램 등 방문객 참여 활동도 함께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원전하나줄이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연지 에너지시민협력과 과장은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정보센터는 누구나 쉽게 신재생에너지 생산과 에너지 절약 등 에너지 전환에 대해 접하고 배울 수 있는 공간으로 사랑받아왔다"며 "앞으로도 에너지로 소통하고 배울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해 많은 시민들이 즐겁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비닐봉투 무상제공땀 과태료 300만원

서울시, 5~9일 점포 등 집중단속 종이재질 봉투·쇼핑백 대상 제외

서울시는 5~9일 대규모 점포, 도·소매업 등을 대상으로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 금지' 이행여부를 집중 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

해당 기간 동안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쓰레기 함께 줄이기 시민운동본부 등 환경단체는 합동 점검에 나선다. 1회용 봉투와 쇼핑백을 무상 제공한 대형마트, 슈

퍼마켓, 편의점은 자원재활용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점점반은 속비닐 사용량 감축, 유색코팅 트레이 사용 억제, 상품 추가 포장 자재, 재사용 종량제 봉투 사용, 포장용 박스 비치, 소비자 대상 장비구니 사용 권고 등을 계도한다.

순수 종이 재질의 봉투나 쇼핑백, 생선·정육·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 재질의 봉투는 점검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시는 지난 7월 커피전문점 등을 대상으로 매장내 일회용품 사용 억제 제도·홍보를 실시한 바 있다. 시는 8~9월 1회용품 다량사업장 총 1만366곳을 점검, 8건을 적발하고 총 7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박동규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1회용품 소비를 줄이고, 친환경 소비문화가 정착하려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식이 중요하다"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장비구니 사용 등 친환경 소비를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현정 기자

"서울 곳곳 공원 사진으로 즐기세요"

서울시는 5일부터 14일까지 신청사 1층 로비에서 '2018 서울의 공원사진사 합동 사진전 - 공원은 놀이터'를 연다고 4일 밝혔다.

지난 7월 '공원 수작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를 맞이하는 전시는 공원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이벤트로 진행된다.

시는 전시를 통해 공원사진사로 선발돼 활동 중인 72명의 작가가 서울의 공원과 이곳에서 여가를 즐기는 시민들의 다양한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공개한다. 전시는 서울시 창의어린이놀이터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어린이놀이터 시민 공모 수상작 등으로 구성됐다.

사진은 4개의 구조물로 구분돼 전시된다. 첫 번째 구조물에는 공원사진사들의 작품들이 전시된다. 월드컵공원, 보라매공원, 서울숲, 여의도공원 등 서울의 주요 공원들의 모습이 담겼다.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즐거운 표정과 아름다운



'2018 서울의 공원사진사 합동 사진전' 전시 작품. /서울시

공원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두 번째 구조물에는 서울의 공원사진사, 사진전 참여 공원사진사 소개 및 활동 사항이 함께 전시된다. 공원사진가에 관심 있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세 번째 구조물 역시 공원사진사들의

서울의 공원사진사 합동 사진전
공원사진사 72명 촬영 사진 공개

작품으로 구성된다. 남산공원, 서울창포원, 북서울꿈의숲, 서울로 7017 등에서 촬영한 사진작품을 통해 서울 공원의 사계와 공원에서 여가를 보내는 시민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네 번째 구조물에는 어린이 놀이터 특별전이 꾸러진다. 서울시 창의어린이놀이터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어린이놀이터 시민 공모 사진 작품이 전시된다.

사진전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관람 시간은 평일, 토·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최윤중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시민들에게는 서울의 공원과 공원사진사 제도를 소개하고, 공원사진사들에게는 서울의 공원을 아카이빙(archiving)하는 주체로서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번 사진전을 개최했다"며 "전시회를 통해 공원이 도심 속 여가 활동과 놀이 공간으로 사랑받는 곳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산업] 현대모비스 'AI-미래차' 등 신기술 발굴·투자 05



Life

[패션] 윤세은 위비스 MD부장 "중저가 경량 구스다운 원가 경쟁력이 핵심" L4



새벽공기 마시며 연기모임... 여명의 셋별과 닳은 배우들 “더 나은 세상, 배우로서 힘 보탬 수 있다면 큰 보람”



새벽을 여는 사람들

연기모임 '리벤저스' 멤버

최이서·한보리·김구슬 씨

일주일에 3번 새벽 6시부터 모여 서로 에너지 주고 받고 정보 교환

연기 시작하게 된 계기 다르지만 자유로움·창조서 연기 매력 느껴 힘든 이들에 희망 주는 배우 되고파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배우로써 조금이나마 힘을 보탬 수 있다면 그것만 큰 보람도 없죠.”

날이 밝기 전, 동쪽 하늘에 밝게 빛나는 셋별을 닳은 배우들이 있다.

독립영화 현장과 연극 무대에서 활약하며 자신만의 무지개를 찾아 새벽을 여는 '리벤저스'의 멤버들이 그 주인공이다.

리벤저스는 연기연습과 단편영상 제작, 상업영화 오디션 준비를 함께 하는 연기모임이다.

리벤저스의 구성원인 한보리(29), 김구슬(27), 최이서(27) 배우는 매주 월, 수, 금 새벽 6시 사당역 인근에 위치한 작은 연습실에 모여 8시까지 모임을 진행한 후 요가 강사, 학원 강사, 카페 매니저 등 각자의 생업 현장으로 향한다.

모임 결성을 주도한 한보리 배우는 모임을 만들게 된 이유에 대해 “배우라는 직업이 생각보다 외로운 직업이라 함께 하며 서로 좋은 에너지를 주고 받고 정보도 교환하기 위해 모임을 만들게 됐다”며 “몸은 조금 힘들어도 모임을 통해 자신감이 더 커지고 모든 일에 더욱 열정적으로 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세 배우들이 연기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저마다 다르다.

연극영화과를 졸업한 한보리 배우는 2017년 연극 '영원한 평화'로 데뷔한 후 드라마 <나쁜녀석들2>와 <미스 함무라비> 등의 작품에 단역으로 출연했고, 독립 장편 및 단편 영화에 참여하며 연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14년 중앙일보 신춘문에 희곡 당선작인 <육조 속의 인어>로 연극 무대에 데뷔한 김구슬 배우는 극단 공감의 단원으로 활동하면서 독립 단편영화로 활동 무대를 넓히고 있다.

문예창작과를 졸업하고 뒤늦게 배우의 길로 들어선 최이서 배우 또한 한국예술종합대학 영상원 단편영화를 비롯해 영화학과에서 제작하는 다양한 단편 영화에 출연하며 연기의 꿈을 키워가고 있다.

연기 모임 이후 각자의 직장에서의 일을 마치고, 또 자기계발을 위해 외국어 공부까지 하고 나면 세 배우들은 보통 밤 11시가 넘어 귀가한다.

누구보다 치열하게 하루를 보내면서도 이들이 새벽 공기를 마시며 연기 모



연기모임 '리벤저스'의 멤버들인 최이서, 한보리, 김구슬(왼쪽부터) 배우가 서울 강남역 인근의 한 카페에서 인터뷰를 마친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최신용기자



2017년도 한국예술종합대학 영상원 작품 '이서'에 출연한 최이서 배우의 모습.



JTBC 드라마 '미스 함무라비'에 출연한 한보리 배우의 모습.



2018 서울 프린지 페스티벌에 참가한 극단 공감의 연극 '2+'에 출연한 김구슬 배우의 모습.

임에 나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건 바로 한 번 접하게 되면 쉽게 빠져나올 수 없는 연기의 매력 때문이다.

최이서 배우는 “카메라가 놓인 완벽하게 다른 시공간 안에서 연기를 할 때 설 명할 수 없는 자유로움을 느낀다”며 “사

회 안에서는 여러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데 연기하는 순간에는 이런 가면을 벗어버릴 수 있는 게 연기의 매력인 것 같다”고 말했다.

김구슬 배우는 연기를 통해 느끼는 자유로움과 함께 무언가를 함께 새롭게 만

들어가는 과정 또한 연기의 매력이라고 말한다. 연극의 경우 보통 2~3개월에서 많게는 6개월 정도 한 작품을 위해 배우와 스태프들이 함께 노력한다. 그 기간 동안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고 작품을 분석하면서 새로운 무언가가 창조될 때의 희열이 배우로서 느끼는 연기의 가장 큰 매력이라는 것.

“사실 무대에서 연극을 마치고 관객들에게 박수를 받을 때면 이렇게 끝나는 건가 허무하게 느껴질 때도 있죠. 하지만 분명한 건 그 박수를 받기 위해 작품을 준비했던 모든 구성원들의 열정으로 한 단계 발전한 나를 발견할 때 내가 왜 배우라는 길을 선택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처럼 자신이 좋아하는 연기 활동을 하며 하루를 알차게 보내는 이들이지만 현실에 대한 두려움과 막막함이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신문과 방송 등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보도되는 청년층의 고단한 현실을 접하게 될 때면 마냥 즐거울 수만은 없는 것이 사실. 하지만 세 배우는 힘든 시기일수록 더욱 꿈을 잃지 않고 지금 자신이 밟고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할 때, 반드시 꿈은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며 자신과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이들에 대한 응원도 잊지 않았다.

한보리 배우는 “우리가 모임을 통해 서로에게 힘이 되는 것처럼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주변을 둘러보면 좋을 것 같다”며 “분명 자신을 지지해주고 힘이 돼 줄 이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또한 앞으로 연기를 통해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년 실업률 사상 최대라는 말이 아무렇지 않은 요즘, 꿈을 잃고 방황하는 동시대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싶다고 말하는 이들의 미소가 더욱 소중하게 느껴진다.

/최신용 기자 grandtrust@metroseoul.co.kr